백년청사

If a Red Brick Speaks:
The Centennial Chronicle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총괄 이승혜

전시

기획 남승덕
진행 박창열, 남승덕, 이유경, 김수경
교육 이채린
참여 제5기 동아뮤즈 수료 학생
(가나다순) 강성윤, 고경민, 김지민, 김효은, 남혜원, 손시아, 손주원, 송주영, 윤소현, 이성빈, 이채현, 장지원, 전영지, 정채은, 최임경, 허훈녕
영문번역 남승덕
전시시공 ㈜코어디자인
전시영상 ㈜옹골찬사람들

도록

기획 남승덕
해설 남승덕, 이유경
교정 남승덕, 이유경, 김수경, 이채린
칼럼 이유경, 김수경,
신동규(동아대학교 일본학과,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배병욱(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전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구술 박창열·이수영, 김기수(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김길연·김종부·정웅(경남도청 당시 근무자),
양해광(창원군청 당시 근무자)
사진촬영 서헌강 사진연구소, 신부삼(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북디자인 아트퍼블리케이션디자인 고흐
인쇄 ㈜알래스카인디고
자료협조 경상남도행정동우회,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가나다순)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법원 도서관,
동서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창원향토자료전시관,
한국영상자료원, United Nations Photo Library

후원 UNICK

백년청사

If a Red Brick Speaks:
The Centennial Chronicle

일러두기

1. 이 책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개교 79주년을 기념하고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건립 100년을 맞아 개최하는 기획전시 〈백년청사〉 도록입니다.
2. 작품 정보는 명칭, 작가, 제작 시기, 크기(가로×세로×높이), 소장처, 기증자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도록에 수록된 모든 글은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 원어를 병기하였습니다.
4. 외부 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변형 없이 그대로 실었으며 명칭은 외부 기관에서 제공한 표기 또는 기존 기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5. 참고 문헌은 기사, 도록, 저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보고서로 나누어 저자의 가나다 순으로 실었습니다. 외국어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로 표기하였습니다.
6.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아대학교 및 외부 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재, 복제, 변형, 송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외부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사용은 해당 기관에게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Note for Readers

1. This catalog was published by the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to commemorate the university's 79th anniversary and the centennial of the Government Building the Provisional Capital in Busan.
2. Object information is given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creator, date, dimensions (width×height×depth), holding institution, and donor, with slight adjustments where necessary.
3. All texts are presented in Korean, with original terms added in parentheses when clarity requires.
4. Materials provided by external institutions are reproduced without alteration, and names follow either the source institution or established records.
5. References are categorized by type and arranged alphabetically by author; foreign-language sources are transcribed in Korean.
6. All contents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Unauthorized reproduction, modification, or transmission is prohibited. For materials supplied by external institutions, please contact the relevant institution.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목차

006 인사말

008 화보집 | **그때와 지금, 하나의 풍경**

010 전시를 기획하며 | **백 년의 공간, 모두의 이야기**
남승덕(동아대학교 학예연구과)

016 연표 | **백 년의 시간, 청사의 발자취**

018 **I 붉은 벽돌에 새겨진 첫 이름**
(경상남도청, 1925-1950)

032 칼럼 1 | **경남도청 이전 이야기**
배병욱(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전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046 칼럼 2 | **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팸플릿 자료에 대해서**
신동규(동아대학교 일본학과,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066 **II 전쟁 속 나라의 중심** (임시 중앙청, 1950-1953)

086 칼럼 3 | **임시 중앙청: 전쟁과 일상의 교차**
김수경·남승덕(동아대학교 학예연구과)

088 **III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경상남도청, 1953-1983)

100 구술 1 | **도청 안에 머문 추억담**
김길연·김종부·정웅(경남도청 당시 근무자),
양해광(창원군청 당시 근무자)

102 **IV 법과 정의의 무대**
(부산지방법원·검찰청, 1984-2001)

117 칼럼 4 | **법관 의자에 깃든 시간의 흔적**
이유경(동아대학교 학예연구과)

120 **V 모두의 박물관으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02-현재)

132 구술 2 | **흔적의 재생과 기능의 전환**
김기수(동아대학교 건축학과)

138 구술 3 | **역사를 옮기고, 오늘을 세우다**
박창열·이수영(동아대학교 학예연구과)

152 도판목록

158 참고문헌

Contents

006 Preface

008 Reflections | **A Single Scene, Across Time**

010 Prologue | **Echoes in Brick and Time: A Century of Stories**
Nam Seungduk

016 Timeline | **The Centennial Chronicle**

018 **I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in the Modern Era**
(1925–1950)

032 Essay 1 | **The Relocation of the Provincial Office** Bae Byeong-uk

046 Essay 2 | **Picture Postcards and Pamphlet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hin Donggyu

066 **II The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086 Essay 3 | **Wartime Busan: Between War and Everyday Life** Kim Sugyeong & Nam Seungduk

088 **III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1953–1983)

100 Recollection 1 | **Personal Memories inside the Provincial Office** Kim Gilyeon & Kim Jongbu & Jeong Ung & Yang Hae-gwang

102 **IV Busan District Court and Prosecution Service**
(1984–2001)

117 Essay 4 | **Traces of Time in the Judge's Chair**
Lee Youkyoung

120 **V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2002–Present)

132 Recollection 2 | **From Function to Memory: Transformation and Restoration** Kim Kisoo

138 Recollection 3 | **Transferring History, Establishing the Present**
Park Chang-yuel & Lee Suyeong

152 List of Plates

158 Reference

인사말

1925년, 바다의 숨결이 닿는 부산의 한 켠에 붉은 벽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경남도청으로 출발한 이 건물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시 중앙청이 되었고, 산업화 시기 다시 경남도청을 거쳐, 민주화의 시간을 지나며 부산지방법원·검찰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대마다 쓰임을 달리했지만 혼란과 고통의 현장에서 삶의 희망을 지켜낸 조용한 증인으로 백 년을 서 있었습니다.

겹겹이 세월을 머금은 벽돌마다 이름 없는 이들의 발자취가 배어 있습니다. 작은 희망과 깊은 상처, 일상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도면과 사진, 복원 기록, 그리고 처음 공개되는 영상과 증언을 통해 그 기억을 다시 불러냅니다. 관청의 업무, 전쟁의 피란, 법정의 절차, 일상의 발걸음까지 모두가 이 건물이 품은 기억입니다.

건물은 시간을 견뎌왔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시간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기획전시 〈백년청사〉는 건물의 변화를 따라가며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흔적을 비춥니다. 오래된 공간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을 여는 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백 년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새롭게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가 열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공간을 함께 지켜온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시 준비 과정에서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국내외 여러 기관에도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별히 소중한 글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신동규, 배병욱 교수님, 이 건물과 관련된 기억을 진솔하게 들려주신 김기수 교수님, 경상남도 부산 도정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신 김길연·김종부·정웅·양해광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에 후원을 해주신 (주)유니크(UNICK) 안영구 대표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백 년을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올 백 년을 함께 열어가는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견뎌온 건물 속 살아 있는 기억과 마주하며, 여러분의 발걸음 또한 이 여정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장
이 승 혜

Preface

In 1925, a red brick building rose in a corner of Busan where the sea breeze still lingers. What began as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became the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Building during the Korean War, returned as the Provincial Office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later transformed into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Prosecution Service. Though its purpose shifted with each era, this building has stood for a century as a silent witness to chaos and hope.

Each brick carries the footprints of nameless individual, holding small hopes and deep wounds, the breath of everyday life. This exhibition resurrects those memories through blueprints, photographs, restoration records, and newly unveiled footage and testimonies. Administrative work, wartime refuge, courtroom proceedings, daily footsteps: all are voices this building holds within.

While the building endured time, the people within lived through it. The special exhibition, *If a Red Brick Speaks: The Centennial Chronicle*, traces the building's transformation while illuminating the lives it contained. An aged space becomes more than preservation—it serves as a mirror reflecting our present and a door opening to our future. Through this exhibition, we hope to embrace the weight of a hundred years and encounter anew the memories we must not forget.

We extend our deepest gratitude to the researchers, collaborators, and all those who helped preserve this space, and to the institutions that generously provided invaluable materials. Special thanks go to Professors Shin Donggyu and Bae Byeong-uk for sharing their writings, Professor Kim Ki-soo for his candid memories, and Kim Gilyeon, Kim Jongbu, Jeong Ung, and Yang Hae-gwang for recounting their experiences from the Provincial Office's time in Busan. We also thank UNICK CEO Ahn Young-gu for his generous support.

May this be a space where we reflect on a century of footsteps and open the next hundred years together. As you encounter the living memories within, we hope your own footsteps will join this journey.

November 2025
Director,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Seunghye Lee

그때와 지금, 하나의 풍경

A Single Scene, Across Time

같은 자리에 선 붉은 벽돌 건물과 풍경은 시대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는 과거의 기록 사진과 현재 모습을 나란히 놓아 한 공간이 지닌 시간의 깊이와 변화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남겨진 기억과 지금의 일상이 겹쳐지며, 결국 하나의 풍경으로 이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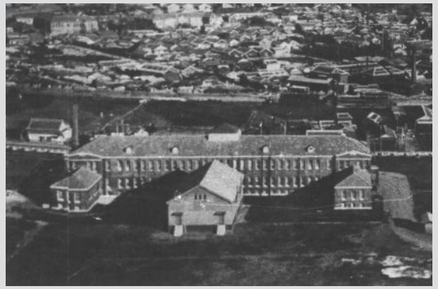
The red-brick building, standing in the same place, has taken on different faces with each passing era. Here, past photographs are placed alongside views of the present, allowing us to sense the depth of time and the transformations within a single space. As the memories held in old images meet the everyday scenes of today, they flow together into one continuous landscape.



1920년대 경상남도청 외관
Exterior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20s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외관
Exterior of the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Present



1925년 경상남도청 후면
Rear View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25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후면
Rear View of the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Present



1930년대 (부산)재판소 앞 역
Busan District Court Station, 1930s



현재 구덕로
Gudeok-ro, Present

1952년 임시 중앙청 정문 앞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the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Building, 1952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정문 앞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the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Present



백 년의 공간, 모두의 이야기

남승덕
동아대학교 학예연구과

붉은 벽돌 한 장에는 여러 시간이 스며 있습니다. 병원으로 계획되었으나 도청이 되었고, 전쟁 중에는 임시 중앙청으로, 이후 다시 도청과 법원·검찰청을 거쳐 오늘날 박물관으로 이어졌습니다. 백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건물은 단 한 번도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대마다 늘 사람들로 가득 찼고, 늘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7년 우리는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맞춰 정치사 중심으로 의미를 조명했다면, 그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 이번 '백년청사' 전시는 질문을 다르게 던집니다.

"1925년부터 2025년까지 백 년을 관통한 이 공간에서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백 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전시에서 건축물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과 공간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도 전시 해설이나 촬영 등 외부에서 오는 전화의 절반은 이 붉은 벽돌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백년청사' 전시는 이 건물이 지닌 백 년 역사를 시간순으로 차분히 펼쳐내면서, 건물을 거쳐가거나 현재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기억을 단순히 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시간 속에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1. 최초로 공개하는 희귀 자료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자료와 마주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문 자료, 누렇게 바랜 도면, 몇 초 단위 흑백 영상 등 낡고 사소해 보이는 이 기록들이 모이자, 비로소 건물이 간직한 숨은 서사가 선명해졌습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의 첫 번째는 **'붉은 벽돌 건물이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를 따라가면, 1921년 착공에서 1923년 준공까지의 건축 여정과 함께, 준공 후 1년 가까이 비어 있던 병원 건물이 어떻게 경남도청으로 바뀌었는지가 한 편의 이야기처럼 이어집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 건물의 현재 도면과 1922년 8월에 그려진 전주자혜의원 도면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평면 구조는 물론, 복도 배치, 창문의 간격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설계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궁이지만, 일제가 식민지 조선 전역에 표준화된 공공건축 모델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37년부터 1940년으로 이어지는 **'경상남도 청사 평면도'**입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1930년대 지도 및 도면 자료와 2002년 건물 해체 수리 공사 중 발견된 상량문 등을 근거로 건물이 '山'자에서 '日'자 형태로 확장되었을 것이라 추정해 왔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평면도는 그 추정을 넘어 실제 증축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층 왼쪽 날개부터 시작해 후면부까지, 어느 시기에 어떤 공간이 더해졌는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아울러 공간 배치가 보여주는 행정 질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도지사실은 어디에 있었는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부서는 어디였는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당시 어떤 용도였는가? 이 평면도는 단순한 건축 자료가 아닙니다. 일제 말기 식민지 권력이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통제했는지를 알려주는 '권력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52년 5월 24일, 이 건물 국무회의실에서 체결된 **'한미경제조정협정(마이어 협정) 영상'**입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협조로 확보한 이 귀한 영상은 리버티 뉴스(Liberty News)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한국과 미국 대표들이 서류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눕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약 한 달 넘게 걸린 기나긴 협상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 중 한국 경제의 운명이 바로 이 붉은 벽돌 건물 안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깊이 새겨볼 만합니다. 도록에는 유엔 관계자들의 사진과 각국 외교관들이 이 건물을 드나들던 장면들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래야만 임시수도 부산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단지 피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외교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재건되며 전후 질서가 구상되던 살아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의 중심에는 여기 붉은 벽돌 건물이 있었습니다.

2. 학술과 이야기의 결합

전시는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감정을 움직여야 합니다. 도록에서는 건물의 쓰임새에 따라 칼럼 4편과 구술 3편을 실었습니다. 칼럼이 학술적 깊이를 제공한다면, 구술은 그 틈 안에 살을 채워 넣습니다. 공식 기록과 개인 기억이 서로 얽혀 하나의 서사를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전시 '백년청사'를 통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방식입니다.

배병욱 연구원의 **「경남도청 이전 이야기」**는 1925년 진주에서 부산으로 도청이 이전되던 순간을 추적합니다. 도청 하나가 옮겨가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재배치이자 지역의 운명까지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신동규 교수의 **「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팸플릿 자료에 대해서」**는 시각 자료의 정치성을 파헤칩니다. 이미지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도시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지우는가 등 그 선택 자체가 부산을 '대륙 침략의 관문'으로 여기던 일제 식민 권력의 시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김수경·남승덕 연구원의 **「임시 중앙청: 전쟁과 일상의 교차」**는 전시 서사의 전환점입니다. 당시 신문 자료를 분석하며 '임시수도'라는 거대 서사를 '임시 중앙청' 속 사람 사는 이야기로 바꾸었습니다. 임시수도 부산은 늘 거대 서사로 기억되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지낸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장관실에서 양탄자가 도난당한 해프닝, 화려한 옷차림으로 출근하다 단속 당한 국회의원의 일화가 그 예입니다. 이유경 연구원의 **「법관 의자에 깃든 시간의 흔적」**은 물질문화 연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의자 형태와 대법원 내규에 있는 법원 휘장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여 박물관에 기증된 법관 의자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전시 준비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건물과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70-80년대 경남도청에서 근무했던 여러 직원의 구술은 공식 기록이 놓친 일상을 복원합니다. "도지사가 어디에 전화했는지는 비밀"이라는 김길연 교환수의 기억, "주머니에 늘 수첩이 두둑했다"던 김종부 비서관의 고백이 그 시절을 가늠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 건물을 박물관으로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2002년 동아대학교가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김기수

교수는 난제와 마주했습니다. “이 건물의 여러 차례 변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특정 시기의 가치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붉은 벽돌 건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복원 공사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구덕캠퍼스에서 박물관 유물을 옮기던 박창열·이수영 연구원은 또 다른 기억을 꺼냅니다. “6개월 넘게 유물을 하나하나 포장하던 손길”, “박물관 앞 소나무 자리에 처음엔 석등이 있었다는 웃음 섞인 고백”, 그리고 “그때 옮겨온 유물을 지금도 다루고 있다”는 말은 붉은 벽돌 건물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진행형의 장소임을 일깨웁니다.

3. 백 년을 넘어, 다음 백 년으로

전시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본질적입니다. “이 공간은 누구의 것인가?” 식민 권력의 것이었던 이 붉은 벽돌 건물은 전쟁을 견뎌낸 국가의 것이 되었고,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장소를 거쳐 이제 대학과 지역을 상징하는 ‘모두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라는 말은 자칫 공허한 구호가 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공공성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천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은 바로 그 증명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전시는 ‘기억의 종결’이 아니라 **‘참여의 시작’**을 제안합니다. 건물의 현재 용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공간은 과거가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자원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있는 유산으로 기능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5기 동아뮤즈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들이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영상 ‘같은 공간, 다른 시간, 다른 기억, 백년청사’는 “당신에게 백년청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러 세대의 목소리를 교차 편집합니다. 개인 기억이 집단 기억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경남도청 시절 증산왕 대관식을 재해석한 만화 ‘쌀비야~ 풍년을 내려줘!’는 유쾌한 상상력으로 과거를 현재로 끌어옵니다. 부산정치파동을 알린 삐라, 캐릭터 컬러링북 ‘백돌이와 함께해’, 주요 재판을 다룬 3단 부채 굿즈, 건물의 변천을 알기 쉽게 풀어낸 패널까지, 이 모든 협업이 ‘백년청사’ 전시를 입체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아울러 백년청사를 모티브로 한 굿즈 전시는 역사적 공간을 일상의 오브제로 재해석하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줍니다.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는 박물관의 미래 지향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국보와 보물 등 소장품과 첨단융합기술을 결합하여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는 ‘메타뮤지엄’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유산의 접근성을 확장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자기주도형 필드 인턴십을 운영하는 ‘글로벌 아웃리치 플랫폼’도 박물관이 지역에서 세계로 도약하는 데 기여합니다.

백 년 동안 이 붉은 벽돌 건물은 참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관료들, 전쟁통에 민원을 요구하는 피난민들, 법복을 입은 판사들, 그리고 오늘 캠퍼스를 거니는 학생들까지 이 건물은 수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스스로를 재정의했습니다. 박물관이 수집한 것은 자료만이 아닙니다. 복도를 지나던 발걸음 소리, 회의실에서 오간 속삭임, 법정에서 울린 판결문,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는 관람객 시선까지 모든 것이 이 건물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결국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변화 속에서도 이어지는 것, 바로 사람과 공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붉은 벽돌이 들려주는 백 년의 이야기
소요 시간: 6분
붉은 벽돌 건물이 걸어온 백 년의 여정을 영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choes in Brick and Time: A Century of Stories

Nam Seungduk
Curator,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Each red brick holds layers of time. Conceived as a hospital, it became a provincial office. During the Korean war, it served as the temporary central government building. Later, it housed courts and prosecution service. Today, it stands as a museum. For one hundred years, this building has never been empty. Each era filled it with people, each generation assigned it new purpose.
In 2017, we presented an exhibition titled ‘*The Government Headquarter of the Temporary Capital in Busan*’, focusing on political history during the extreme conditions of the Korean War. Eight years later, our ‘*If a Red Brick Speaks: The Centennial Chronicle*’ exhibition asks a different question: *across one hundred years, from 1925 to 2025, what are the real stories this space holds?*
Preparing this exhibition, we had to consider the essence of architecture itself. ‘What is a building?’ It is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space. Even today, half the calls we receive are from people wanting to hear about this red-brick building. Therefore, the exhibition unfolds the building’s hundred-year history chronologically while capturing the voices of those who passed through or currently inhabit this space. This is not merely retrospection—it is a journey seeking direction for Dong-A University Museum moving forward.

1. Rare Materials Revealed for the First Time

Preparing this exhibition brought us face to face with materials we had never properly examined: Japanese colonial-era newspapers, yellowed blueprints, brief black-and-white film clips. These seemingly minor records, when gathered together, revealed the building’s hidden narratives.

First is the story of how this red-brick building found its owner. Following colonial-era newspaper articles, we trace the construction journey from groundbreaking in 1921 to completion in 1923, and how a hospital building that stood empty for nearly a year became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Remarkably, when we compared current blueprints with the August 1922 plans for Jeonju Charity Hospital, the floor plans, corridor arrangements, and window spacing were strikingly similar. While the architect remains unknown, this confirms how systematically colonial authorities applied standardized public architecture models across Korea.

Second are the '*Gyeongsangnam-do Office Floor Plans*' from 1937 to 1940. Some researchers had long speculated, based on 1930s materials and a ridge beam inscription discovered during 2002 restoration work, that the building expanded from a '山' shape to a '日' shape. These newly revealed floor plans vividly document the actual expansion process, showing exactly when and which spaces were added. The spatial arrangement reveals administrative hierarchy. This floor plan is not merely architectural documentation—it is a 'power map' showing how colonial authority organized and controlled space.

Third is footage of the '*Korea-U.S. Economic Coordination Agreement (Meyer Agreement)*' signed in this building's cabinet room on May 24, 1952. This rare footage comes from Liberty News. The black-and-white film shows Korean and American representatives signing documents and shaking hands, a brief moment concluding negotiations that took over a month. That Korea's economic fate during wartime was decided within these red-brick walls is noteworthy. We included photographs of UN officials and foreign diplomats entering this building because only then does the true meaning of provisional capital Busan emerge.

2. Combining Scholarship and Story

Exhibitions must convey knowledge while moving hearts. Our catalog includes four scholarly essays and three oral histories corresponding to the building's different uses. If essays provide scholarly depth, oral histories fill the spaces between with lived experience. Official records and personal memories interweave into narrative. This is how we tell the '*the Red-Brick Building*' story.

Most carefully developed were stories from people who spent time in this building. Oral histories from 1970s-80s provincial office staff restore daily life that official records missed. Call operator Kim Gil-yeon's memory that "where the governor called was secret", secretary Kim Jong-bu's confession that "pockets were always thick with notebooks." These help us gauge that era.

We also included stories of those who transformed this building into a museum. When Dong-A University acquired it in 2002, Professor Kim Ki-soo faced a dilemma: *how to understand and preserve a building that had transformed so many times?* His answer was clear. Preserve not just one period's value but understand the entire journey this red-brick building has traveled. The museum staffs recall moving artifacts from Gudeok Campus: "Six months packing artifacts one by one,"

"the stone lanturn that first stood where the pine tree is now," and "we still handle those artifacts today", reminding us this building is not frozen in the past but a living and present space.

3. Beyond One Century, Toward the Next

The exhibition's final space is exactly that proof. Here, the exhibition proposes not memory's conclusion but participation's beginning. Rather than simply introducing the building's current use, this space shows how the past becomes present and future resource, how it functions as living heritage.

Content created by Dong-A Muse students provides concrete examples. The video '*Same Space, Different Time, Different Memory, the Red-Brick Building*' asks "What does this red-brick building mean to you?" cross-editing multiple generations' voices, capturing moments when individual memory transforms into collective memory. The cartoon '*Rice Rain~ Bring Us a Bountiful Year!*' reimagines the 1960s provincial office Crop King coronation with playful imagination. Leaflets announcing Busan's political turmoil, the character coloring book, three-panel fan merchandise covering major trials, easy-to-understand panels explaining the building's transformations—all these collaborations completed the exhibition.

The '*Busan Heritage Cultural Content Branding*' project, pa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Glocal University 30 initiative, further clarifies the museum's future orientation. '*Meta-Museum*', which combines national treasure collections with advanced fusion technology to present high-quality digital content, expands access beyond physical space limitations. '*Global Outreach Platform*', operating life-cycle culture programs and selfdirected internships, helps the museum leap from local to global.

Over a century, this red-brick building has existed with many hands — colonial administrators, wartime refugees, judges, and now students. The museum collects not only artifacts but footsteps in corridors, murmurs in offices, courtroom echoes, and your gaze today. The building's greatest value lies not in stasis but in ongoing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space. As the past century was, so the next century will be filled with new footsteps and new gazes.

Video Clip: If a Red Brick Speaks
Running Time: 7 minutes and 38 seconds
Experience a century's journey through the story of this red-brick building.

백 년의 시간, 청사의 발자취

The Centennial Chronicle

1923



부산자혜병원 (미사용)
Busan Charity Hospital (Unrealized)

1921년 말 착공, 1923년 12월 중순 완공
Planned in late 1921,
completed mid-December 1923

1925



일제강점기 경상남도청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Japanese Colonial Period

1925년 4월 1일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
Relocated from Jinju to Busan, April 1, 1925

1945



미군정기 경상남도청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U.S. Military Government

1945년 9월 19일~1948년 8월 15일
September 19, 1945~August 15, 1948

* 시기 구분의 편의를 위해 경상남도청 앞에는
시기를 병기하였습니다.
Periods are indicated alongside the titl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for reference.

1950



임시 중앙청 (경상남도청과 혼용)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Office
(Shared with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총 1,025일]

제1차: 1950년 8월 18일~10월 26일* (70일)
1st Period: August 18~October 26, 1950 [70 days]

제2차: 1951년 1월 3일~1953년 8월 14일* (955일)
2nd Period: January 3, 1951~August 14, 1953 [955 days]

* 환도 행사 개최 이전일 기준
* Dated before the ceremony marking the government's return to Seoul

1983



산업화시기 경상남도청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Era of Industrialization

~1983년 6월 30일
Until June 30, 1983

2001



부산지방법원·검찰청
Busan District Court & Prosecution Service

부산지방법원: 1984년 11월 1일~2001년 9월 29일*
Busan District Court:
November 1, 1984~September 29, 2001*

부산지방검찰청: 1984년 10월 26일~2001년 9월 27일
Busan District Prosecution Service: October 26,
1984~September 27, 2001

* 최종 부서의 이전일 기준
* Based on the final department relocation date

2002



동아대학교 매입과 국가등록유산 등록
Acquisition by Dong-A University &
National Heritage Registration

동아대학교 매입: 2002년 3월
Acquired by Dong-A University: March 2002

국가등록유산(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록: 2002년 9월 13일
Registered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Government Building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September 13, 2002

2004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실측조사와 해체수리
Architectural Survey & Restoration

실측조사: 2002년 4월 12일~2006년 8월 31일 (총 7차 진행)
Survey: April 12, 2002~August 31, 2006 (7 sessions)

해체수리: 2004년 12월~2008년 10월
Restoration: December 2004~October 2008

2009



동아대학교 박물관 이전 개관
The Relocation and Opening of
Dong-A University Museum

2009년 5월 19일
May 19, 2009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현재
Present

붉은 벽돌에 새겨진 첫 이름

(경상남도청, 1925–1950)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in the Modern Era

(1925–1950)

1923년 12월 중순의 어느 날, 부산 부민정(현 부민동) 부산지방법원 청사 옆으로 붉은 벽돌 건물이 차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공 뒤 한동안 비어 있던 이 건물은 192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방침에 따라 경상남도 청사가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도청사는 식민지 지배 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거점이었으며, 당시 사진 그림엽서 속에서 근대 도시의 권위를 과시하는 상징성 있는 건물로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증축된 도면은 점점 커지는 행정 기능과 조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광복 이후에도 건물은 미군정기 경남도청으로 사용되며, 정부 수립 전후의 혼란스러운 전환기에도 지역 행정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붉은 벽돌 청사는 격변의 세월을 지나며 우리의 굴곡진 역사를 조용히 품어온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In December 1923, a grand red-brick building was completed beside the Busan District Court in Bumin-jeong district. Vacant for over a year, it opened on April 1, 1925, as the new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relocated from Jinju. Under the Japanese rule, it served as a key colonial administration site and appeared on postcards as a symbol of modern authority. Architectural drawings record repeated expansions, reflecting the growth of state power.

After liberation, the building housed the provincial office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tinuing as an administrative center during a turbulent transition. Through these upheavals, the red-brick structure has stood as a witness to Korea's modern history.

부산자혜의원

Busan Charity Hospital

부산자혜의원은 1921년에 발표한 조선총독부의 의료와 위생 정책 아래, 부산 지역의 보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립된 공공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의 필요와 행정적 변화 속에서 의도와 달리 개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결국 경상남도 청사라는 또 다른 권력의 공간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The Busan Charity Hospital was conceived under the Governor-General of Korea's 1921 policy to expand medical and sanitary facilities, intended to serve the growing public health needs of the city. Yet the hospital never opened its doors. Shaped instead by the priorities of colonial administration, the newly built structure was repurposed as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transforming a space envisioned for care into one of political authority.

병원으로 지어져,
도청으로 쓰이다.

1921년 5월 부산자혜의원 신설 계획[1]

조선총독부, 의료 및 위생시설 확충 정책 발표

6개년 계획으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3개 도 단위의 자혜의원 신설 추진

1921년 12월 착공 실시

부산부, 경비 20만원(현재 약 440억원)을 투입하여 부민정富民町 2정목과 중도정中島町* 2정목에 신축 공사 실시

자혜의원 완공 시 남포동에 있던 부립병원을 매각하여 설립 비용을 충당하려고 계획

* 중도정中島町: 1914년에 붙여진 지명으로 현재는 부민동에 편입되었음

1923년 12월 중순 신축 공사 준공[2]

대지 870평, 연건평 825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병실 17실, 환자 78명(1층 30명, 2층 48명) 수용 가능

1924년 1월 운영 계획 수립[3]

4월 자혜의원 개원 준비, 운영비 예산 3만 2천원(현재 약 70억원) 계상

국비 15만원(현재 약 33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강을 계획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2~3년 연기

1924년 6월 자혜의원 기부, 만장일치 가결[4]

부산부, 운영 재정 부담으로 신축 의원을 조선총독부로 기부 결정

1924년 8월 자혜의원 설립 무산 위기

자혜의원 개원 행사를 위해 부산역에서 대신동으로 이어지는 전차로 공사 실시[5]

총독부 관제官制 공포 지연됨에 따라 부산 지역민들은 자혜의원 개원 우려 제기[6]

1924년 9~10월 고위관리자 자혜의원 운영 강조[7]

9월, 부산부윤 고니시 교스케小西恭介

"20만원이 투입된 건물을 방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운영 실현"

10월, 조선총독부 참사관 야나베 에이사부로矢鍋永三郎

"부산자혜의원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내년도에 실현될 것이라 생각"

1924년 12월 자혜의원 건물, 경상남도 청사로 전환

12월 8일, 총독부령 제76호에 따라 경상남도 청사를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12월 12일, 부산부협의회에서 자혜의원 신축 건물을 긴급히 임시 도청사로 지정

1 「자혜의원 증설」, 《동아일보》, 1921. 5. 24.
2 「자혜병원 이관 결정-준비는 착실히 진행 중」, 《조선시보》, 1924. 1. 9.
3 「자혜의원 신설」, 《조선일보》, 1924. 1. 13.
4 「부산병원 기부 문제 만장일치 가결」, 《경성일보》, 1924. 6. 13.
5 「전차공사 착수」, 《조선일보》, 1924. 8. 8.
6 「부산병원 설립 무산 위기?」, 《경성일보》, 1924. 8. 23.
7 「자혜병원 처리 문제」, 《조선시보》, 1924. 9. 16.
「부산자혜의원 내년도 실현」, 《조선시보》, 1924. 10. 19.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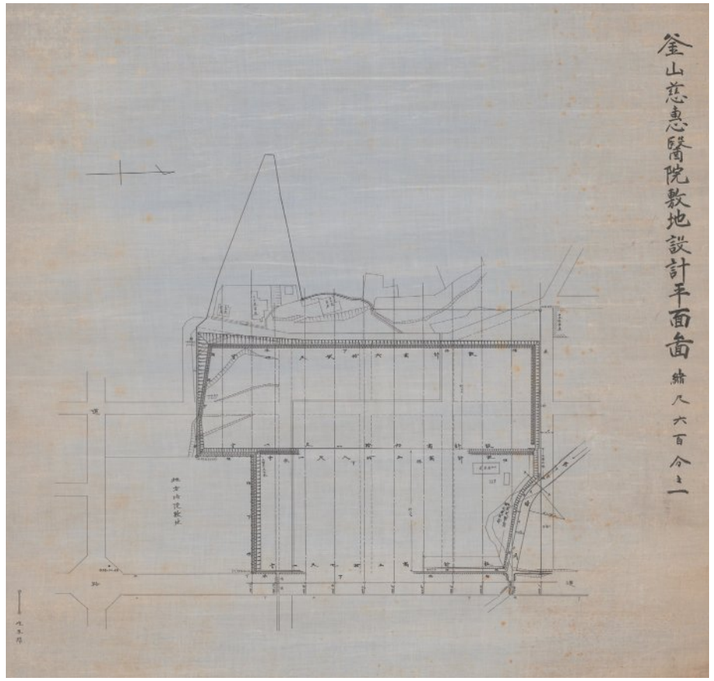
부산자혜의원 부지 설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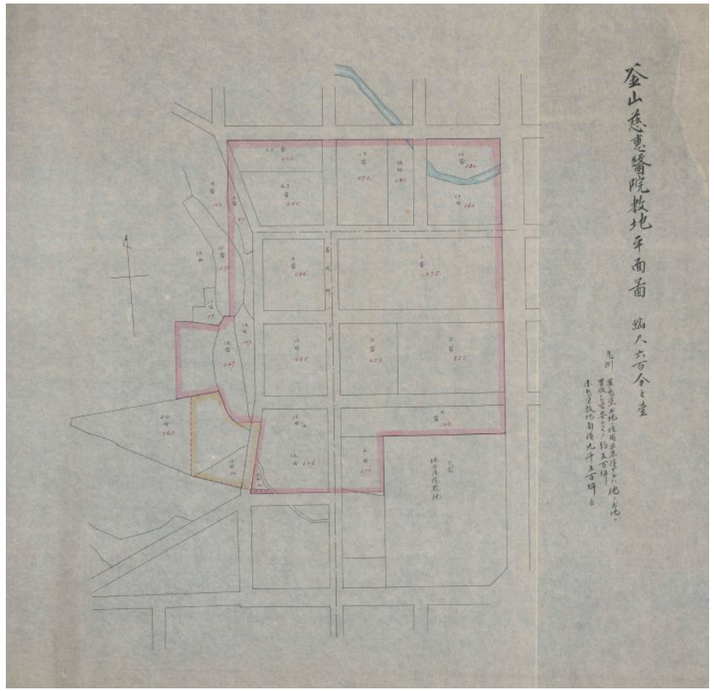
Architectural Drawing of the Busan Charity Hospital

1920년대 1920s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부산자혜의원 부지는 1912년에 세워진 부산지방법원 북쪽의 넓은 논밭 지대로 정했습니다. 부민정 뒤편에는 아미산峨眉山 묘지와 화장장이 가까이 있어서 자혜의원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도면에는 오른쪽 하단에 흐르던 보수천 지류를 매립하려는 계획도 함께 확인됩니다.

The site for the Busan Charity Hospital was chosen on farmland north of the Busan District Court, built in 1912. Behind Bumin-jeong, the proximity of the Mt. Ami cemetery and crematorium appears to have influenced this decision. This plan also indicates a proposal to reclaim the stream at the lower right that flowed into the Bosucheon stream.





Ⅰ 붉은 벽돌에 새겨진 첫 이름 (경상남도청, 1925-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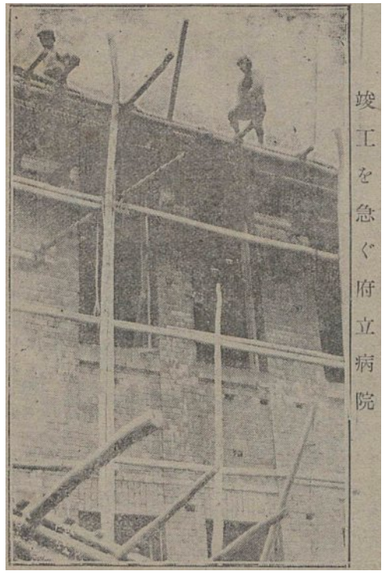
002

준공을 서두르는 부립병원

Busan Charity Hospital, Rushed to Completion

1923년 7월 26일 | 3면
조선시보

July 26, 1923 | Page 3
Chosun Shibo



003

상량식

Topping-out Ceremony

1923년 8월 2일 | 2면
조선시보

August 2, 1923 | Page 2
Chosun Shibo



1923년 8월 1일 오전 10시, 1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던 부립병원에서 마침내 지붕에 마룻대를 얹는 상량식이 열렸습니다. 사진은 상량식에 앞서 진행된 수불식修祓式*의 모습입니다.

On the morning of August 1, 1923, a topping-out ceremony was held at the Busan Charity Hospital under construction in the Bumin-jeong district. The photo shows the *Shubatsu-shiki*, purification ritual, conducted prior to the ceremony.

* 수불식修祓式: 상량식에 앞서 부정을 씻고 정화하는 의례로, 신문 기사에는 '修抜式'으로 표기되었으나 오기로 보입니다.

004

부산자혜의원

Busan Charity Hospital

1924년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24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부산자혜의원 신축을 기념해 제작된 사진그림엽서는 아직 주변이 정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준공 직후 바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1923년 9월 일본 간토대지진 이후 조선총독부가 긴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예산과 관제가 마련되지 않아, 거의 1년 가까이 빈 건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듬해 9~10월 무렵 부산부윤과 총독부 참사관이 차례로 나서 개원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1924년 12월 8일 공포된 조선총독부령 제76호에 따라 이 건물은 돌연 경상남도 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A commemorative postcard of the new Busan Charity Hospital shows the building still surrounded by rough, unfinished grounds. Yet the hospital never opened its doors. After the Great Kantō Earthquake in September 1923, austerity measures left the structure without budget or staff, standing empty for nearly a year. On December 8 1924, with the sudden decree of Government-General Ordinance No. 76, the building's fate shifted: it was redesignated as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부산자혜의원은 누가 지었을까요?

부산자혜의원은 세부 평면도가 남아 있지 않아 건축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09년부터 1923년 사이에 지어진 자혜의원 도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통 도면에 기초한 표준 설계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1922년 8월에 계획된 전주자혜의원 도면은 부산과 특히 닮았습니다. 'ㄴ'자 평면, 중앙 첨탑, 아치형 입구, 돌림띠 장식, 일정한 간격의 직사각형 창문, 중앙 장식 무늬까지 거의 같습니다. 내부도 1층 중앙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진료 공간을 두고, 날개부를 단일 복도로 구성한 점이 부산과 비슷합니다. 이외에도 광주·수원·해주자혜의원 역시 구성이 서로 비슷합니다. 이는 기존 도면을 반복해서 참고하거나, 부지 여건에 맞게 변형해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부산자혜의원은 특정 건축가의 독창적인 설계가 아닌,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표준화된 공공건축 체계 속에서 지어진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Who built the Busan Charity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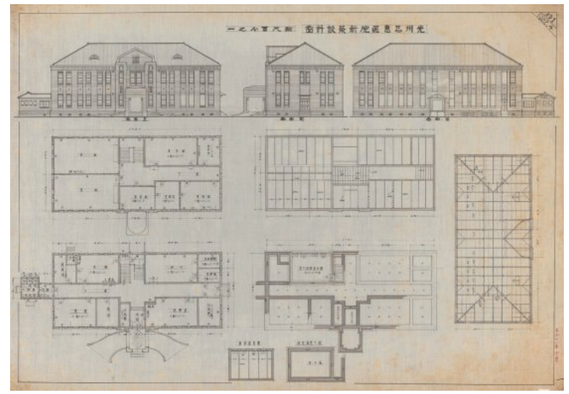
The original floor plans of the Busan Charity Hospital have not survived, so the architect remains unknown. However, plans from other charity hospitals built between 1909 and 1923 reveal a standardized design approach. The 1922 Jeonju Charity Hospital, for instance, bears a striking resemblance to Busan: both feature a "ㄴ"-shaped layout with a central tower, arched entrance, decorative belt courses, and evenly spaced rectangular windows. The interior layouts are similarly aligned, with a central corridor flanked by treatment rooms and single-corridor side wings. The hospitals in Suwon, Haeju, and Gwangju show comparable designs as well, suggesting that existing plans were routinely reused and adapted to fit local site conditions. In short, the Busan Charity Hospital was not the product of an individual architect's vision, but rather part of a standardized public building program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005

광주자혜의원 신축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Gwangju Charity Hospital

1922년 4월
국가기록원

April 1922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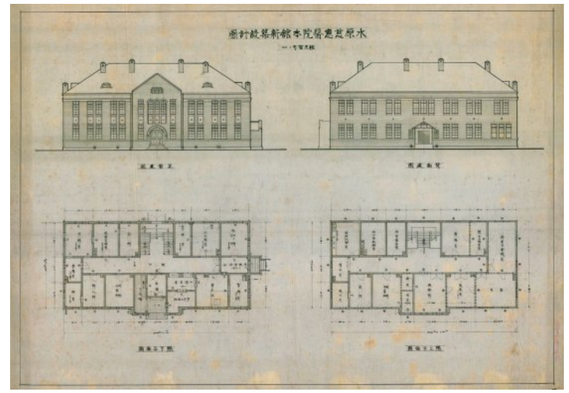


006

수원자혜의원 본관 신축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Suwon Charity Hospital

1923년 5월
국가기록원

May 1923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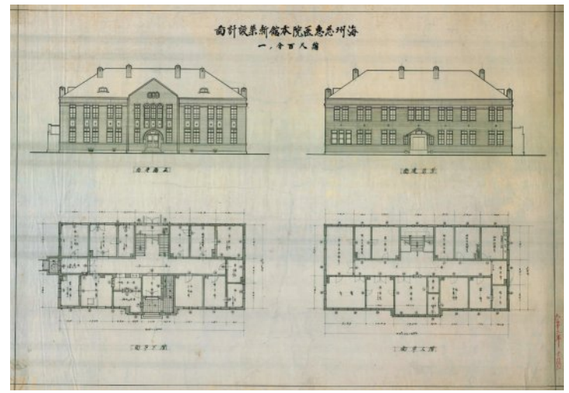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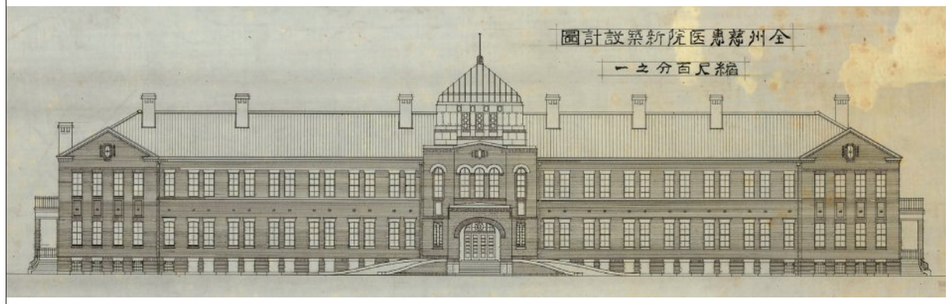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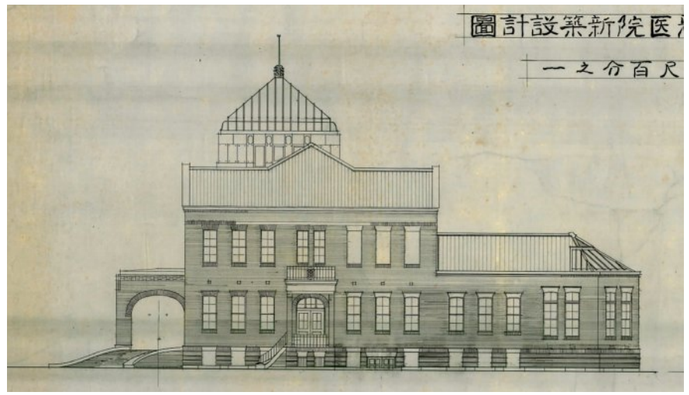
해주자혜의원 본관 신축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Haeju Charity Hospital

1923년 10월
국가기록원

October 1923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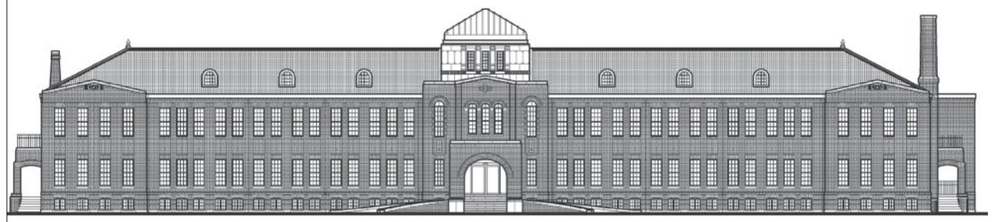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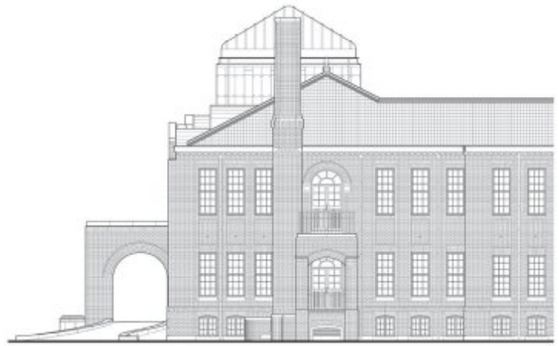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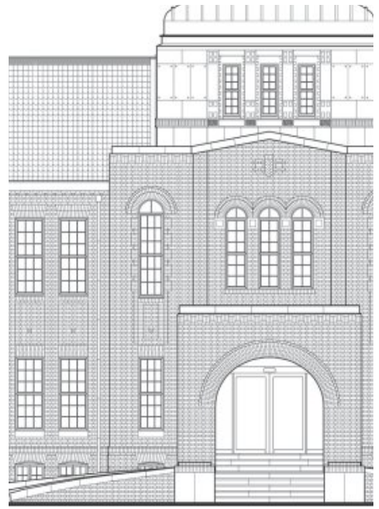
전주자혜의원 신축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Jeonju Charity Hospital

1922년 8월 August 1922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Dong-A University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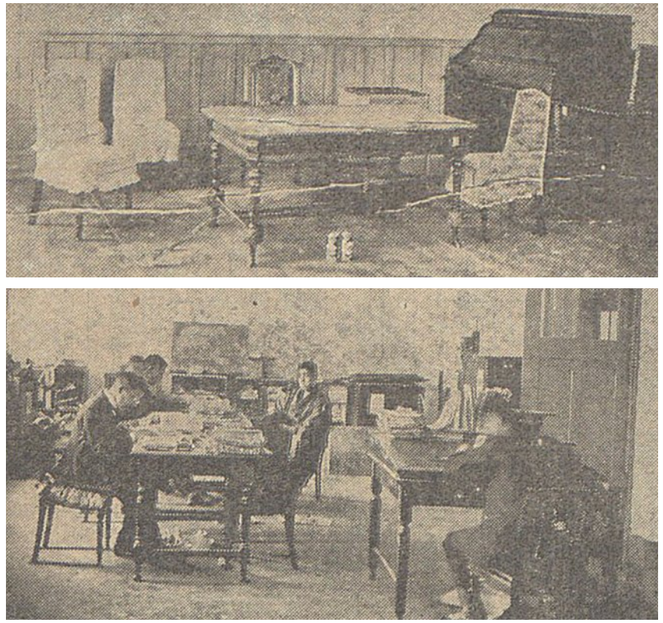
경상남도 청사의 부산 이전

The Provincial Office Moves to Busan

1924년 12월 8일, 조선총독부는 경상남도 청사를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두 지역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부산부는 임시협의회에서 자혜의원 신축 건물을 총독부에 기부하고, 도청 임시 청사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혜의원 개원을 기다리던 당시 부산부민들은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도청 이전이 지역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여겨 큰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진주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장 철시, 도청 습격, 심지어 남강교가 파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를 회유하고자 총독부는 남강교를 재건하고 사범학교 설립을 약속하며 격한 민심을 일방적으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On December 8, 1924,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nounced the relocation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from Jinju to Busan. The Busan council soon offered the newly completed Busan Charity Hospital as a temporary office. For Busan citizens, who had anticipated the hospital's opening, the change was disappointing yet also seen as a step toward the city's growth. In Jinju, however, the reaction was far more intense. Protests spread throughout December 1924, with markets closed, the provincial office attacked, and even the Namgang Bridge destroyed. To ease tensions, the colonial authorities promised to rebuild the bridge and establish a teacher-training school.





009

이전 직후의 도청 사무실

Provincial Office of Gyeongsangnam-do, Just After Relocation

1925년 3월 26일 | 7면
부산일보

March 26, 1925 | Page 7
Busan Ilbo

도청 공식 이청식에 앞서 임시로 마련된 경상남도청 사무실 모습입니다. 위쪽은 도지사실, 아래쪽은 3월 26일 가장 먼저 업무를 시작한 토목과 직원들입니다.

This photograph shows the temporary offices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set up just before the official relocation. On the top is the governor's office, and on the bottom are staff from the Civil Engineering Division, the first department to begin work on March 26.

칼럼 1

경남도청 이전 이야기

The Relocation of the Provincial Office

배병욱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전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1876년 개항 이후 부산은 일본인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크고 작은 선박이 드나드는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자 '동아의 관문'으로 불리며 서울과 곧바로 연결되는 한반도의 핵심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25년 경상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온 일은 근대 부산의 발전을 결정지은 또 하나의 계기였다.

일제강점기 도청 이전은 경남만의 사례가 아니었다. 경기도청(1910, 수원→서울), 함경북도청(1920, 경성→나남), 평안북도청(1923, 의주→신의주), 충청남도청(1932, 공주→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일제에게 도청 이전의 본질은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 편의였다. 그러나 지역마다 사정과 반발은 달랐고, 특히 경남은 '전통 도시 진주'와 '일제 침략의 교두보 부산'이라는 상징적 대립이 겹치면서 저항이 격렬했다.

진주는 1,3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고도古都로, 통일신라 초기 신문왕대 9주 5소경 중 9주의 하나인 '청주淸州'로 된 이래 많은 속군과 속현을 거느려 온 큰 고을이었고, 1896년 전국이 1부 13도제로 개편될 때 경상남도 관찰부 소재지가 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명실 공히 경남의 수부首府 도시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개항 이후 부산포가 빠르게 성장하고,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진주는 주요 교통망에서 벗어난 도시로 밀려났다. 이 때문에 일본인 관료와 부산 유지들은 진주를 도청 소재지로 부적합하게 여겼고, 1900년대 초부터 이전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결국 1924년 12월 6일 밤, 조선총독부의 최종 결정에 이어, 12월 8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무려 15년 가까이 풍설로만 떠돌던 계획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반발을 피하려 신축 중인 건물을 '도립 자혜병원'이라 속이며 공사를 진행했지만, 발표와 동시에 진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터져 나왔다. 12월 8일 '도청이전방지동맹회'가 결성되었고, 곧바로 대규모 시위와 진정 운동이 이어졌다. 이튿날 진정위원이 서울로 출발하였으나, 총독부를 상대로 하여 진정으로는 성과를 볼 수 없었다. 3천여 명이 모여 도지사 관사로 몰려갔고, 세금 거부, 시장 철시, 동맹 휴학까지 결의하며 도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다.

저항은 진주를 비롯하여 마산, 창원, 통영, 사천, 함안, 의령, 창녕, 합천, 산청, 거창, 함양, 하동, 남해 등 인근 1부 14군으로 확산되었다. 반면 이전을 지지한 지역은 부산, 울산, 양산, 동래, 김해, 밀양 등 1부 5군에 불과했다. 당시 일본인조차 일부는 본국까지 건너가 반대 운동을 벌였고, 진주번영회장이던 이시이 코요石井高曉는 끝내 할복으로 뜻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청 이전이 기정사실이 되자 운동은 점차 분열했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조선인 사회도 힘을 잃었다. 대신 총독부는 사립 일신고등보통학교 공립 변경, 사립 여자고등보통학교 신설, 남강교 재건과 같은 '진주부흥책'을 내세우며 민심을 달래는 데 그쳤다.

반대로 부산의 분위기는 연일 축제 분위기였다. 1925년 3월 4일, 도청 이전을 앞두고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부산을 방문해 청사를 둘러보고 현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후 "앞으로 부산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사진 1). 진주에서 마산까지는 육로로, 마산에서 부산까지는 기차로 짐을 옮기는 번거로운 과정이었다(사진 2). 3월 15일 첫 이삿짐을 옮기기 시작하여, 24일 대략 이전이 마무리되었고, 이튿날 25일에는 경남지사 등이 부산에 도착했다(사진 3, 4). 이때 고니시 쿄스케小西恭介 부산부윤, 오이케 추스케大池忠助 부산경상남도청이전협찬회장 등은 삼랑진까지 가서 이들을 맞이했다. 오후 6시 50분 지사 일행을 태운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하자 불꽃 5발을 쏘아 올려 큰 환영을 하였고, 부윤과 협찬회장, 세관장 등은 지사 일행을 철도호텔로 초대하여 환영 만찬을 벌였다. 이 만찬에는 조선인 기생까지 총동원하여 여흥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보다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1925년 3월 25일자 『부산일보』 지면에 소개된 진주에서의 전송과 부산 도착 광경을 짧게 인용해 본다.



사진 1 경남도청 앞의 사이토 총독 일행(부산일보, 1925년 3월 5일자 7면)



사진 2 진주를 출발하는 도청 직원과 배웅하는 사람들의 모습(부산일보, 1925년 3월 26일자 7면)





사진 3 도청으로 속속 도착하는 이삿짐들과 부산역에 세워진 도청이전 관련 안내소 모습(부산일보, 1925년 3월 19일자 7면)
사진 4 진주에서 도착한 도청원과 마중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찬 3월 23일 부산역전의 전경(부산일보, 1925년 3월 25일자 7면)

어진영을 봉대하고 지사 이하 출발

도청 이전 최후의 날인 24일은 이른 아침부터 자동차 왕래가 빈번하였고, 시민은 강변의 진주역 앞까지 전송하였다. 와다 준和田純 지사는 어진영(일왕의 초상)을 봉대하고 경찰부원의 호위를 받으며 출발하였는데, 시민은 엄숙하게 봉송하였다. 이렇게 24일은 지사 이하 각 부장, 과장, 간부의 출발이 있었고, 또 최후의 날이기에 다수의 전송인이 있어 역 앞은 일시 대혼잡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도청 이전도 드디어 종료되었다.

동경하던 부산으로, 두근대는 가슴을 억누르며 제1보를 내딛다

경남의 중앙, 깊은 산골 진주의 오랜 보금자리에 대한 그리움을 뒤로 하고 동경하던 부산으로 길을 나선 경남도청의 세무, 재무, 산업, 토목, 지방, 보안 등 각과 도청원 및 그 가족 약 200여 명은 이날(24일) 오후 6시 밝은 등이 빛나는 부산역에 내렸다. 그 찰나 일행의 눈앞에는 흡사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과 같았고, '부산'에서의 제1보를 힘차게 내딛었다.

한편, 부산역 앞 광장에서는 아침부터 부산부의 경찰, 애국부인회원 등이 텐트를 설치해 놓고 이들 다수의 이주민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일행이 역 개찰구에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자, '대신동·중도정 부영주택 방면 안내소', '일반 민가 주택 방면 안내소'라고 적힌 입간판을 두드리고 부르며 안내하는 모습이 완전히 전장과 같았다.

1925년 3월 26일, 경남도청은 아직 세부 장식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업무를 시작했다. 부서별 공간은 마련되었으나 책상과 의자가 부족해 직원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지사 가족 또한 관사가 완공되지 않아 초장정 2정목에 있는 인근 민가에 임시로 머물러야 했다. 급작스럽게 추진된 이전의 여파였다. 다음 날 와다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회의실이 없어 불편하다며 약 1만 엔의 경비로 75평 규모의 목조 단층 건물을 지어 회의실로 쓰겠다고 밝혔다.* 실제 회의실은 그해 12월에 완공되었다.

이렇듯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4월 1일 신축 경남도청에서 정식 업무가 시작되었고, 17일 오전에는 6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청식이 열렸다. 오늘날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건물이 바로 그 도청 신청사였다.

* 『釜山日報』, 1925. 3. 27., 「お茶も無いがと知事のニコニ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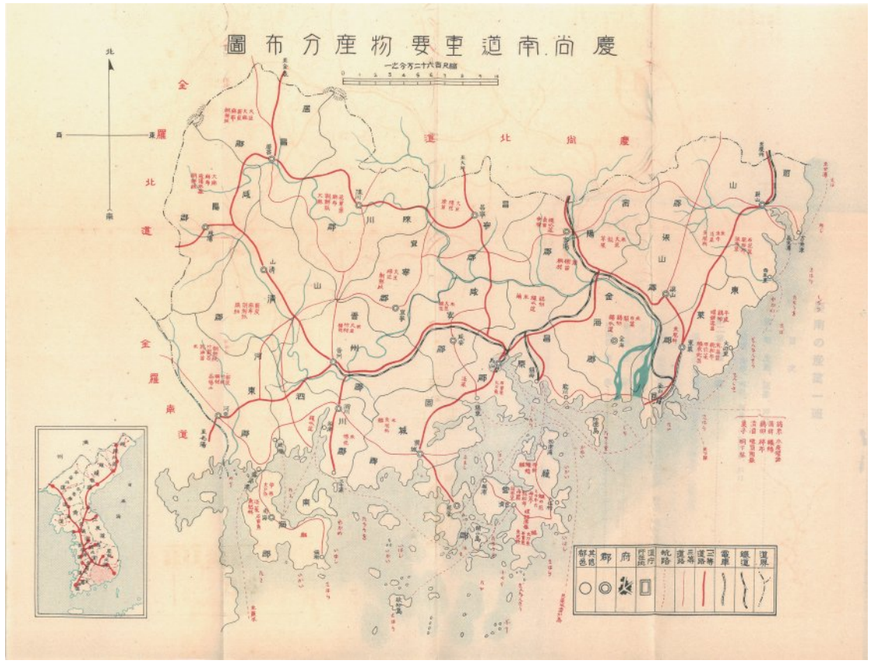
경상남도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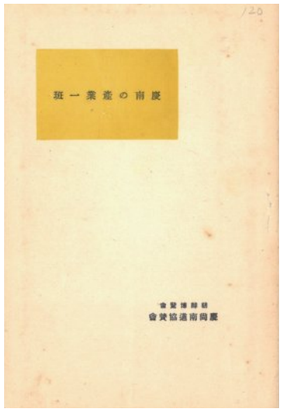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25년 4월 1일, 경상남도청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7일에는 이전을 기념하는 이청식이 열렸고,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건축 전문 잡지 『조선과 건축』(4집 6호)은 이 건물을 "지하를 포함한 3층 규모의 붉은 벽돌 건물로, 외관과 내부 시설에 증기난방까지 갖춘 부산 유수의 대건축"이라 소개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경상남도 청사를 '대륙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건물은 부산역(1910, 다쓰노 긴고辰野金吾 설계), 부산우편국(1910), 부산세관(1911)과 함께 일본 본토 여행자들에게 꼭 들러야 할 명소로 소개되었고, 여러 사진 엽서와 팸플릿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근대 도시 부산을 알리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가 이 붉은 벽돌 건물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On April 1, 1925,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began a new chapter in this red-brick building. A dedication ceremony followed on the 17th, and by the 25th the offices were fully in use. The architecture journal *Chōsen and Architecture* praised it as one of Busan's finest, a three-story structure with steam heating and modern facilitie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positioned the Provincial Office as Busan's gateway to the continent. Alongside Busan Station (1910, designed by Tatsuno Kingo), the Busan Post Office (1910), and the Busan Customs House (1911), the building was promoted as a must-see landmark for travelers from Japan. It appeared repeatedly in postcards and pamphlets, making clear how the colonial authorities sought to showcase Busan as a modern city through the image of this red-brick structure.







010

경남의 산업 일반

Industries of Gyeongsangnam-do Province

1929년 9월 12일
12.5×18.6cm (표지), 35.0×26.7cm (지도)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September 12, 1929
12.5×18.6cm (cover), 35.0×26.7cm (map)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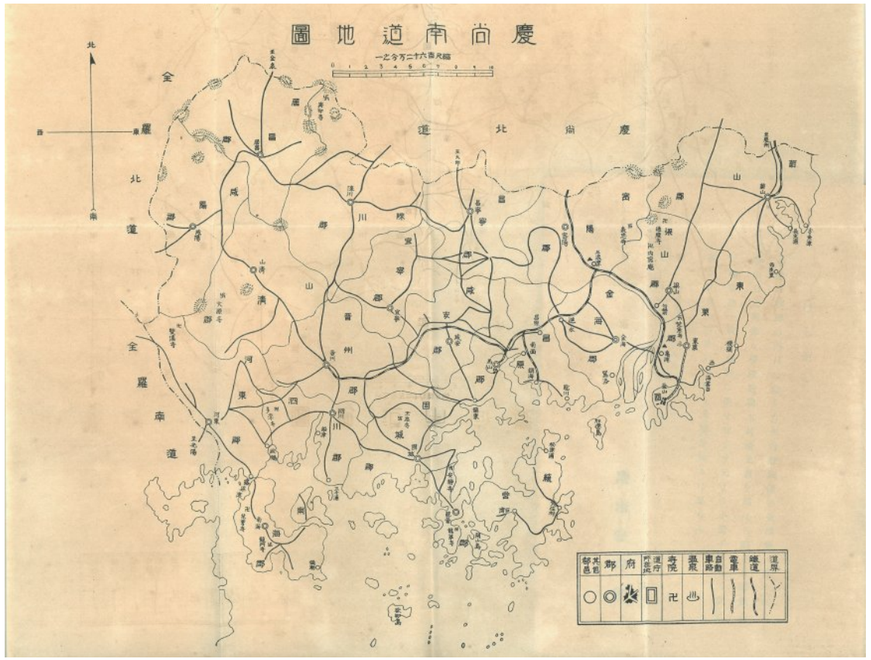
경남약사

Gyeongsangnam-do Chronicle (Gyeongnam Yaksa)

1929년 9월 15일
12.6×18.5cm (표지),
33.5×26.4cm (지도)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September 15, 1929
12.6×18.5cm (cover),
33.5×26.4cm (map)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1929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는 경복궁 일대에서 대규모 조선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맞춰 경상남도협찬회는 지역의 현황과 산업을 알리는 팸플릿을 발간했으며, 두 책자 모두 표지와 지도로 시작하는 공통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남약사」에는 1929년 8월 말 기준의 경상남도 주요 연혁과 지도가 실렸고, 말미에는 부산이 예로부터 조선의 관문으로써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강조합니다. 「경남의 산업 일반」은 산업 분포도를 비롯해, 토지·기상·인구 수,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상공업, 금융, 교통운행, 실업교육까지 9가지 주제를 나누어 당시 경상남도 산업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서술로 부산을 동아시아 교류의 최전선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Between September 12 and October 31, 1929,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osted the grand Joseon Exposition at Gyeongbokgung Palace in Seoul. To represent the province, the Gyeongsangnam-do Sponsorship Association issued two pamphlets—each opening with a cover and a detailed map. *Gyeongsangnam-do Chronicle* outlined key historical milestones and an updated map as of August 1929, concluding with the assertion that Busan, long seen as Korea's gateway, had maintained close exchanges with Japan. *Industries of Gyeongsangnam-do* surveyed the province's economy in nine categories, from land and climate to agriculture, industry, finance, and education, accompanied by an industrial distribution map. These narratives framed Busan as the frontline of East Asian exchange while serving to legitimize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012

경남의 노래

The Song of Gyeongsangnam-do Province

1920년대
16.9×9.1cm (표지), 608.5×91.5cm (내용)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1920s
16.9×9.1cm (cover), 608.5×91.5cm (content)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경상남도협찬회가 발간한 「경남의 노래」는 지역의 정체성을 홍보하기 위한 팸플릿입니다. 경남의 명소와 명물, 사계절, 농업, 산림, 그리고 경남 일주까지 다섯 편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Song of Gyeongsangnam-do, published by the Gyeongnam Sponsorship Association, was a promotional pamphlet designed to highlight the province's identity. It is composed of five songs celebrating the province's landmarks and specialties, its four seasons, agriculture, forestry, and a journey around the province.



I 붉은 벽돌에 새겨진 첫 이름 (경상남도청, 1925-1950)

013

경상남도 청사 사진그림엽서

Picture Postcards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e

1920-1930년대
14.0×9.0cm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13-4, 13-5, 13-6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3-1, 13-2, 13-3, 13-7, 13-8

1920-1930s
14.0×9.0cm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13-4, 13-5, 13-6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13-1, 13-2, 13-3, 13-7, 13-8

사진그림엽서는 근대 도시를 가장 생생하게 전한 매체 중 하나였습니다. 엽서 속에는 번화한 거리와 서양식 건물,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여행 기념품이자 소통 도구가 되었습니다. 작은 종이 속 이미지는 근대 부산의 풍경을 전국 곳곳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엽서는 자유롭게 제작될 수 없었습니다. 엽서의 하단에는 대부분 '진해만요새사령부 허가제'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이는 군 당국의 허가 없이는 출판조차 어려웠음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 청사는 유독 자주 엽서에 등장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관청 건물은 단순한 행정의 공간을 넘어, 근대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풍경이었던 것입니다.

Picture postcards were a vivid medium of the modern era, capturing city streets, Western-style buildings, and daily life as both souvenirs and tools of communication. Through them, images of modern Busan spread far beyond the city. Most postcards carried the phrase *'Approved by the Jinhae Bay Fortress Headquarters'*, showing that military permission was required for publication. Amid this control, the Provincial Office appeared again and again. Its red-brick façade made the building not just an administrative space but a landmark symbol of modern Busan.

❶❷❸ 1920년대 경상남도 청사 사진그림엽서로, 본관의 좌우 날개를 단층으로 지은 것이 눈에 띕니다.

❹ 부산부에서 발행한 '부산회엽서' 중 한 장으로, 경남도청과 부산부청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경남도청 소개에는 '1925년 4월, 진주에서 옮겨온 경상남도청은 부민정 2정목에 있던 자혜의원을 청사로 삼았다'라는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❺ 부산 용두산에 있던 오요시 찻집에서 발행한 엽서입니다. 경상남도 청사를 '부민정 거리에 위풍당당함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묘사했습니다.

❻ 부산잔교식당에서 발행한 엽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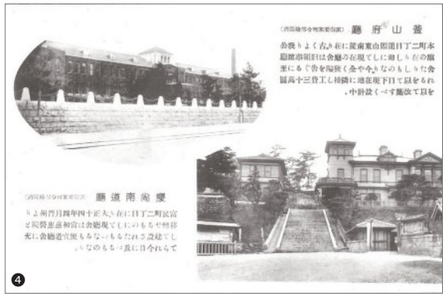
❼ 1939년 2월에 발행한 엽서로, 오른쪽에는 '부민정 한가운데 우뚝 솟은 장대한 건축물, 경남도청은 사방으로 위엄을 드러내다. 천혜의 항구이자 동아시아 관문인 부산 거리는 언제나 밝고 활기찬 도시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❽ 같은 해 2월에 발행된 또 다른 엽서입니다. 엽서 왼쪽에는 '부산은 만주를 넘어 중국 대륙으로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문구가 담겨 있어,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일본의 패기와 지역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❶


❷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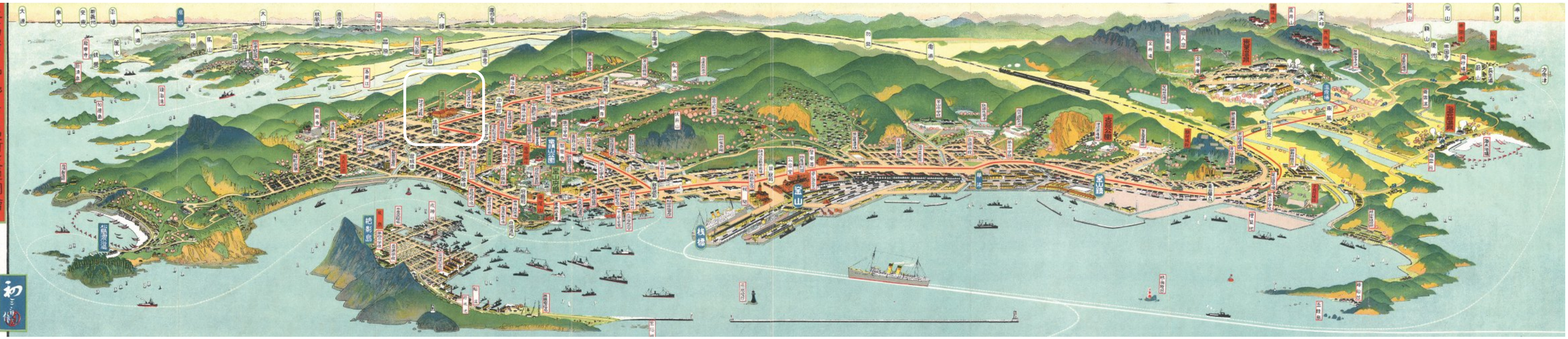

❹


❺


❻


❼


❽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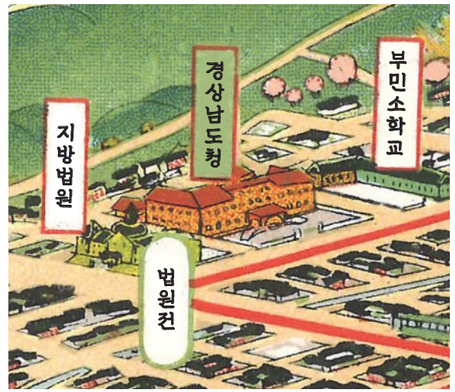
부산부를 중심으로 그린 명소와 교통 그림지도

Scenic and Transportation Map of Busan

요시다 하츠사부로吉田初三郎	Yoshida Hatsusaburō
1929년 7월 5일 발행	July 5, 1929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1929년 9월에 열린 조선박람회를 계기로 제작된 이 조감도는 일본의 지도 제작자 요시다 하츠사부로의 작품입니다. 이 지도는 서양식 원근법과 풍경화식 채색을 더해 도시 전경을 파노라마식으로 담아낸 식민지 선전물이었습니다. 지도 속 중심부에는 부산부청이 있고, 그 북서쪽으로 경상남도청, 지방법원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청 건물은 입체적으로 정교하게 묘사되어 근대 도시 부산에서 행정 권력의 상징적 위상을 드러냅니다. 관공서 외에도 교육기관, 위생시설, 회사, 신사, 관광지가 빼곡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산 도심 거리는 붉은 선으로 전차 노선이 표시되어 있고, 철도망은 경성을 넘어 중국 대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도로 주변으로 만개한 벚꽃길은 일본 본토와 다르지 않은 풍경으로 연출되어 부산을 '일본 제국의 관문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Created for the 1929 Joseon Exposition, this bird's-eye view map is the work of Japanese cartographer Yoshida Hatsusaburō. Combining Western perspective with painterly color, it offered a panoramic image of Busan while serving as a tool of colonial propaganda. At its center stands the Busan City Hall, with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and the District Court prominently drawn to highlight their authority. Around them, schools, companies, shrines, and public facilities fill the map, while railway tracks stretch outward as far as Dalian in China. Lined with blossoming cherry trees, the streets were rendered to resemble a Japanese city, casting Busan as the '*imperial gateway to the China main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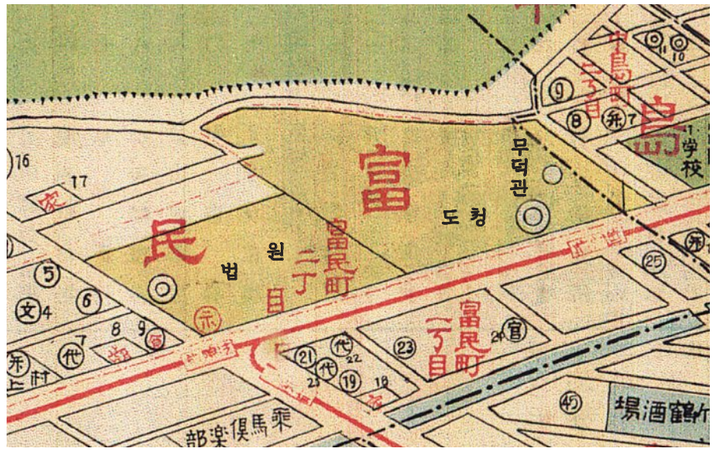
Ⅰ 붉은 벽돌에 새겨진 첫 이름 (경상남도청, 1925-1950)

015

부산안내도
Busan Guide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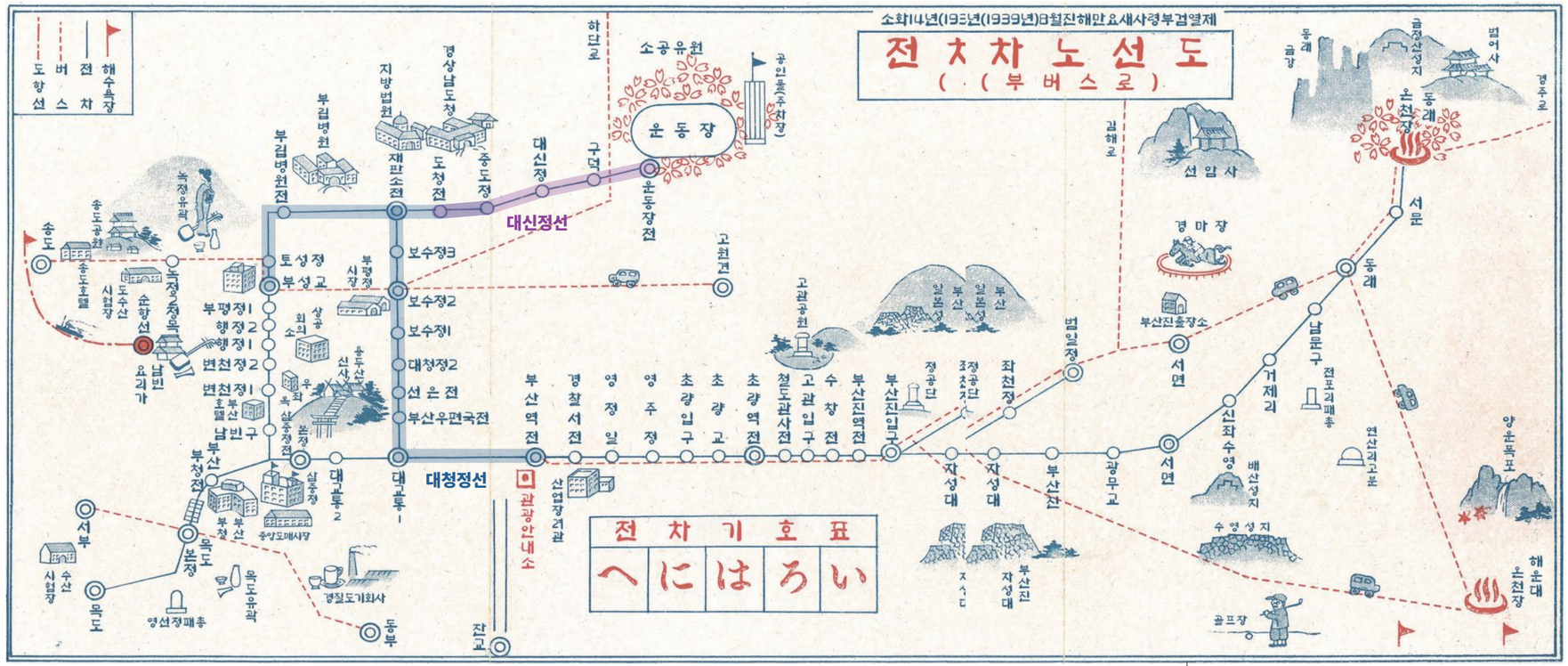
1938년 1월 발행 January 1938
부경근대사료연구소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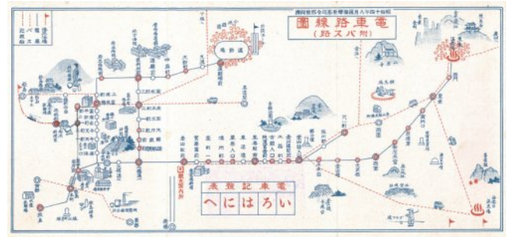




부산안내도는 일제강점기 말기의 도시 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조감 형식으로 그려져 부산부 전역이 한눈에 펼쳐지며, 중심부에는 행정과 주요 시설이 모여 있어 오늘날 원도심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아래에는 부민정 일대의 법원, 도청, 무덕전이 간단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묘사는 없지만, 위치와 배치만으로도 이 기관들이 당시 부산에서 차지한 비중을 가늠하게 합니다.

The Busan Guide Map of 1938 illustrates the city's structure in the late colonial period. Using a bird's-eye perspective, it highlights the administrative core at the center—today's old downtown. Beneath the titl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Busan courthouse, and Mudeok Pavilion appear in simplified form. Even without architectural detail, their placement signals the prominence of these institutions in the urban hierarchy. More than a practical guide, the map reveals how colonial authority was visually embedded in Busan's urban space, making it a significant record of power and its spatial expression.





016

전차노선도

Busan Tramway Route Map

1939년 8월 발행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August 1939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경상남도 청사의 부산 이전은 전차 노선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6년에 개통한 대청정선(부산역~대청로~토성정)이 1925년 9월경 보수정2(보수동2정목)에서 도청전(경남도청)을 거쳐 중도정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어 1928년에는 대신정선(중도정~운동장전)이 새로 개통되었습니다. 1939년 무렵에는 도청 앞에서 전차를 타고 영도로 이동하거나, 부산역을 거쳐 동래 온천장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The relocation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directly shaped Busan's streetcar system. The original line from Busan Station, opened in 1916, was extended in 1925 to reach the new office at Buminjeong. By 1939, riders could catch a streetcar at the provincial office and travel across Yeongdo Island or through Busan Station all the way to the Dongnae hot springs, showing how the office became a hub for both governance and daily life.

017

(부산)재판소 앞 역

Busan District Court Station

1930년대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30s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칼럼 2

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팸플릿 자료에 대해서

Picture Postcards and Pamphlet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신동규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소장

1. 사진그림엽서와 팸플릿은 무엇인가

이번에 〈백년청사〉 전시회에 필자가 소장한 자료들을 전시하면서, '일제강점기의 사진그림엽서와 팸플릿을 어떻게 하면 관람자분들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 이 글에서는 그 두 매체가 무엇인지, 부산을 주제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학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는 인문학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기 인쇄·홍보 자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한 참고 이미지로만 다루어졌던 사진엽서와 팸플릿이 이제는 연구의 기초자료, 나아가 중요한 사료로 재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진그림엽서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는 우편엽서"를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 팽창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에 일본과 거의 같은 상황 속에서 발전해 왔다. 즉, 일본에서 1900년에 사제 사진그림엽서의 제작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후 한국에서도 정보전달과 시대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엽서 발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해서는 이른바 '사진그림엽서 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것은 엽서라는 매체가 이미지와 함께 정보전달이라는 미디어로써의 역할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엽서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매스 미디어의 특성"과 "엽서의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퍼스널 미디어의 특성"(毛利康秀/2015. 문헌은 뒤쪽), 즉 전자는 화상정보(인쇄된 사진·그림) 전달의 수단으로써, 후자는 개인정보(사적 편지글) 전달의 수단으로써 활성화되면서 엽서는 당대 최고의 미디어로써 자리를 잡아 나갔다. 특히 전자의 경우, 대중들에게 어떤 사상이나 정보를 선전하는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강하여 국가 권력의 대표적인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팸플릿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64년 11월 9일 제13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대한 통계의 국제화, 또는 표준화에 관한 권고」에 의하면, "특정 국가에서 발행되어 대중들에게 제공되는 표지 페이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5페이지 이상, 48페이지 이하의 비정기적 인쇄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와 1964년이라는 시대적 괴리감은 있지만, 대중들에 대한 선전·홍보물이라는 차원에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팸플릿의 역사는 엽서보다 더 오래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팸플릿의 역사적 기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15~16세기에 유럽에서 인쇄술이 보급되자 종교적·정치적 내용을 다루며 종교 개혁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1517) 같은 팸플릿이 그 대표적인 예로 대중의 종교적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17세기는 유럽 전역에서 팸플릿이 폭넓게 사용된 시기로 영국 내전(1642~1651) 동안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서 정치적 선전 도구, 즉 프로파간다로 활용되기도 했다. 18세기에는 계몽주의와 관련된 혁명의 팸플릿이 유행했고, 19세기에는 산업혁명 이후 사회적 변화와 노동운동, 사회주의운동 등 대중을 결집하는 수단이기도 했으며, 국가 권력에 의한 제국주의 프로파간다의 선전 수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팸플릿이 발행되었다. 다만, 20세기에 들어와 라디오·텔레비전·신문 등 대중 매체의 발달로 그 역할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 또는 특정 단체나 기업에 의해 정보전달 수단, 서비스 정보 제공의 중요 루트, 또는 선전 매체로써 계속 활용되고 있다.

2. 대표적인 부산 관련 엽서와 팸플릿

부산과 관련된 사진엽서와 팸플릿은 얼마나 다양했을까? 부산은 한국을 넘어 만주와 대륙으로 이어지는 첫 관문이었기에, 이곳을 다룬 엽서는 경성과 함께 통계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이 발행되었다. 팸플릿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 병합 이후 일본인의 이주가 늘고 여행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산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팸플릿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제작되었다. 이처럼 부산 관련 엽서와 팸플릿은 단순한 기념품이나 홍보물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귀중한 자료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자료 몇 점을 선별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엽서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이나 부산부釜山府 등에서 발행한 관제와 각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기념엽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제엽서이다. 경성의 히노데상행日出商行, 일본의 다이쇼사진공예소大正寫眞工藝所 등의 엽서 대형 업체에서 부산 엽서를 발행했고, 부산에서는 용두산 오요시찻집およし茶屋, 용두산공원·고지쿠도서점昊竹堂書店·나니와야浪花屋·잔교식당棧橋食堂·부산관광협회釜山觀光協會·오카다상점岡田商店[岡田繪葉書店]·고이케상점小池商店·가토상점加藤商店·요네야상점米屋商店·모리토모상점森友商店·후지타야백화점藤田屋百貨店 등의 서점과 토산품·기념품 판매업체 등에서도 발행·판매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소재들은 당시 부산의 대형 신식 건축물과 명소들이었으며, 주로 부산에 온 관광객들의 여행 기념품과 토산품으로서 대량 판매되었다.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엽서도 있는데, 교문이 아직도 그대로 보여 지난 시절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그림 1). 원래 석



그림 1 경남도청 청사(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그림 2 군산자혜의원



그림 3 부산지방법원(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리)

당박물관은 자혜의원을 짓다 갑자기 도청 청사로 용도가 변경된 건물(1925)로써 그 모습을 보면 당시 군산자혜의원(1922)과 거의 비슷한 건물 형태였음을 사진그림엽서(그림 2)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동아대학교와 관련해 귀중한 자료는 부산지방법원 엽서이다(그림 3). 부산지방법원은 1910년 한국병합 직후인 9월에 청사를 신축하였는데,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이 자리 잡고 있



그림 4 부산역 앞의 모습



그림 5 부산우편국과 전차가 다니는 모습



그림 6 부산 장수통長手通(현 광복동 일대) 거리



그림 7 부산항 잔교 전경과 관부연락선 정박 모습의 2매 연쇄 파노라마 엽서

으며,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재판이 열렸던 곳으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이외에 부산역 앞 거리 모습(그림 4), 부산우편국(현 부산우체국)(그림 5), 부산 장수통長手通(현 광복동) 번화가(그림 6), 부산항 잔교의 파노라마 엽서(그림 7), 동래읍성의 식파루息波樓(그림 8)와 세병문洗兵門(그림 9), 그리고 동래 온천장역 전차 개통식 기념엽서(그림 10)와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는 모습(그림 11) 등의 엽서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옛 부산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산 관련 팸플릿은 엽서보다도 희귀성이 높고, 박물관 등에서도 소장한 곳이 적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역시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었는데, 필자가 소장



그림 8 동래 식파루
그림 9 동래 세병문

한 것 중에서 우선 부산관광협회에서 발행한 『부산 관광안내도』(그림 12·13)와 『부산의 도표道標 전차노선도』(그림 14·15)를 소개해 본다. 부산 관광안내도는 부산의 개략과 관광코스, 고관공원·용두산 신사·부산대교·송도해수욕장의 사진을 수록하고 있으며, 뒷면에는 「부산·동래·해운대 안내도」라는 제명으로 관광지와 전차 노선을 삽입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쉽게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도표道標 전차노선도』도 같은 형식인데, 일제강점기 부산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용두산 신사 팸플릿이다. 일제강점기에 용



그림 10 동래 온천장 전차역 개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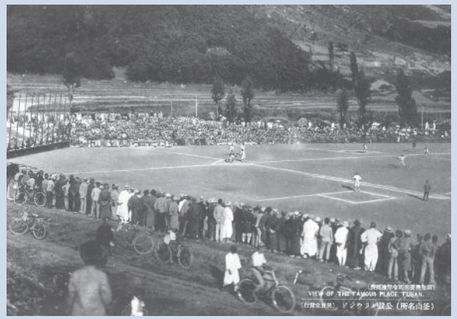


그림 11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야구하는 모습



그림 12·13 『부산 관광안내도』 앞·뒷면



그림 14·15 『부산의 도표道標 전차노선도』 앞·뒷면

두산에는 공원과 함께 일본인들에게는 조선에 세워진 지가장 오래된 신사가 있던 곳이었고, 부산항 전체를 전망할 수 있었기에 조선 관광의 첫 번째 명소였다. 그만큼 일본인의 왕래가 잦았기에 '용두산신사사무소'에서는 팸플릿도 자주 발행했는데, (그림16·17)은 용두산신사기요龍頭山神社記要로 부산의 개요, 연중행사, 명소와 사적 등과 함께 철도노선에 따라 「조선의 주된 신사 진좌일람도」가 그려져 있다. 한편, 부산과 함께 경상남도 전체를 소개한 『경상남도도회慶尙南道圖繪』(그림18·19)라는 자료도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1929년에 조선박람회를 기념하여 조감도

화가로 유명한 요시다 하쓰사부로吉田初三郎가 그린 경상남도의 조감도를 수록하여 '조선박람회 경상남도협찬회'에서 발행한 것이다. 조감도는 한반도의 남쪽 해안에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조감한 형태의 그림으로 오른쪽 위에는 경주에서 원산까지의 철도 노선이 그려져 있고, 왼쪽의 경상남도 경계 부근에는 마산과 진주를 지나 순천·여수, 그리고 그 위에는 제주도를 그리고 있으며, 목포·인천·경성·평양·신의주·다롄까지의 철도 노선도 그려져 있다. 조감도가 그려진 표지의 내지면 쪽에는 부산 제1잔교와 연락선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부산의 노래' 가사가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시가지·부산잔교·관부연락선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요시다 하쓰사부로는 1929년 부산부청이 발행한 팸플릿 『부산』(그림20·21)에 수록된 조감도를 제작하였다. 이 조감도는 한반도 남해안 일대를 조망하는 시각적 구도로, 부산항을 중심에 두고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해운대·장생포·울산·불국사·범어사·통도사 등 지역적 명소가 배열되어 있으며, 화면의 최상단 모서리에는 금강산·원산·청진·블라디보스토크浦鹽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산을 동북아 교통망의 기점으로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반면 왼쪽 하단에는 송도해수욕장, 가덕도, 진해만, 거제도, 통영, 여수를 지나 목포·대전·경성·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철도망이 삽입되었고, 그 끝은 만주지역의 단둥安東·펑톈奉天·다롄大連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표지와 본문에서는 '부산 총설'을 시작으로 위치·지세·기상·인구·재정·교육에 관한 기본 통계에서 항만·도로·철도·무역·상공업·수산업·특산물·명소·사적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을 다각도로 서



그림 16·17 『용두산신사기요龍頭山神社記要』 앞·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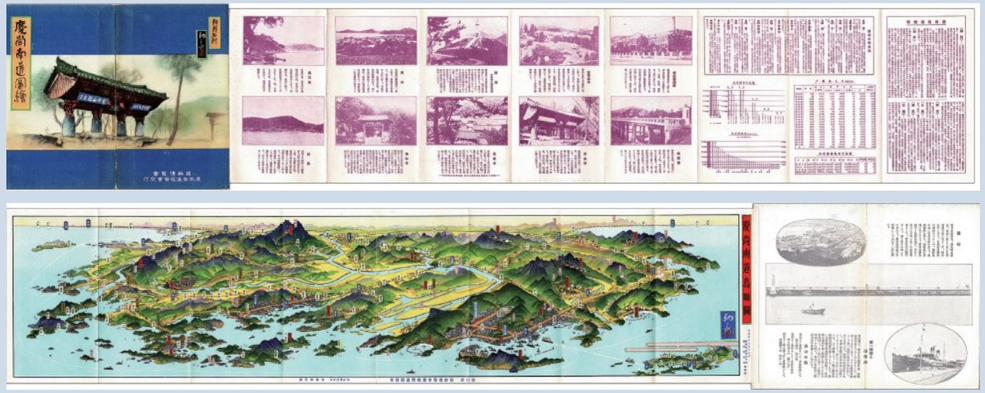


그림 18·19 『경상남도도회慶尙南道圖繪』 앞·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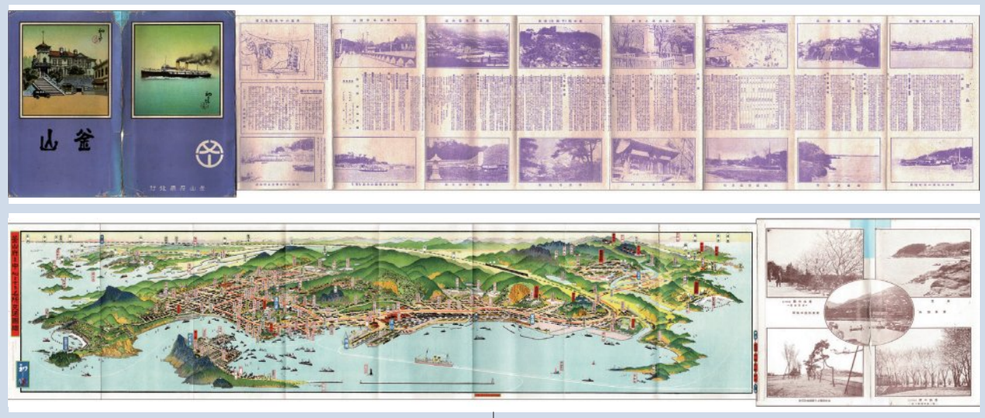


그림 20·21 『부산』 앞·뒷면

술하고 있다. 또한 전차·승합자동차·택시·인력거 등 도시 교통수단, 연안 기선과 일본행 선박의 발착 정보, 여관·토산품점·관세 제도 등 여행자 편의를 위한 실용 정보도 망라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산』은 도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위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써, 1920년대 후반 부산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끝으로 『조선동래온천어안내朝鮮東萊溫泉御案內』 조감도 팸플릿이다(그림22·23). 일제강점기 동래온천에 있던 후타가미상점二神商店에서 발행한 것으로 조감도 오른쪽 끝 모서리(표지의 내지면 쪽에 붙어 있는 부분)에 인쇄된 저작권 소유자가 부산부에 거주하는 모리모토 나가하루森本長治라고 명기하고 있다. 발행 연대는 불명확하지만, 1930년대에 발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지가 있는 앞면에는 동래온천 부근과 범어사 전경, 해운대 온천장의 해운각, 통도사, 세이브자동차회사 동래영업소의 모습 등 6매의 사진을 비롯해 「동래온천 예찬기禮讚記」가 수록되어 있다. 뒷면에는 동래관東萊館의 정면과 전경 사진, 단체용 대형 객실, 신관 객실 등 4매의 사진이 표지 뒷면 쪽에 인쇄되어 있고, 동래 온천장을 중심으로 한 대형 조감도가 붙어 있다. 조감도는 동래의 남동쪽 하늘에서 온천장을 내려다본 형식, 즉 동해 쪽 상공에서 금정산을 조감한 형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왼쪽은 하단에서 상단으로 부산·구포·삼랑진·대구를 비롯해 해안가 쪽으로는 진해·마산·목포·군산·인천·경성·진남포·평양·신의주·다롄大連까지 표기하고 있으며, 중앙 상단부에는 동래 신사와 금정산성 및 성벽, 오른쪽에는 범어사·통도사·울산·경주·포항·금강산·원산·청진·블라디보스토크까지 표기하고 있다. 다롄과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외국까지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아 요시다 하쓰사부로의 조감도 양식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동래 온천과 관련해 조감도가 수록된 아주 귀중한 자료로써 당시 동래 주변의 상점과 온천 및 여관, 명소까지도 상세히 그려 넣고 있다.

이상으로 사진그림엽서와 팸플릿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는 일제 침략기 한국의 현실과 풍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고, 학술 연구의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 필자 역시 2024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분석·번역·해제·이미지 DB 구축」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자료들에 담긴 정보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을 합리화하고 식민 지배의 당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물이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연구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신, 『한국 최초 101장면』 (가람기획, 1998), 99-100쪽.

毛利康秀, 「ツーリズムの視点からみたメディアとしての繪葉書」の再檢討」 (『政經研究』 52-2, 日本大學法學部. 2015), 547-548쪽.

毛利康秀, 「歷史イメージとしての繪葉書-研究の動向および社會的意味の再檢討」(『동아시아일본학회추계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일본학회, 2019), 21쪽.

世馬宏通, 「漏らすメディア」(『ユリイカ』 36-5, 2004), 13쪽.

樋畑雪湖, 『日本繪葉書思潮』 (日本郵券俱樂部, 1936), 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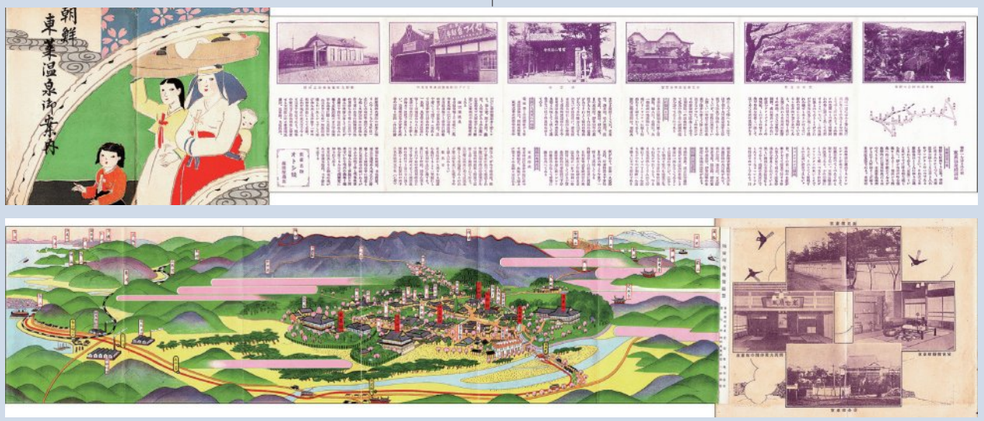


그림 22·23 『조선동래온천어안내朝鮮東萊溫泉御案內』 앞·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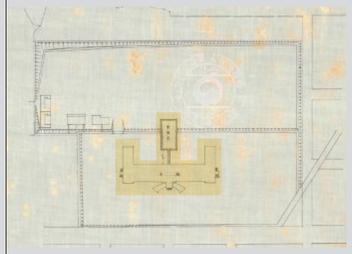
흔적과 도면, 건물이 쓴 자서전

Traces and Bluepr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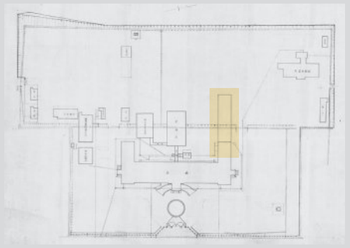
붉은 벽돌 건물은 경상남도 청사로 사용되면서 여러 차례 확장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애초 병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관공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공간이 좁았고, 부서 개편과 인원 증가에 따라 증축이 불가피했습니다. 1925년 12월에는 건물 안마당에 회의실이 신축되었고, 1931년 7월에는 본관 오른쪽 날개가 1층에서 2층 건물로 증축되었습니다. 이어 1939년에는 왼쪽 날개도 2층으로 확장되었으며, 1941년 1월에는 건물 뒤편까지 모두 2층으로 높아지면서 전체가 '日' 자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어진 증축의 흔적은 이 건물이 당시 행정 변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건축 기록임을 말해줍니다.

Originally built as a hospital, the red-brick building soon proved too small once it became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Additions followed: a meeting hall in 1925, taller wings in the 1930s, and by 1941 the rear was raised to form the final "日"-shaped plan. These changes chart how the structure adapted to the needs of its time, leaving an enduring record of trans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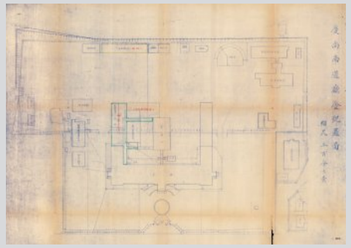
1925



1931



1937



1950



1972



2024



부산자혜의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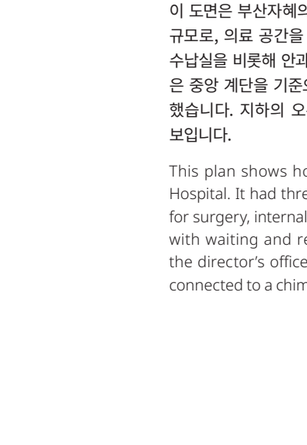
Floor Plan of Busan Charity Hospital

1920년대 1920s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이 도면은 부산자혜의원으로 건립을 계획했을 당시 내부 평면도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2층의 총 3층 규모로, 의료 공간을 기능별로 짜임새 있게 배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층 중앙 복도 양쪽에는 대기실과 수납실을 비롯해 안과·치과·소아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수술실 등 진료과와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2층은 중앙 계단을 기준으로 왼쪽에 입원 병실이 주로 놓였고, 오른쪽에는 원장실·회의실 등 집무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지하의 오른쪽 끝에는 석탄고와 기관실이 배치되어 있어서 굴뚝과 연결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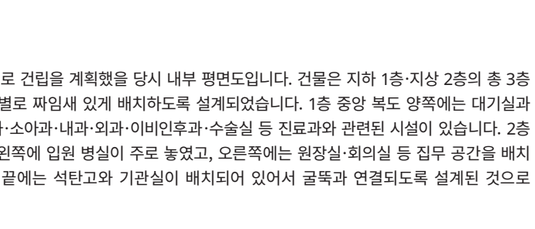
This plan shows how the building was first laid out when it was intended as the Busan Charity Hospital. It had three levels: a basement and two stories above ground. The first floor placed clinics for surgery, internal medicine, pediatrics, dentistry, ophthalmology, and ENT along a central corridor, with waiting and reception areas nearby. The second floor held patient wards on one side and the director's office and meeting rooms on the other. In the basement, storage and boiler rooms connected to a chimney provided the building's utilities.

부산자혜병원 현상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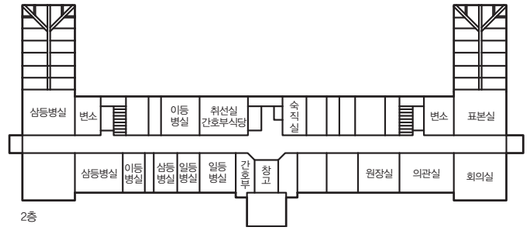




지하



1층



2층

Ⅰ 붉은 벽돌에 새겨진 첫 이름 (경상남도청, 1925-1950)

019

경상남도 청사 평면도
Floor Plan of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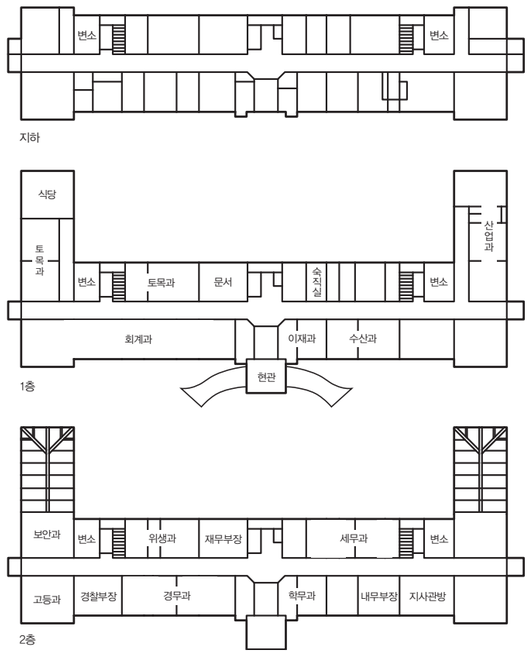
1925년 1월 9일 January 9 1925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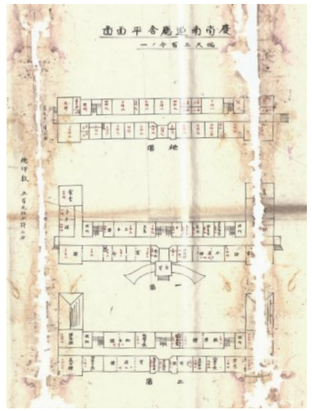
이 도면은 1925년 4월 도청이 부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기 전에 내무국에서 그린 배치도입니다. 총 평수는 592평 7합으로 지하 1층·지상 2층을 포함한 총 3층 건물이며, 아직 초안 단계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각 실마다 면적만 적혀 있을 뿐,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층은 중앙 현관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회계과·토목과·식당이, 오른쪽에는 이재과·수산과·산업과가 날개 부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2층 왼쪽에는 경무과·위생과·고등과·보안과가 들어섰고, 재무부장실과 경찰부장실도 함께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세무과와 학무과, 내무부장, 그리고 지사 관방실이 배치되어 당시 도청에서 행정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려 했는지 보여줍니다.

This draft plan was drawn up in early 1925, just before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began work in Busan. The building was designed with three levels, a basement and two stories above ground, covering about roughly 1,950 square meters.
The basement was left undefined, with only room sizes noted. On the first floor, the entrance hall opened to offices for accounting and engineering on one side, and finance, fisheries, and industry on the other. The second floor gathered the police, public health, and education bureaus, along with the governor's suite and senior officials' offices, showing how the building's upper floor became the center of administration.

총 평수 592평 7합

경상남도청사 평면도
축척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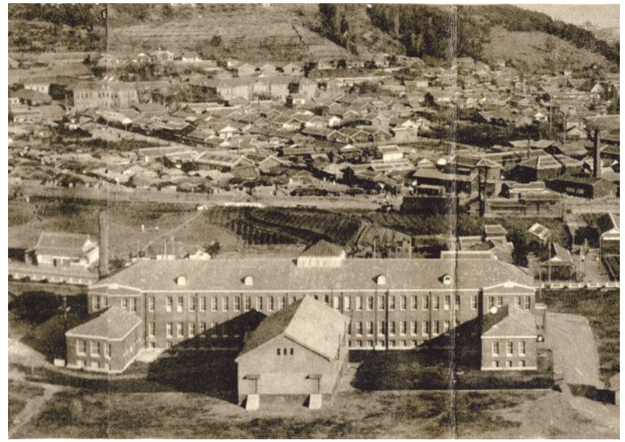


020

경상남도 청사 후면 전경
Rear view of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26년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26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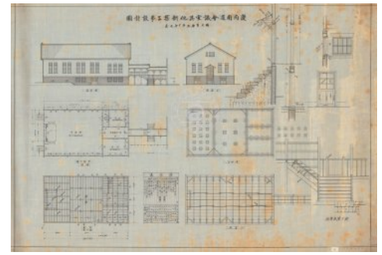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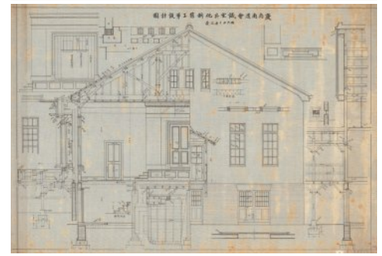
경상남도 청사 회의실 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25년 7월 July 1925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경상남도청이 붉은 벽돌 건물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공간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진주에서 옮겨온 뒤에도 직원들이 모일 자리가 마땅치 않아 불편이 컸던 탓입니다. 도청 토목과가 직접 설계와 감독을 맡아 80.5평 남짓한 2층 목조 건물을 지었고, 당시 공사비 약 1만 5천원(현재 약 1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거액이 투입되었습니다. 공사는 같은 해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반지하를 둔 단층 건물로 설계되었습니다. 벽돌로 지은 반지하는 창고로 쓰였고, 1층에는 목조에 모르타르 마감을 더해 대회의실과 2개의 대기실이 놓였습니다. 본관은 중앙 현관을 지나 외부 복도 계단을 따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수직으로 다른 구조를 적용한 독특한 사례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山'자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When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moved into its red-brick building in Busan, the most pressing need was a proper meeting hall. The provincial engineering department designed a wooden hall of about 266m², built at a cost of roughly 7,500 dollars, equal to about 127,500 dollars today. The project was completed in December 1925. The hall included a brick half-basement for storage and a main floor with a large conference room and two side rooms. Placed at a right angle to the main building and connected by an outdoor corridor, it gave the complex a distinctive "山"-shaped layout when viewed from above.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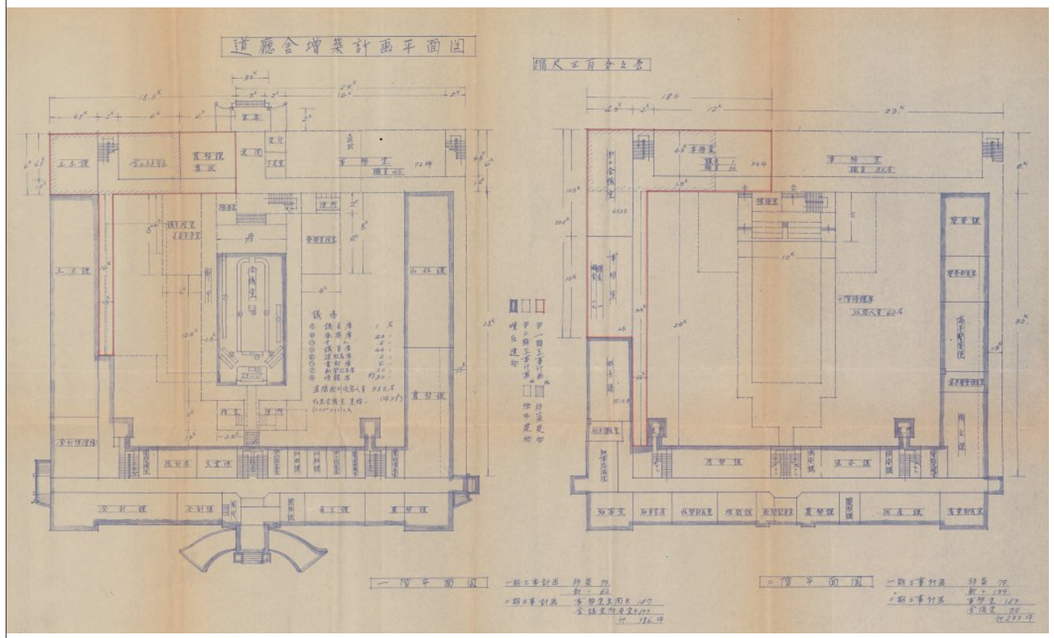
경상남도 청사 증축 설계 평면도

Floor Plan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Extension

1938년 1938
국가기록원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경남도청은 복도까지 책상과 문서가 놓일 만큼 부서가 늘어나 증축이 불가피했습니다. 1928년부터 추진된 공사는 1931년 7월 조선총독부의 지원금 약 1만 원(현재 약 1억 5천만원 상당)으로 본관 오른쪽 날개를 2층으로 올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공간은 여전히 모자라 단계별 증축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첫 단계는 본관 서쪽 날개를 2층으로 올리는 공사로, 같은 해 도의회가 약 1만 8천 원(현재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예산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공사는 1939년에 이르러 완공되었습니다.

By the late 1920s, the Gyeongnam Provincial Office had outgrown its space—desks and files even spilled into the hallways. Expansion became unavoidable. In July 1931, with a subsidy of about $70,000 from the Government-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east wing was raised to two stories. Yet the offices still felt cramped, leading to further plans. That same year, the provincial assembly approved another $120,000 to expand the west wing, a project that was only completed in 1939.





1936년 발행 부산부시가도 속 경상남도 청사

023

경상남도 청사 평면도

Floor Plan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40년 1940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40년 조선총독부에 제출용으로 작성된 경상남도 청사 평면도는 도청과 주변 공간이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관 오른쪽에는 1938년에 세워진 무덕전이 보이고, 그 옆으로 순사교습소와 유치장이 자리합니다. 왼편에는 위생시험실과 분석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관 1층에는 회계과·상공과·농무과·토목과·산림과가 들어섰습니다. 2층에는 사회과와 지방과를 비롯해 보안과·수산과·경무과·고등경찰과가 자리하며 이전보다 훨씬 세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지사실은 본관 왼쪽 모퉁이에 있었는데,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고고실입니다. 본관 후면의 2층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1941년 1월 공사가 끝나면서 채워졌습니다. 이로써 건물은 마침내 '日'자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In 1940, a floor plan of the Provincial Office was drawn up fo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map reveals how the complex had grown, with new wings and auxiliary buildings crowding around the main hall. To the east stood the recently built Mudeok Pavilion, along with a police training school and detention cells; to the west, a hygiene lab and testing rooms. Inside, the offices had multiplied—finance, industry, agriculture, forestry on the first floor, and a host of administrative and police bureaus above. By 1941 the unfinished rear wing was completed, giving the structure its final "日"-shaped plan.

* 다음 장에서 1940년 경상남도 청사의 공간 구성을 보여주는 평면도 자료가 이어집니다.
* The next section presents a 1940 floor plan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경상남도청사기타평면도(기·일)

축척 1/300

경상남도청사기타평면도(기·이)

축척 1/300

무덕전
Mudeok Pavilion

무덕전은 1938년 3월 27일 경상남도 경찰부가 무술 훈련을 위해 도청 본관 오른쪽에 세운 체육관尙武館입니다. '무덕武德'이라는 이름은 1895년 일본에서 창설된 '대일본무덕회大日本武德會'의 무예 도장演武場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부가 지역 무도 단체를 직접 관리하며 민중을 통제하고자 했던 식민 권력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부산의 일본인 기업인 조선와사(가스)전기가 남선전기로 합병하며 경상남도에 기부한 8만원(현재 약 13억원 상당 추정)으로 지었습니다. 187.79평 규모의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기와 지붕과 삼층 창을 갖추었고, 출입구에는 일본 건축의 상징인 아치형 처마唐破風, karahafu로 권위를 표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무도대회장과 징병검사장으로 사용되던 이곳은 해방 후에는 군법회의장, 임시 국회의사당, 도의회, 그리고 법원 법정동으로 시대의 요구마다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동아대학교 국제관이 들어서 있지만, 남아 있는 기와와 각종 부재가 박물관 임시수도정부청사 기록실에 보존되어 무덕전이 지나온 역사를 여전히 전해줍니다.

The Mudeok Pavilion was built in March 1938 beside the Provincial Office in Busan. Funded by a Japanese company's donation of $40,000-about $1.3 billion today, it was a reinforced-concrete hall of 620m² with a tiled roof, three-tiered windows, and a karahafu gable at the entrance, a symbol of authority in Japanese architecture.
Intended for martial arts training and conscription exams, the hall reflected Japan's use of sport to control colonial society. After liberation it was repurposed repeatedly as a military tribunal, temporary National Assembly, provincial council, and later a courthouse. Though the building is gone, fragments preserved in the Dong-A University Museum testify to its layered history.

024

경남도청 무덕전
Mudeok Pavilion

1939년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1939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025

경남도청 무덕전
Mudeok Pavilion

1946년 8월 31일
국립민속박물관

August 31, 1946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026

경상남도 상무관
Sangmu Hall

1965년 12월 20일
창원향토자료전시관

December 20, 1965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27

부산지방법원 제1법정동
Courthouse

1989년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

October 24, 1989
Busan District Court



028

무덕전
Mudeok Pavilion

2004





무덕전 벽면과 처마 Wall and Eaves



무덕전 입구 Entrance



무덕전 지붕 Roof



‘무덕’ 곱새기와 Roof Tile inscribed with ‘Mudeok’

미군정기 경남도청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해방 후 경남도청은 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1945년 9월 20일, 미군정에서 파견한 초대 도장관C. S. Harris이 부임했지만 급변하는 사회 현실은 행정 조직이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해방과 함께 몰려든 동포들로 인구는 급증했으나 식량과 주택 등 경제적 여건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치안은 불안정했고, 언어와 제도가 전혀 다른 미군정 체제 아래 행정은 늘 혼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46년 여름에는 콜레라가 번져 경남 지역에서만 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과 시설은 크게 부족해 방역위원회는 무덕전에 교육생을 모아 잦은 훈련을 열며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in 1945,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faced unprecedented chaos. In Septemb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ppointed C. S. Harris as the first provincial governor, but the administrative system was overwhelmed. Repatriated Koreans flooded in, straining limited food and housing. Public order collapsed under unfamiliar American policies and language barriers. In the summer of 1946, a cholera epidemic struck, infecting over a thousand people in Gyeongsangnam-do alone. With medical staff and facilities critically short, the quarantine committee could only gather trainees at Mudeok Hall for emergency training. The provincial office became a frontline not just of governance, but of survival.

029

경상남도 청사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46년 6월 2일
국립민속박물관

June 2, 1946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030

경남도청 앞에 게양된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현수막
Banner on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celebrating U.S. Independence Day

1946년 7월 4일 July 4, 1946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미군정기, 도청 정면에는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날을 축복祝福하여 우리도 독립獨立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During the U.S. military occupation, the banners hung across the front of the provincial office to mark America’s Independence Day on July 4. What made it striking was the message printed on it: “*Let us celebrate this day—and let us win our own independence as well.*”





031

광복 1주년 기념 한국 경찰대의 행진
Korean Police Parade Celebrating the First Anniversary of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1946년 8월 15일 August 15, 1946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032

경상남도 방역위원회 교육생 기념촬영
Group Portrait of Trainees from the Provincial Epidemic Prevention Committee in Gyeongsangnam-do

1946년 8월 31일 August 31, 1946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무덕전 정문 앞에서 경상남도 방역위원회가 주최한 전염병 방재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현판에는 “전염병과 싸우는 투사가 되자, 전염병 예방에 비협력자는 민족의 적”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당시 콜레라가 전국을 강타함에 따라 방역 활동이 단순한 위생 차원을 넘어 민족의 과제로 강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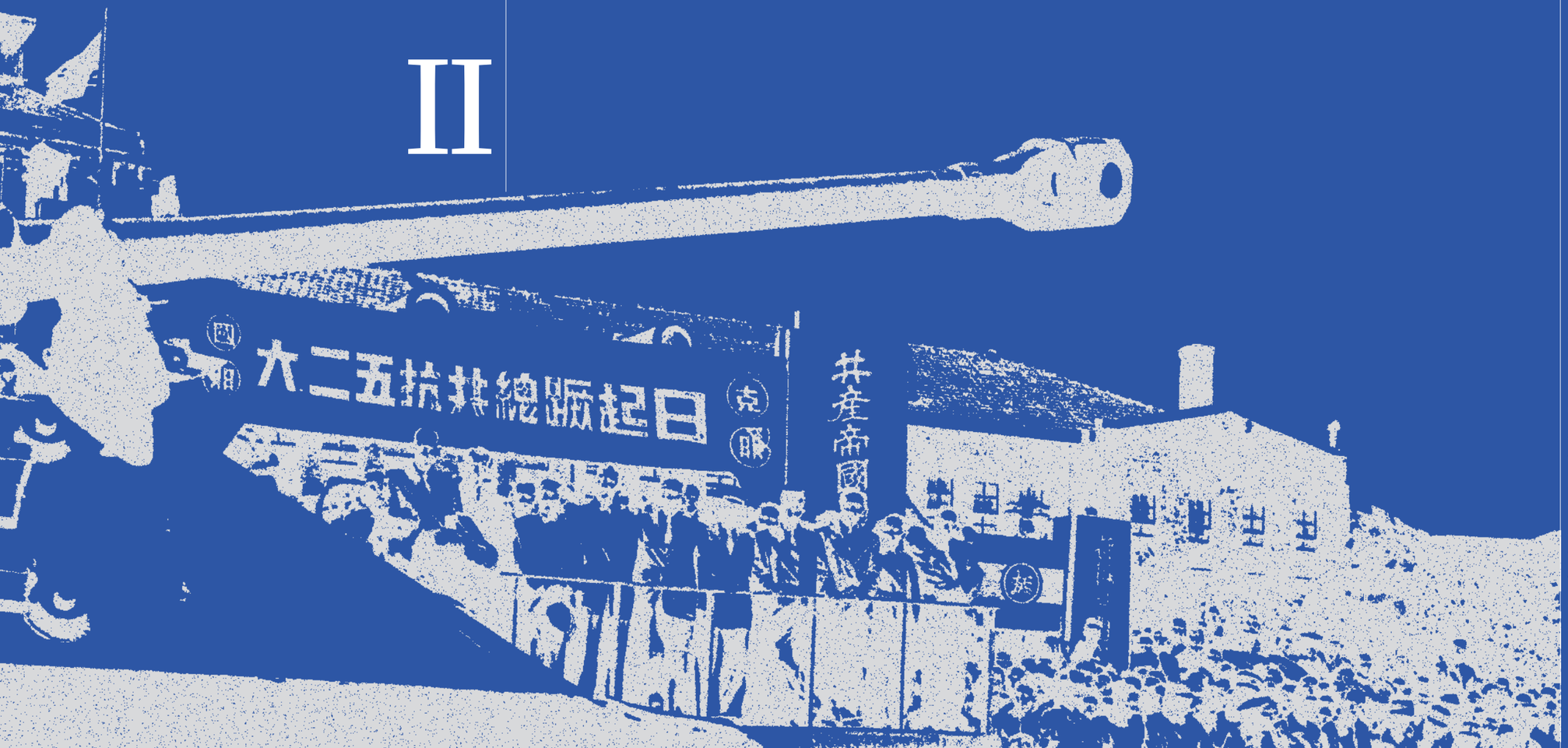
This photograph shows trainees gathered in front of Mudeok Hall after completing an epidemic prevention course run by the Gyeongsangnam-do Quarantine Committee. Hanging above them is a banner that declares: “*Be a fighter against epidemics—those who refuse to cooperate in prevention are enemies of the nation.*”

전쟁 속 나라의 중심
(임시 중앙청, 1950–1953)

The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II

1950년 8월, 전황이 급격히 나빠지자 정부는 미국 국무부의 권고에 따라 부산을 임시수도로 정했습니다. 경상남도 청사는 하루아침에 '임시 중앙청'으로 바뀌었고, 도청과 중앙청은 더부살이하듯 공간을 나누어 써야 했습니다. 도지사실은 국무총리실로, 복도마다 임시 사무실이 들어서며 건물은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해졌습니다. 낮에는 전쟁 행과 국가 재건을 위한 지시가 오갔고, 밤이면 전보음과 타자기 소리가 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사 일대는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거나 시민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사건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외교나 문화 행사의 무대로 변하며 전쟁 속 삶의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In August 1950, as the war turned dire, the government relocated to Busan following U.S. State Department advice.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became the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Office overnight. The two administrations shared the cramped building—the governor's office became the prime minister's, hallways filled with makeshift desks. Day and night, the building buzzed with orders for war operations and national reconstruction, telegraph signals and typewriter clatter never ceasing. Yet the site also witnessed political conflicts and failures to protect civilian safety. Still, it transformed into a stage for diplomatic receptions and cultural events, as people struggled to hold onto hope amid the war.

전쟁 속 나라의 중심,
임시 중앙청 1,025일

1950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생

정부, 임시수도를 수원으로 결정했으나 곧바로 취소

6월 27일~7월 16일, 대전을 임시수도로 지정하고 충청남도 청사에서 집무 수행 [20일]

7월 16일~8월 17일,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구로 수도를 이동하고 경상북도 청사에서 집무 수행 [33일]

1950년 8월 18일 부산을 임시수도로 결정, 정부는 경상남도 청사로 이전[1]

7월 21일부터 정부는 각 부처 파견실을 경상남도 청사에 배치해 원조물자 수송과 구호 대책 마련[2]

미국 국무부, 전쟁 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승만 정부에 부산으로 수도 이전 설득

1950년 10월 27일 정부환도 평양탈환 경축 및 유엔군 국군 환영대회 개최[3] (제1차 임시수도, ~10월 26일) [총 70일]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낙동강 방어선 돌파로 9월 28일에 서울 수복

10월 16일, 서울 환도 후 중앙청에서 정부 첫 조례 실시

1 「이승만 대통령, 정부 기관 부산 이전에 따른 성명 발표」, 《대구매일》, 1950. 8. 19.
2 「경상남도 도청에 정부 각 부처 파견관실을 설치」, 《부산일보》, 1950. 7. 22.
3 「오늘 국민대회, 정부환도·평양탈환 등을 경축」, 《서울신문》, 1950. 10. 27.

1951

1951년 1월 3일 중공군 참전으로 정부는 다시 수도의 부산 이전을 발표하며 경상남도 청사로 이전

1월 15일, 정부 각 부처는 부산 내 재배치 완료

1월, 정부의 군수 비리로 무고한 용사들이 희생당한 〈국민방위군 사건〉 발생

2월, 국군이 공산 게릴라 토벌 작전을 이유로 신원면 마을 주민을 학살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발생

6월 25일, 6·25 1주년 항공총궐기일 기념행사 개최

1951년 6월 27일 국회, 부산극장에서 경남도청 무덕전으로 이전

1950년 9월 1일, 국회는 문화극장으로 이전하여 본회의 실시 (~10월 6일)

1950년 10월 7일, 서울 수복에 따라 중앙청으로 이전 후 12월 8일 시민회관 별관으로 이전

1951년 1월 4일, 정부가 부산으로 이전하자 국회는 부산극장으로 이전(~6월 11일)

1952

1952년 5월 25일 이승만 정부, 계엄령을 선포하며 부산정치파동 발생 (~7월 7일)

6월, 정부의 비리로 전략물자였던 중석(텅스텐)을 불법 수출한 〈중석불 사건〉 발생

7월 4일 국회, 발췌 개헌안 통과, 6일 이승만 대통령 서명, 7일 공포

7월 10일 국회, 정·부의장 선거(국회의장 신익희, 부의장 조봉암·윤치영 당선)

8월 5일 정부, 제2대 정·부통령 선거(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함태영 당선)

1953

1953년 8월 15일 정부, 8·15 경축식에서 서울로 환도 공식 선언[4] (제2차 임시수도, ~8월 14일) [총 955일]

정부, 임시 중앙청 내 각 부처는 5월부터 서울로 순차적으로 환도하여 6월 30일자로 완료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

8월 31일, 국회는 서울로 환도 선언

4 「정부 정식 환도, 8·15 기념식전서 선포호」, 《서울신문》, 1953. 8. 14.

낯선 도시, 새로운 수도

An Unfamiliar City, a New Capital

1950년 6월 25일 저녁 7시, 북한의 남침 소식이 경상남도청 도지사 집무실로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도시는 단숨에 비상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피란민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며 부산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8월 18일, 정부가 경상남도 청사로 옮겨오자 건물 안에는 낯선 서울말과 외국어가 뒤섞였고, 부산항에는 유엔군 구호품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절망의 전쟁 속에서도 부산은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 붉은 벽돌 건물은 '새로운 수도'라는 운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At 7 p.m. on June 25, 1950, news of North Korea's invasion reached the Governor's Office at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An emergency meeting convened immediately, and the city swiftly entered a state of emergency. From the following day, endless streams of refugees poured in, and Busan's streets overflowed with people. On August 18, when the government relocated to the Provincial Office, unfamiliar Seoul dialects and foreign languages mingled within the building, while UN relief supplies flowed ceaselessly through Busan Port. Even in the depths of a desperate war, Busan remained the nation's last bastion. This red-brick building stood at the threshold of its destiny as the "*new capital*."



임시수도 부산의 국가 기관 지도

Map of Government Offices in Busan, the Provisional Capital

1951년 1월 15일 기준



임시수도 부산의 국가 기관 현황 [전쟁 전 : 전쟁 중]

- 경남도청 :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무회의소, 대통령비서실, 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내무부비서실, 관재청,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 무덕전 : 국회의사당 (1951년 6월 27일~1953년 8월 31일)
- 부산지방법원 : 대법원, 서울고등·지방법원,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 경상남도 지사 관사 : 경무대
- 남선전기 : 상공부
- 부산사세청 : 재무부
- 부산우체국 : 체신부
- 부산지방기상청 : 국립중앙관상대
- 미국문화원
- 국립지방관상대 : 부산지방기상청
- 부산극장 : 국회의사당 (1951년 1월 4일~6월 11일)
- 문화극장 : 국회의사당 (1950년 9월 1일~10월 6일)
- 부산시청 : 사회부, 문교부, 보건부, 심계원, 고시원, 감찰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제 연대의 현장

The Sit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임시 중앙청은 국제 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곳에서 유엔사절단을 비롯해 각국 특사를 맞아 전황을 설명하고 국제 지원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남겨진 접견 사진과 외교 문서는 국제 사회의 시선이 어떻게 임시 중앙청으로 모였는지 보여줍니다. 붉은 벽돌 건물 안에서 오가던 협상과 서명은 한국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장면이자, 임시수도 부산을 국제 연대의 출발점으로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The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in Busan stood as a vital stage for wartime diplomacy. Here the Korean government received UN missions and foreign envoys, briefing them on the course of the war and seeking support. Photographs and documents show how the world's attention turned to this red-brick building, where negotiations and signatures shaped the war's course and marked the temporary capital as a starting point of international solidarity.



033

경상남도 청사 앞에서 유엔 한국위원회 대표단 영접
Rece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1950년 7월 1일
UN PHOTO

July 1, 1950
UN PHOTO

1948년에 설립된 유엔 한국위원회 대표단 카밀 이딜 박사Dr. Kamil Idil가 경상남도 지사 양성봉추정의 영접을 받는 장면입니다. 한국전쟁 발생 직후, 정부 관계자와 만나 전황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입니다.

Dr. Kamil Idil of Turkey, a delegate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est. 1948), is received by the Gyeongsangnam-do Governor. In the war's opening weeks, the Commission met Korean officials to assess the crisis and coordinate aid.



034

허정 국무총리 서리의 유엔 고위 간부와 담화
Acting Prime Minister Heo Jeong in talks with senior UN officials

1951년 1951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허정 국무총리 서리(1951. 11. 6.~1952. 4. 9. 재임)는 총리실에서 유엔 고위 간부를 잇달아 접견하며, 건국 이후 계속 추진해 온 유엔 정식 회원국 가입 문제와 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는 해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 외교의 최전선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힘썼습니다.

Acting Prime Minister Heo Jeong received senior UN officials at his office, pressing for South Korea's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and support in resolving the war. With his international experience, he stood at the front line of wartime diplomacy to secure global backing for the young republic.



① 유엔 한국부흥위원회 사무국장과 공보국장 간 담화



② 유엔 한국부흥위원회 파키스탄 대표와 공보국장 간 담화





❶ 장택상 국회부의장 ❷ 신익희 국회의장



임시 중앙청에서 열린 부산 기자단 회견

035

코디어 유엔 사무총장 보좌관 중앙청 일대 방문
UN's official Cordier Visits the Central Government Complex

1952년 3월 14일 March 14, 1952
UN PHOTO UN PHOTO

유엔 행정보좌관 코디어Andrew W. Cordier가 임시 중앙청과 국회의사당을 찾아 인사와 연설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엔군과 주요 기관을 두루 시찰하며 정전 협상의 동향을 살폈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다졌습니다. 통일 방법에 대해 코디어는 부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명예로운 방식의 정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한 "완전 통일" 주장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Andrew W. Cordier, Executive Assistant to the UN Secretary-General, visited the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Building and Temporary National Assembly and met with ROK leaders. He reviewed the armistice talks, strengthened cooperation, and told the local press that "an honorable armistice is possible," a remark seen as countering President Rhee's call for "complete unification."






036

한미경제조정협정(마이어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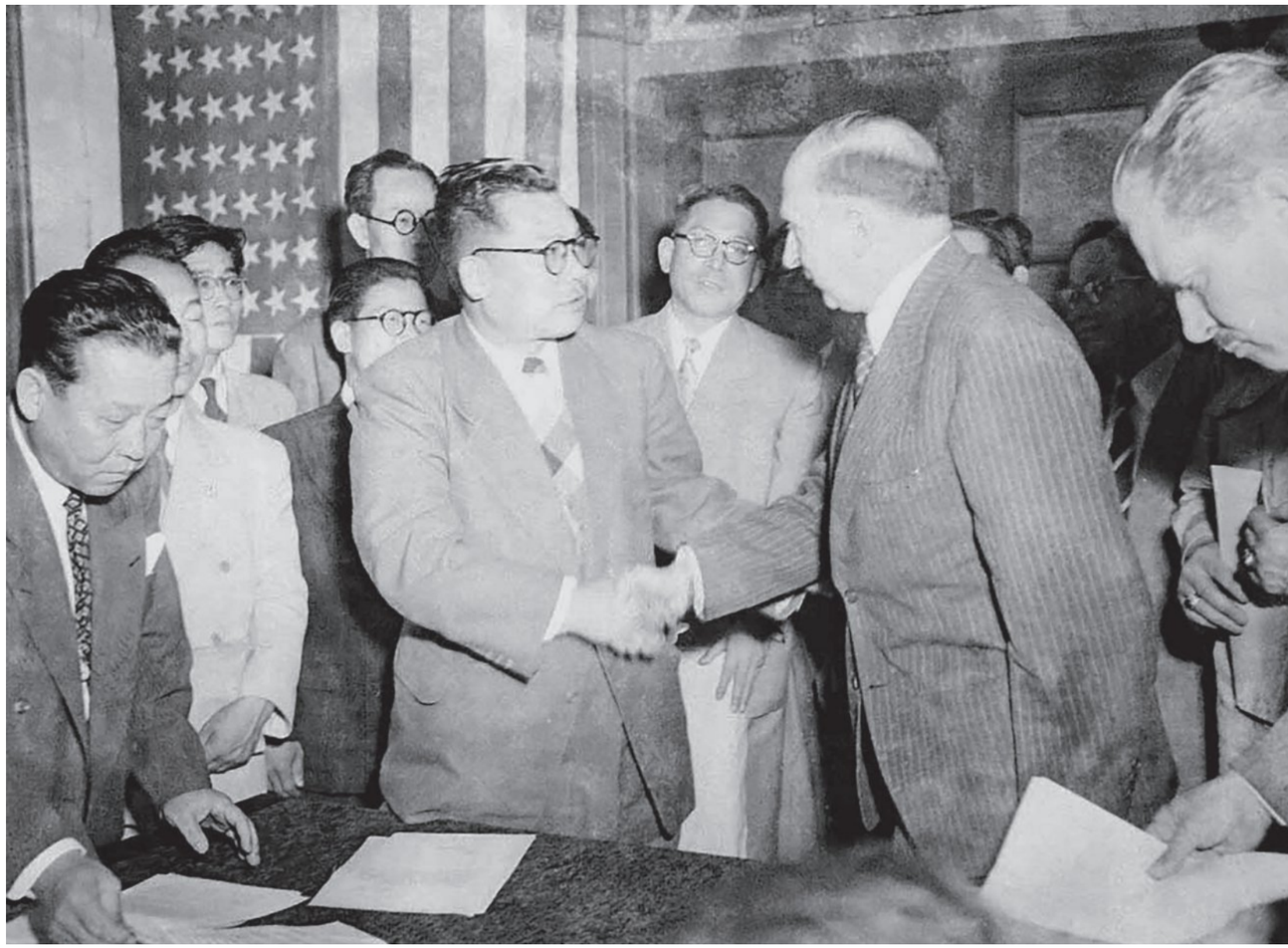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Command

1952년 5월 24일 May 24, 1952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4월 14일부터 시작된 한미 간의 협상은 한 달이 넘는 논의를 거쳐 5월 24일 임시 중앙청 국무회의실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 특별사절단 단장 마이어Clarence E. Meyer와 백두진 재무장관이 체결한 한미경제조정협정은 유엔 한국군 대여금 상환을 전제로 했던 우리 정부 요구와 달리, 미국 측에서 경제 안정 정책의 실행을 협정의 선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타결된 것이었습니다. 협정에서는 양국이 합동경제위원회 설치, 외환·원화 운용 조정, 물자 지원 기준 등을 정하면서 전시 경제와 민생 안정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Talks opened on April 14, 1952 and, after more than a month, concluded on May 24 in Busan with the signing of the "*Meyer Agreement*" by Special Envoy Clarence E. Meyer and Finance Minister Baek Du-jin. The accord created a Combined Economic Board, linked reimbursement for UN Command won drawings and continued aid to the ROK's stabilization measures, and set rules for foreign exchange, currency management, and the handling of aid supplies—establishing the wartime framework for economic management and civilian relief.

* 한미경제조정협정 조인식 영상('리버티 뉴스 제3-01호')은 이번 전시 기간(2025. 10. 21.~11. 30.) 동안 전시실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 The film of the Korea–U.S. Economic Coordination Agreement signing is included in Liberty News No. 3-01 and will be presented to the public in the gallery only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October 21~November 30, 2025).



중앙청 정문 앞에서 멈춘 버스

The Bus that Stopped at the Government Gate

1952년 5월 25일 아침, 임시 중앙청 앞 통근버스 안에서 국회의원 47명이 헌병대와 대치하다 크레인으로 연행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이 장면은 '부산정치파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으로 흔들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직선제 개헌을 강행하려 했고, 이를 위해 국회를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국회 해산 시위, 미국의 개입, 발췌 개헌안 통과, 대통령 재선으로 이어진 과정은 전시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On the morning of May 25, 1952, forty-seven lawmakers, trapped in a commuter bus outside the Temporary Central Government, were lifted away by crane after a standoff with military police, which means a defining image of the Busan Political Crisis. With his term ending, President Rhee Syngman pressed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What followed: martial law on May 25, mass "*dissolve the anti-National Assembly*" rallies on June 23–24, passage of the July 4 amendment, and his re-election on August 15, all laid bare the limits of democracy under wartime rule.



037

검문에 불응하는 국회의원
Lawmakers refusing to comply with a military police checkpoint inspection

1952년 5월 25일 May 25, 1952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부산정치파동 연대표

Timeline of the Busan Political Crisis

1952년 1~2월

정부, 국민방위군 사건·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국회 조사 후, 신뢰 추락



1952년 4~5월

정부, 백골단·땃벌떼 등 비밀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소환·국회 해산 압박



1952년 5월 25일

정부, 0시 계엄령 선포 뒤
국회의원을 태운 버스의 강제 연행 사건 발생



1952년 6월 23일

국회, 대통령 임기 관계자 회의 실시
여당 주도로 8월 15일에 시작하는 결의안 통과



1952년 6월 24일

각 도 지방의원, 국회 해산 요구 시위





1952년 7월 4일

국회 발췌 개헌안, 거수와 기립표결로 통과
166명 중 찬성 163명, 기권 3명
7월 7일, 헌법 공포에 따라 부산정치파동 종료





038

지방도의원 철야 데모
Overnight sit-in protest by provincial

1952년 6월 24일 June 24, 1952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039

국회 해산 요구 시위
Protest demanding the dis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1952년 6월 June 1952
UN PHOTO UN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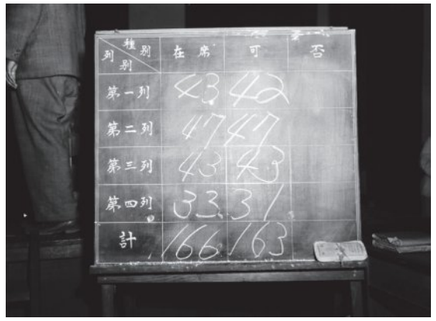
정부는 미뤄오던 지방 도의원 선거를 1952년 4월 25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치렀습니다. 이는 기세가 오른 국회의 권위를 누그러뜨리려는 이승만 정부의 의도였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지지 세력이 장악한 지방의회는 계엄령 선포 뒤 밤샘 시위를 벌이며 국회 해산과 총선거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민의의 목소리'로 내세워 실제 국회 해산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In the spring of 1952, President Rhee Syngman moved to weaken a defiant National Assembly by reviving long-delayed provincial assembly elections. With Rhee's supporters dominating the new local councils, they staged all-night demonstrations, demanding the dissolution of the Assembly and new national elections. Rhee seized on these protests as the 'voice of the people' to justify dissolving the legislature, but the U.S. government intervention forced him to abandon the attempt.









040

발췌 개헌 투표 장면
Scene of the vote on the 1952 Constitutional Amendment

1952년 7월 4일 July 4, 1952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52년 7월 4일, 임시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발췌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안에서 필요한 조항만을 발췌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6·25 기념식에서 민국당 당원이 일으킨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은 야당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고, 결국 의원들은 개헌 표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4일 밤 8시에 열린 본회의는 거수와 기립으로 표결이 진행되어 1시간 35분 만에 개헌안을 가결했는데, 166명 중 163명이 찬성하고 3명은 기권, 반대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이 개헌은 불과 한 달 뒤, 제2대 정·부통령 선거로 이어졌습니다.

On July 4, 1952, Korea's first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passed at the Temporary National Assembly. The so-called "*Extractive Amendment*," built around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was adopted under heavy pressure after an assassination attempt on President Rhee Syngman had weakened the opposition. That evening the bill was rushed through in ninety-five minutes, with 163 votes in favor, 3 abstentions, and none against. In effect, it opened the path to Rhee's re-election, realized a month later.

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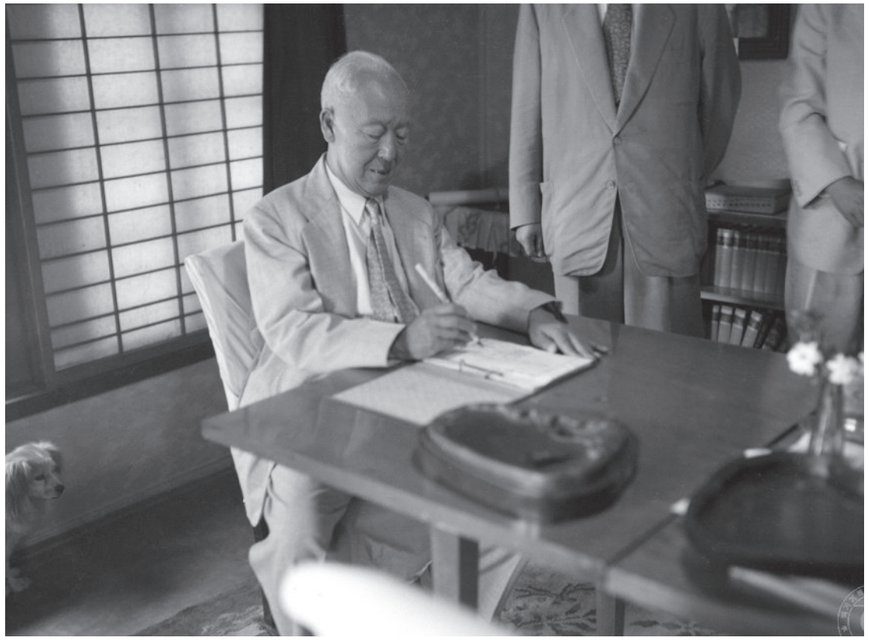
발췌 개헌안 서명
Scene from the Plebiscite on the 1952 Constitutional Amendment

1952년 7월 6일 July 6, 1952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된 뒤, 이승만 대통령은 발췌 개헌안에 서명하며 자신을 지지한 지방 의원들에게 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부산 정치파동은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입법부를 압박하고 군·경찰 병력을 동원한 한국 정치사의 첫 선례였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이 개헌 과정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강행이었고,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The Busan Political Crisis was the first moment when a Korean president used force to bend the legislature to his will. In wartime, Rhee Syngman pushed through the "*Extractive Amendment*" to secure his re-election, then signed it before local allies. The episode revealed how fragile democracy remained, as power outweighed procedure under the strain of war.





붉은 벽돌 아래 낮과 밤

Days and Nights Beneath the Red Bricks

낮이면 청사 안은 쉼 없는 발걸음과 타자기 소리로 분주했습니다. 피란민 구호와 전염병 방역, 항만과 도로 복구, 임시 주택 건설까지 전시 수도의 행정은 일상의 재건을 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마다 불빛이 꺼질 줄 몰랐고, 전화와 전보는 부산을 세계와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부처가 뒤엉켜 지냈지만, 붉은 벽돌 건물은 그 모든 혼란과 희망, 좌절과 분투를 고스란히 품은 채 나라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Inside the temporary capital, the building never truly slept. By day, the corridors echoed with footsteps and typewriters as officials struggled to feed refugees, fight disease, rebuild ports and roads, and raise makeshift housing. By night, its windows still glowed, while telephones and cables linked Busan across the front lines to the wider world. Though ministries crowded together in cramped rooms, the red-brick walls absorbed the chaos and hope alike, standing as a pillar that helped the nation endure.

042

김성수 부통령 취임 후 정부 인사 간 담화
Conversa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1951년 5월 18일
국가기록원

May 18, 1951
National Archives of Korea



❶ 김성수 부통령
❷ 김병로 대법원장
❸ 장면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043

허정 국무총리 서리 전사 편찬 표창
Acting Prime Minister Heo Jeong Commends the Compilation of War History

1951년 11월 29일
국가기록원

November 29, 1951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방부장관실 | Office of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044

이철원 공보처장, 각 도 공보실장 회의 주재
Director Yi Cheol-won Chairs Meeting of Provincial Public Information Officers

1951년 2월 23일
국가기록원

February 23, 1951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무회의실 | Cabinet Meeting Room

045

경상남도 의회 개막
The First Gathering of the Gyeongsangnam-do Assembly

1952년 5월 20일
국가기록원

May 20, 1952
National Archives of Korea



대회의실 | Main Conference Room

칼럼 3

임시 중앙청: 전쟁과 일상의 교차

Wartime Busan: Between War and Everyday Life

김수경·남승덕
동아대학교 학예연구과

전쟁은 도시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은 단숨에 '임시수도'라는 운명을 짊어졌다. 붉은 벽돌 건물은 '임시 중앙청'으로 불리며 피란 정부의 심장부가 되었고, 경남도청 직원과 서울에서 내려온 관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뒤섞어 근무해야 했다. 기대와 불만이 뒤섞인 긴장된 분위기는 1953년 8월 서울로 전부 환도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 건물 안에서 오간 것은 정치와 외교의 중대사만이 아니었다. 낯선 서울말이 오가던 복도, 책상과 의자가 빼곡히 들어선 '돗데기 사무실', 그리고 불안을 안고도 일상을 이어가던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두 이곳의 기록이 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임시 중앙청 안에서 교차한 전쟁과 일상의 풍경을 되짚어본다.

1. 돗데기 사무실: 곁방살이의 이중 현실

임시 중앙청은 한국전쟁 동안 행정의 중심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피란 관료의 임시 거처이기도 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은 숙소를 구하지 못해 청사 2층 빈 사



사진 1 도지사 회의 자료 제공: 국가기록원

무실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했고, 사무와 주거가 뒤엉킨 이중적 공간은 피란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좁은 공간 속에서 도청 직원과 중앙청 직원은 사무실 배치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도지사실은 국무총리실로, 도지사 여사실은 부통령실로 바뀌었으며, 장차관들은 넓은 방을 차지했다(사진 1). 밀려난 도청 부서는 열악한 공간에서 서류 더미를 사이에 두고 업무를 나누는 등 '돗데기 시장'을 방불케 했다.[1] 서울에서 내려온 관료들은 이곳을 중앙정부의 연장으로 여기며 서울말을 사용했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 도청 직원들은 소외와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긴박한 전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공간적·문화적 충돌은 일상의 갈등으로 종종 나타났다.

2. 장관 실례 하오: 도난과 혼란의 일상화

임시 중앙청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그 중 가장 흔한 일은 도난이나 시설 훼손이었다. 전쟁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은 관공서 물자까지 손을 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물품을 지키거나 차지하려는 경쟁도 있었다. 해방 전후 당시 쓰이던 유행어인 '얌생이(좀도둑)'가 청사 안을 자유롭게 드나든 셈이다. 특히 1952년에는 부서 곳곳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사라지는 일이 잦았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종결된 사건이 많았다. 이는 밤에도 민간인이 자유롭게 청사를 드나들 수 있었던 허술한 환경이 한몫했다.[2] 심지어 법무

1 「피란살이 삼년의 발자취(2) 관청편」, 《동아일보》, 1953. 7. 15.
2 「도난사태난 도청」, 《부산일보》, 1952. 3. 23.

> **"장관 실례 하오"**
>
> **법무장관실 양탄자를 슬쩍**
>
> 도적질할 것이 그렇게도 없었던지 하필이면 법을 다스리는 최고당국인 법무부의 장관실과 차관실에서 양탄자를 훔치다가 철창 신세가 된 사나이가 있다. 즉, 지난 14일 임시수도 부산에 있는 임시 중앙청 법무부 장관실과 동 차관실에서는 양탄자를 감쪽같이 도둑을 맞았는데 경찰에서 절취범을 체포하고 보니 범인은 아편중독자로서 전에 경상남도청 촉탁까지 지낸 경력을 가진 대구시 남산동에 거주하는 ○○○라고 한다.



사진 2 장관 실례 하오

부 장관실과 차관실에서 양탄자가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져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사진 2).[3]

3. 서울병: 권력의 상징

임시 중앙청은 정국의 혼란 속에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부산 시민과 피란민에게 이 붉은 벽돌 건물은 '서울 중앙청'에 견줄 만한 위엄을 지녔으며, 그곳을 드나드는 이들은 자신을 국정의 중심에 서 있다고 여기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면 서울로 상경해 출세하겠다는 이른바 '서울병' 현상도 이 시기에 나타났다.[4] 도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의 권력 질서를 모방하거나 동경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중앙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영예로 여겨 그 인맥과 경험을 발판으로 전쟁 이후 중앙 무대로 진출하려는 야망이 번져 나갔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인사들은 전쟁 현실과 동떨어진 특권 의식을 보이기도 했다. 1952년 여름, 대한청년단 단원들이 청사 정문에서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의 출입자를 검문하며 '전쟁 생활에 맞는 차림'을 권고하는 일이 있었다(사진 3). 열흘 남짓 단속 기간 동안 내무부·외무부 등 중앙청 소속 직원들과 방문자들 수십 명이 지적을 받았는데, 특히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어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단속 여성 대원을 붙잡고 '개인의 자유'라고 고함을 지르기까지 해 물의를 빚었다고 한다.[5]

1953년 6월, 휴전 협상이 무르익자 중앙 정부 부처는 차례로 서울로 환도했다. 남아 있는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으며 잡담과 함께 서울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시끌벅적했던 중앙청 사무실은 한산해졌고, 서울말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다.

임시 중앙청은 전쟁 동안 대한민국의 행정을 떠받치던 공간이자, 수많은 이야기가 뒤엉킨 생활의 현장이었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업무를 나누던 풍경, 장관실 양탄자마저 사라지던 해프닝, 그리고 밤마다 창문에 꺼지지 않던 불빛까지, 모두가 전쟁 속 일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삶을 이어갔고, '임시수도'라는 이름은 권력의 상징이자 출세의 욕망을 품은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사진 3 임시 중앙청 정문 자료 제공: 국가기록원

3 「장관실례하오」, 《조선일보》, 1952. 7. 17.
4 「요지경」, 《부산일보》, 1953. 9. 18.
5 「누구가 사치스럽나? 중앙청 정문에 권고반」, 《부산일보》, 1952. 7. 13.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경상남도청, 1953-1983)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1953-1983)

1953년 정부가 서울로 환도한 뒤에도 붉은 벽돌 청사는 여전히 행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상남도청은 전쟁의 상처를 수습하며 공동의 번영을 향해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이주민으로 여전히 북적였지만, 도청은 도로와 항만 복구, 주택 공급, 산업 기반 확충과 같은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며 지역의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었습니다. 매년 도지사와 군수가 모여 농업 생산량을 점검했고, 연말에 열린 증산왕 대관식은 농민의 성취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1963년 1월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도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마침내 1983년 경남도청은 창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58년 3개월 동안 이어진 부산 도정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III

Even after the government returned to Seoul in 1953, the red-brick building remained the administrative heart of the region.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worked tirelessly toward shared prosperity, tackling postwar challenges: restoring roads and ports, providing housing, and rebuilding industry. Yet the most essential task was ensuring that everyone could eat well and live well. Each year, the governor and county heads gathered to review agricultural output, and the year-end '*King of Production*' ceremony honored farmers' achievements and pride. When Busan was elevated to a directly governed city in January 1963, discussions about relocating the provincial office began in earnest. In 1983, the office finally moved to Changwon, closing 58 years and 3 months of administrative history in Busan.

도청의 일상

The Daily Life of the Provincial Office

경상남도청의 일상은 수많은 회의와 결재, 민원 처리로 이어졌습니다. 복도와 사무실에는 서류와 발걸음으로 가득했고, 도지사와 국장들이 모여 농업·산업·치안 등 각종 정책을 논의하는 모습은 전후 행정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 정면에 걸린 도정道政 현판은 행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시대마다 다른 정치 기조와 시대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The red-brick provincial office became the stage of postwar governance. Inside, hallways and offices buzzed with paperwork and the constant shuffle of footsteps as governors debated agriculture, industry, and public security. These daily routines captured the essence of administration in a nation struggling to rebuild. On the façade, the large "*Provincial Administration*" plaque projected authority while reflecting the shifting political mood of each era.



046

1982년 경상남도 청사 [제63회 전국체육대회]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82

1982년 10월 October 1982
창원향토자료전시관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47

1967년 경상남도 청사 [증산, 수출, 건설]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67

1967년 7월 25일 July 25, 1967
창원향토자료전시관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48

1975년 경상남도 청사 [꼭 잘 살아야겠다]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75

1975년 5월 May 1975
창원향토자료전시관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49

도지사 업무 보고와 회의 장면
Governor's briefing and administrative meeting

1966년 3월 March 1966
창원향토자료전시관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 김규진 경상남도 지사 (1957. 3. 1. ~ 1959. 11. 23. 재임)

050

터키 국회의장, 경상남도청 방문 기념 촬영
Turkish National Assembly visiting the Provincial Office

1959년 9월 19일 September 19, 1959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증산왕 대관식

King of Production Ceremony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농업 생산을 국가 재건의 토대로 삼고, 영농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연말이면 전국 도청에서 '증산왕 대관식'을 열었습니다. 쌀·보리·고구마 등 분야별로 가장 많은 수확을 올린 농민은 '증산왕'으로 뽑혀 왕관과 어깨띠를 받았고, 뒤이어 열린 다채로운 시위행진으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열정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1964년 경남도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처음 열린 대관식은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대강당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였습니다. 수상한 농민들은 축하 차량에 올라 구덕로를 따라 가두 행진을 벌이며 환호를 받았습니다.

In the 1960s, South Korea celebrated agriculture as the foundation of national recovery, staging the annual '*King of Production*' ceremony at every provincial office. Farmers who achieved the highest yields of rice, barley, or sweet potatoes were crowned with a sash and a crown, turning their labor into a symbol of state success. In 1964, Gyeongsangnam-do held the event at Dong-A University's Gudeok Campus auditorium, where the honorees rode in parade cars along Gudeok-ro to the cheers of onlookers.



051

나무 명패
Wooden nameplate

1968년	1968
30.0×14.6×13.0cm	30.0×14.6×13.0cm
이종길 기증	Donated by Lee Jong-gil

1960년대 경상남도에서 식량 증산은 농업 행정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도지사부터 군수들이 함께 모여 군별로 지난 해의 성과를 순위로 평가하고, 다음 해의 목표를 나무 명패에 적어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In the 1960s, grain production was the cornerstone of Gyeongsangnam-do's agricultural policy. The governor and county magistrates reviewed the previous year's results and set new targets, recording them on wooden nameplates.



052

증산왕 대관식 현판
King of Production Ceremony Banner

1965년 12월 20일	December 20, 1965
창원향토자료전시관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경남도청 정문을 지나던 이들이 마주했을 '증산왕 대관식' 현판입니다. 중앙에는 벼와 보리 부문 수상자 명단이, 양 옆에는 '식량 증산으로 자급자족 이룩하자', '경영 방식 혁신하여 식량 증산 이룩하자'라는 표어가 적혀 있습니다. 농업 생산이 곧 생존이었던 시절, 이 현판은 희망이자 독려였습니다.

This placard for the '*King of Production*' ceremony greeted visitors passing through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s main gate. Award recipients in rice and barley are listed centrally, with slogans. In an era when agricultural output meant survival, this placard served as both hope and exhortation.

053

증산왕 대관식 거리 행렬
Street parade for the ‘King of Production’ ceremony

1965년 12월 20일 December 20, 1965
창원향토자료전시관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54

증산왕 대관식 (02:36–03:24)
Video Clip: ‘King of Production’ ceremony (02:36-03:24)

1964년 12월 5일 December 5, 1964
대한뉴스 제497호 The Korean News No. 497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전국 최초의 증산왕 대관식은 동아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쌀 부문 조용안, 보리 부문 김선오, 고구마 부문 심호섭—이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왕관이 씌워지는 순간, 농민은 단순한 생산자가 아닌 ‘왕’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일권의 축사가 끝난 뒤, 증산왕들은 구덕로를 따라 거리 행진에 나섰고 시민들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The nation’s first ‘*King of Production*’ ceremony was held at Dong-A University’s main auditorium. Winners were selected across three categories: rice, barley, and sweet potatoes. Prime Minister Jeong Il-kwon delivered the congratulatory address.

* 본 영상은 제공 기관의 사정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 This video may be unavailable without prior notice depending on the provider’s circumstances.

붉은 벽돌 청사를 떠나며: 경남도청의 창원 이전

Leaving the Red Bricks: The End of a Provincial Era

1963년 1월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도청 이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주와 마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가 경남의 새 중심이 되고자 했으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 중화학 공업 신도시로 성장하던 창원이 선택되었습니다. 1983년 6월 21일부터 이삿짐 수송이 시작되었고, 30일에 마지막 고별식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해에 지어진 이 건물은 해방과 전쟁, 재건과 번영을 지켜보며 58년 3개월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붉은 벽돌 청사는 다음 장을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With Busan's elevation to metropolitan city status in January 1963, relocating the provincial office became inevitable. Several cities including Jinju and Masan sought to become Gyeongsangnam-do's new center, but Changwon, rising as a heavy and chemical industry hub unde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was chosen. Moving began on June 21, 1983. On the 30th, the final farewell ceremony took place. Constructed during the year of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building had stood for 58 years and three months, witnessing liberation, war, reconstruction, and prosperity. The red-brick building was now ready to open its next chapter.

055

도청 이전 고별 기념 촬영
The Farewell of Busan's Provincial Office

1983년 6월 30일 June 30, 1983
김종부 기증 Donated by Kim Jong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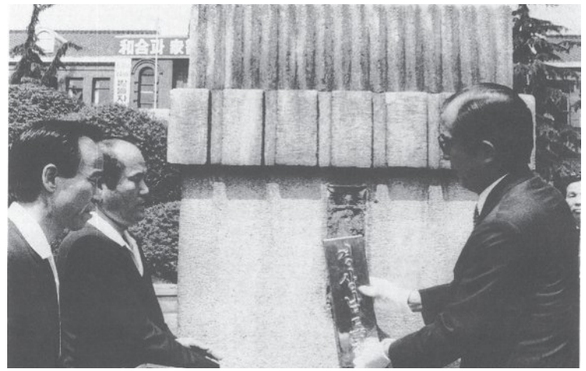


❶ 이규효 경상남도 지사
Lee Gyuhyo, Governor of Gyeongsangnam-do
❷ 최종호 부산직할시장
Choi Jongho,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056

도청 이전 모습
Moving Day of the Provincial Office

1983년 6월 30일 June 30, 1983
『경상남도백년』 발췌 Excerpt from *Gyeongsangnam-do Centennial*



경상남도청 현판을 내리는 이규효 지사
Governor Lee Gyuhyo lowering
the provincial office nameplate



붉은 벽돌 건물을 떠나는 경상남도 지사 차량
The governor's car departing
the red-brick building



마지막 이삿짐 수송
The final convoy of moving trucks

구술 1

도청 안에 머문 추억담

Personal Memories inside the Provincial Office

붉은 벽돌 청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서류를 안고 오가던 발걸음, 도지사의 일정이 빼곡히 적힌 수첩, 전화기를 붙잡고 분주히 일하던 모습들이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시절을 보낸 사람 몇몇은 여전히 이곳을 찾아와 자신의 기억을 나눕니다. 그들의 추억담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붉은 벽돌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줍니다.

건물 자체가 웅장하지 않습니까?

차에 내려 도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장 어찌 보면 촌놈 아닙니까!
어떻게 적응하면 될까? 참 고민이 많았죠!
건물 보는 순간 와! 건물 자체가 웅장하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내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당시에는 도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김종부 (경상남도청 비서실 근무)

나 역시 공무원 되고 도청에 출장을 와보니까 붉은 벽돌 건물이 더욱 웅장하고 우러러 보였죠.

양해광 (경상남도 창원군청 근무)



자료 제공: 창원향토자료전시관

그런 비밀을 알려주면 안돼요.

1976년 12월 1일부로 도청에 들어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먼저 교환기 점검부터 시작했죠.
도지사가 어디에 통화했는지
그런 비밀을 가르쳐 주면 안되거든요.
그런 소리를 못한다고요.
밑에 있는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오늘 어디에 도지사가 신경을 쓰는 건지 말이죠.

김길연 (경상남도청 통신반 근무)



자료 제공: 국가기록원

경호원이 총을 탁!

기획실은 참 야근이 많았어요.
밤 10시~11시까지 일하고 젤 늦은 막차 버스를 탔죠.
그 때는 '연도순시'라고
연초에 대통령이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도정에 대해 보고를 받는 연례 행사가 있었어요.

기획실 옆에 상황실이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준비 다해가지고
도지사가 결과보고 하니까
마음 푹 놓고 라디오를 틀었죠.
근데 소리가 좀 컸던 모양이에요.
옆에서 경호원이 총을 탁! 총을 겨누고
문 열고 들어오니 숨이 멎을 정도로 엄청 놀랐죠!
다행히 상황을 보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갔어요.

정웅 (경상남도청 기획관리실 근무)

주머니에 늘 수첩이 두둑했지요.

비서는요. 수행비서는 특히 메모를 많이 해야 했어요.
도지사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을 못하면 이제 큰일나죠.
그러다 보니 일정이나 중요한 통계 수치 등
메모를 많이 해야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늘 수첩이 두둑했지요.

김종부 (경상남도청 비서실 근무)

도청에 들어가려면 자격시험을 쳤어요.

시군에 근무하다가 도청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격시험을 쳤어요.
지방과 지도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당시에는 새마을 사업이 중요해서



자료 제공: 정웅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오지나 주택 개발도 있었구요.
농촌에 초가집이 많았으니까요.
합격자가 열 명 정도였는데,
동기들끼리 아주 끈끈하게 지냈죠.
지금도 옛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정웅 (경상남도청 기획관리실 근무)

아직도 그 집이 기억나네요.

그 때는 회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막아 없어졌지만
보수천 주변 음식점에서 회포를 풀었죠.

김종부 (경상남도청 비서실 근무)

보수천 근처 쌍화차에 달걀 노른자 하나
딱 띄워주는 찻집이 있었어요.
월급 36,000원 하는 시절에 800원씩이라 해도,
그 때는 이렇게 마시는 게 최고로 좋았어요.

김길연 (경상남도청 통신반 근무)

도지사 관사 올라가는 곳에 옥 사장 선술집,
우리는 욕쟁이 할머니집이라고 불렀는데,
술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아직도 그 집이 기억나네요.

정웅 (경상남도청 기획관리실 근무)

법과 정의의 무대

(부산지방법원·검찰청, 1984–2001)

Busan District Court and Prosecution Service

(1984–2001)

IV



도청이 떠난 자리, 붉은 벽돌 건물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1984년 11월, 건물 왼편에 자리했던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이곳에 들어섰습니다. 복도에는 구두 소리가 울렸고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이어졌으며,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 사회를 뒤흔든 사건부터 개인의 작은 분쟁까지, 이곳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정의를 둘러싼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2001년 법원이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이 건물을 '법원'이라 부릅니다. 그 이름 속에는 법과 정의를 품었던 공간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After the provincial office departed, the red-brick building filled with people once more. In November 1984,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Prosecution Service moved in. Footsteps echoed through the corridors, papers rustled, and low voices in dark suits filled the space. Cases that shook society and small personal disputes alike unfolded here. On the stage of the courtroom, moments of justice accumulated layer by layer. Though the courts left in 2001, over two decades ago, people still call this building '*the courthouse*.' Within that name, the memory of a place that held law and justice continues to breathe vividly.

부산지방법원·검찰청

Busan District Court and Prosecution Service

1896년 동래부 동헌에 처음 설치된 부산재판소는 이 지역 근대 사법제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15년 12월, 지금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리에 2층 목조 청사를 세우며 '부산지방법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검사국을 함께 둔 이곳은 일제 식민 통치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습니다. 한국전쟁기에는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이 이곳으로 피란을 왔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법의 명맥은 이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붉은 벽돌 청사로 이전한 1984년부터 2001년까지, 법원과 검찰이 한 건물에 머물며 수많은 사람의 사연을 마주했습니다. 법정 밖 거리에 변호사 사무실이 줄지어 들어섰고, 이 일대는 '법조타운'으로 불리며 부산 사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Justice in Busan took root in 1896 and found its modern form in 1915, when the Busan District Court opened a two-story wooden building on the site of today's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Under Japanese rule it operated with its own Prosecution Service, later separating after liberation. During the Korean War, the Supreme and Seoul courts shared this space in exile. From 1984 to 2001 the court and prosecution occupied the red-brick former provincial hall, surrounded by law offices that formed a bustling '*legal town*'.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

1896

1. 20.경
부산재판소 동래부에 개소
* 부산 최초의 근대 재판소

8. 15.
부산항재판소 개소

1908

8. 1.
부산 구舊 재판소 개소

8. 1.
부산 구舊 재판소 검사국 개청



1909

10. 31.
일제의 사법권 강탈에 따른
대한제국 재판소 폐지

11. 1.
부산지방재판소 설치

11.1.
부산지방재판소 검사국 개청

1912

4. 1.
부산지방재판소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

4. 1.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 개칭

1915

12. 28.
서구 부민동 2가 5,
1번지 매수



1927

1927. 11. ~ 1958. 10. 8.
목조기와 2층 건물
신축 후 사용



1940

12.
노다이 사건 판결



1945

8.15.
광복

1948

6. 1.
부산지방심리원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

8. 2.
부산지방검찰청 개청
(1층 법원, 2층 검찰 사용)

1950

7. 1. ~ 10. 27.
1951. 1. 4. ~ 8. 14.
한국전쟁으로
대법원,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과
공동 사용

자료 제공
❶~❹ 부경근대사료연구소
❺~❼ 부산지방법원

1959

1960. 9. 12.
신축 건물에서 업무 개시

1959. 7. 2.
신축 건물 준공 및 이전
(지하 1층, 지상 4층)



1984

11. 1.
구舊 경상남도청 건물로 이전

10. 26.
구舊 경상남도청 건물로 이전



1987

9. 1.
부산고등법원 개원

9. 1.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검찰청 개원



1988

2. 22.
변호사 노무현
사건 판결

1989

2. 28.
부산고등법원 건물 신축
(지하 1층, 지상 6층)

10. 24.
동의대 사건 판결

2001

9. 29.
청사 이전
연제구 거제동 1500

9. 27.
청사 이전
연제구 거제동 1501

한 눈에 보는 정의의 공간

A Glimpse into the Spaces of Justice





3



4



6

❶ 고등법원(1989년 신축) High Court
❷ 변호사회관 Bar Association Hall
❸ 검찰 4별관(1978년 신축) Prosecution Annex 4
❹ 법원 민원상담실(1984년 신축) Court Civil Affairs Office
❺ 검찰 3별관(1976년 신축) Prosecution Annex 3
❻ 검찰 2별관(1970년 신축) Prosecution Annex 2
❼ 검찰 1별관(1967년 신축) Prosecution Annex 1
❽ 본관(지방법원, 지방검찰청)
Main Building (District Court & Prosecution Service)

057

부산지방법원·검찰청 전경
Exterior View of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Prosecution Service

1990년대 1990s
부산지방법원 Busan District Court





10



11



14



16

❾ 신관(지방법원, 지방검찰청, 1971년 신축)
New Building (District Court & Prosecution Service)
❿ 법원 2별관 Court Annex 2
⓫ 법원 제1법정동(1938년 신축)
Courtroom Building 1
⓬ 고등검찰청 High Prosecution Service
⓭ 법원 3별관(1977년 신축) Court Annex 3
⓮ 입찰법정동 Bidding Court Building
⓯ 검찰 7별관 Prosecution Annex 7
⓰ 검찰 6별관 Prosecution Annex 6

사건의 기록, 정의의 시간

Moments of Justice

붉은 벽돌 건물은 시대마다 다른 정의를 품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노다이 사건이 식민지 권력 아래 법의 침묵을 드러냈다면, 1980년대 변호사 노무현 사건과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 법의 의미를 다시 물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교차하던 순간들 속에서 이 건물은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시대를 기록해 왔습니다.

This red-brick building has carried many meanings of justice across the decades. The Nodai Incident under Japanese rule showed how the law could fall silent to colonial power, while the Roh Moo-Hyun and Dong-Eui University cases of the 1980s challenged that silence amid Korea's fight for democracy. Through each investigation and verdict, the building stood as a witness to how every generation sought to reclaim justice.

058

부산항일학생운동 기념탑

Busan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

2004년 설치　Established in 2004

1940년 11월 23일, 부산공설운동장(현재 구덕운동장)에서 제2회 경남학도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인 심판관 노다이乃台의 노골적인 편파 판정에 분노한 동래중학교 학생들은 "대한독립 만세" 구호를 외치며 시가 행진을 벌였고, 그의 관사를 습격하였습니다. 곧 경찰에 의해 150명이 넘는 학생이 연행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10여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식민지 차별에 맞선 이들의 외침은 부산 동래고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이 탑을 통해 오늘날 '노다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On November 23, 1940, during the 2nd Gyeongnam Student Games held at Busan Public Stadium (now Gudok Stadium), students from Dongnae Middle School protested the blatant bias of a Japanese referee named Nodai. Shouting "Korean independence," they marched through the streets and confronted the referee at his residence. More than 150 students were arrested, and over ten were sentenced to prison by the Busan District Court. Their voices against colonial discrimination are remembered today as the Nodai Incident.





059

33번 수인복을 입은 노무현 변호사

Roh Moo-Hyun, Attorney, in Prison Uniform No. 33

1988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1988
Roh Moo-Hyun Foundation

1987년 2월 7일, 고 박종철 추모회가 경찰에 의해 저지되자 노무현 변호사는 시민 500여 명과 함께 거리로 나서 집회를 세 차례 이끌었습니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석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장례 절차를 방해하고, 노동쟁의와 직접 관련 없이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에는 무려 99명의 변호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의 변호인단이었습니다.

On February 7, 1987, after police blocked a memorial for Park Jong-Cheol, attorney Roh Moo-Hyun led three on-the-spot marches with roughly 500 citizens. In August, amid the Daewoo Shipbuilding labor dispute, he was arrested and indicted for allegedly interfering with the funeral of Lee Seok-Gyu, with charges claiming involvement beyond the strike itself. Ninety-nine lawyers joined his defense, the largest legal team ever assembled at the Busan District Court.

060

동의대 재판 광경
The Courtroom Scene of the Dong-Eui University Trials

1989년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

October 24, 1989
Busan District Court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입시 부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시위 도중 사복 경찰관이 붙잡혀 학교 안으로 끌려가자, 경찰은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충돌 속에서 불이 나며 경찰관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의대 사건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충돌 가운데 하나로, 당시 사회가 감당해야 했던 깊은 균열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On May 3, 1989, students at Dong-Eui University in Busan occupied campus buildings, demanding an inquiry into admissions corruption. When a plainclothes officer was captured and taken inside, police stormed the site to rescue him. Amid the chaos, a fire broke out, claiming the lives of seven officers.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stands as one of the most tragic confrontations of Korea's democratization.







청사 속 일상
Everyday Life of the Red Bricks

061

식목일 행사
Arbor Day Event

1985년 4월 5일
부산지방법원

April 5, 1985
Busan District Court



062

국정감사
National Assembly Audit

1991년 9월 25일
부산지방법원

September 25, 1991
Busan District Court



063

부산지방법원 본관 견학
Elementary School Field Trip to the Busan District Court

1995년 1995
부산지방법원 Busan District Court





064

검찰직원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Computer Skills Competition for Prosecution Service Staff

1994년 9월 September 1994
부산지방검찰청 Busan Prosecution Service



법정을 채운 물건들
Objects from the Courtroom

065

법관 의자
Judge's Chairs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추정 Estimated 1970s-80s
65.0×56.5×133.5cm 65.0×56.5×133.5cm
이종길 기증 Donated by Lee Jong-Gil

이 의자들은 부산지방법원 제1법정동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붉은 천으로 감싼 좌석에는 '법원'의 휘장이 있고, 중앙의 재판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자리한 배석판사들이 사용했던 의자로 전해집니다.

These chairs were used in the main courtroom of the Busan District Court. They are believed to have been the seats of the associate judges, positioned on either side of the presiding judge at the bench.



066

법관 의자
Judge's Chairs

1998년 이후
67.0×58.0×138.0cm
부산고등법원 기증

After 1998
67.0×58.0×138.0cm
Donated by Busan High Court









067

부산지방법원 제1법정동 현판
Wooden Signboard of the First Court Building, Busan District Court

1980년대 1980s
32.0×171.0cm 32.0×171.0cm

묵직한 서체로 새겨진 나무 현판은 부산지방법원 제1법정동 입구에 걸려 있었던 자료입니다.

Carved in a bold hand, this wooden signboard once marked the entrance to the Courtroom Building No. 1





부산지방법원 제1법정동(1989년)
First Court Building, Busan District Court in 1989

칼럼 4

법관 의자에 깃든 시간의 흔적

Traces of Time in the Judge's Chair

이유경
동아대학교 학예연구과

1. 법관 의자와 한 시대의 제도

법관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다. 그것은 정의를 상징하면서 시대 정신이 응축된 물질적 증거이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걸쳐 기증받은 법관 의자들은 이러한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1] 박물관 건물이 1984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 의자들의 귀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한 세기를 관통하는 붉은 벽돌 건물 안에서 의자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며 심판되던 여러 순간을 묵묵히 지켜봤을 것이다. 본 칼럼은 같은 용도로 제작된 법관 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의자의 형태 차이와 법원 휘장의 변화를 통해 한국 사법제도의 물질문화적 변천사를 추적하고자 한다.

1 2024년에는 개인으로부터 법관 의자 2점, 서기 의자 1점을 기증받았고, 2025년에는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법관 의자 1점을 기증받았다.

2. 1971년과 1998년, 두 시대의 조형

법관 의자[2]의 형태는 대법원규칙의 개정과 함께 변화해 왔다. 1971년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에 첨부된 도면은 참나무를 주재료로 하되, 적색 모제품 융단으로 포장하고 스프링 방석을 사용하며, 목부 요소에는 조각을 새기고 등받이에 법원 마크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사진 1).[3]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각'이라는 장식적 요소다. 의자 다리 부분에 새겨진 조각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권위의 시각적 표현이었다. 곡선과 음영으로 이루어진 입체적 조형은 법관의 지위를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1998년 시행된 규칙의 도면에서 의자는 더욱 간결한 형태로 변한다(사진 2).[4] 다리 부분의 조각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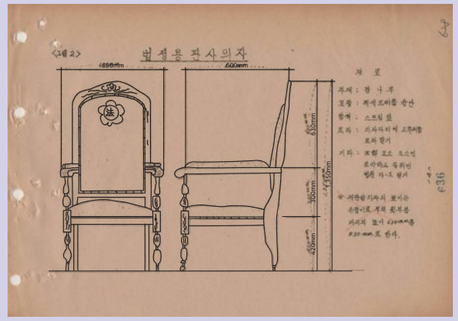


사진 1 1971년 시행 법정용 법관 의자 지정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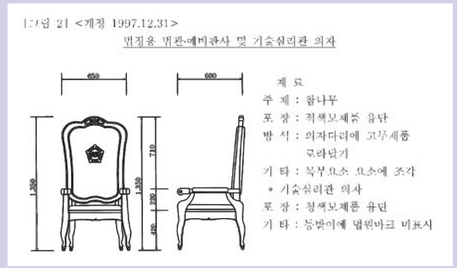


사진 2 1998년 시행 법정용 법관 의자 지정 도면

2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되지만, 본 글에서는 판사로 통칭한다.
3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시행 1971. 1. 1.] [대법원규칙 제444호, 1970. 12. 30., 일부개정]
4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시행 1998. 3. 1.] [대법원규칙 제1505호, 1997. 12. 31., 일부개정]



사진 3 2024년 기증 법관 의자



사진 4 2025년 기증 법관 의자

은 사라지고, 기능적이고 현대적인 형태의 다리로 대체되었다. 상단 부분 역시 둥근 아치형(∩)에서 곡선(m)으로 변화했다. 흥미로운 것은 세부 치수의 변화이다. 팔걸이에서 등받이 꼭대기까지의 길이는 630mm에서 710mm로 늘어난 반면, 좌석에서 팔걸이까지의 높이는 300mm에서 220mm로 줄어들었다. 이는 인체공학적 고려가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2024년 기증된 법관 의자는 조각 장식이 있는 다리와 아치형 상단을 가지고 있어 1971년의 조형 문법에 충실하다(사진 3). 반면 2025년 기증 의자는 간결한 형태와 상단의 무궁화 조각을 특징으로 하며, 1998년 규칙을 따르고 있다(사진 4). 이처럼 의자의 형태 변화는 시대가 요구한 권위의 표현 방식이 장식적 화려함에서 기능적 절제로 이행했음을 보여준다.

3. 시간에 따른 휘장의 변천

법원 휘장의 변화는 더 극적이다. 1969년 제정된 「법원기에관한 내규」에서 휘장은 무궁화 문양 안에 '법원'이라는 글자를 원형 테두리로 감싼 형태였다.[5] 금색 테두리의 무궁화, 하늘색 배경, 백색 글자라는 색채 구성은 간결하면서도 상징성이 명확했다(사진 5). 이 시기 휘장은 무궁화라는 민족 상징과 법원이라는 제도적 명칭을 직접적으로 결합하면서도 명료한 표식이었다.

그러나 1978년 개정[6]에서 휘장은 완전히 바뀐다(사진 6). 이때부터 법원기의 무궁화 형태를 '법원의 휘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새로운 휘장은 두루마리 용지를 무궁화 형태로 표식하였고, 그 안에 육법전서를 상징하는 펼쳐진 모양의 책을 배치했으며, 책 속에 '법원' 글자를 새겼다. 1969년의 단순한 원형 구조는 사라지고, 오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경되었다. '법원'이라는 금색 글자에 곤색 테를 두른 이 새로운 휘장은 전보다 복잡한 상징체계를 구축했다.

1989년 개정[7]에서는 휘장의 기본 디자인은 유지하되, 색상 명칭이 일본어 발음인 '곤색'에서 우리말인 '감색'으로 변경되었다(사진 7). 실질적으로 1978년부터 1989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법원 휘장의 도상학적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24년 기증 의자의 휘장은 흥미롭게도 과도기적 특징을 보인다. 펼쳐진 책과 두루마리 무궁화는 1978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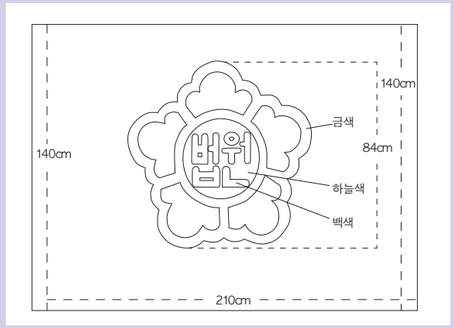


사진 5 1969년 법원기

5 「법원기에대한내규」 [시행 1969. 11. 13.] [내규 제44호, 1969. 11. 13. 제정]
6 「법원기에대한내규」 [시행 1978. 8. 17.] [내규 제78호, 1978. 8. 17. 개정]
7 「법원기에대한내규」 [시행 1989. 11. 1.] [내규 제169호, 1989. 11. 1.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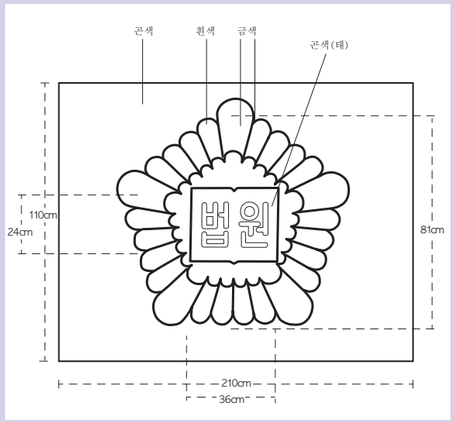


사진 6 1978년 법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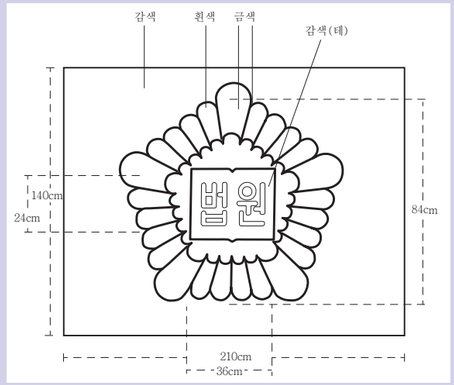


사진 7 1989년 법원기

의 요소이지만, 무궁화와 책 사이, 그리고 책을 감싸는 테두리 부분에서 1969년의 원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사진 8). 이는 1978년 개정 직후, 새로운 디자인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의 과도기에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사진 8 2024년 기증 법관 의자의 휘장
사진 9 2025년 기증 법관 의자의 휘장

2025년 기증 의자는 1978년 이후 확립되고 1989년까지 계승된 휘장 양식—두루마리 무궁화, 펼쳐진 육법전서, 오각형 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사진 9).

4. 의자에 기록된 정의의 역사

대법원규칙과 내규의 변천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증 법관 의자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2025년 기증 법관 의자는 1998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약 20년의 시간차를 두고 제작된 이 의자들은 한국 사법제도가 겪은 물질문화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기증 법관 의자는 조각 장식이 살아있는 다리, 아치형 상단, 그리고 과도기적 휘장을 특징으로 한다. 1978년 새롭게 도입된 두루마리 무궁화와 펼쳐진 책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1969년의 원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반면 2025년 기증 법관 의자는 장식을 절제한 간결한 형태, 인체공학적 비례, 그리고 완전히 정착된 1978년식 휘장을 보여준다. 백 년의 시간을 품은 붉은 벽돌 건물 안에서 이 의자들은 다시 한번 역사의 증언자가 된다. 의자의 형태와 휘장에 새겨진 변화는 단순히 디자인의 변천이 아니라, 권위를 표현하는 방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장식에서 기능으로, 과시에서 절제로 이행한 이 변화는 각각 다른 시대의 조형 언어를 담고 있다.

모두의 박물관으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02-현재)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2002–Present)

동아대학교는 2002년 3월 이 건물을 매입하며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의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같은 해 9월, 건물은 국가등록유산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6년에 걸친 해체·수리를 거쳐 2009년 5월 17일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이후 약 60만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부산 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실험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 대학박물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백 년의 시간을 품은 붉은 벽돌 건물은 지금, 모두를 위한 박물관으로 다시 숨 쉬고 있습니다.

V



In March 2002, Dong-A University purchased the red-brick complex and made a decisive choice: to turn it into a museum for everyone. That September it was registered as a national heritage property, and after six years of careful dismantling and restoration the museum opened on May 17, 2009. Since then, roughly 600,000 visitors have walked its halls. Today, through the '*Busan Heritage cultural content branding*' project, the site serves as a platform that reinterprets the past and prototypes the museum's future. A century on, the building breathes again, this time truly as a museum for all.

건축유산으로 재탄생

Rebirth as Architectural Heritage

동아대학교는 부산 서구청과 치열한 인수 경쟁 끝에 2002년 3월 옛 법조청사 건물과 부지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로 지을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이는 단순한 건물 활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이 역사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지역사회의 집단 기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동아대학교는 보존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이 붉은 벽돌 건물은 석당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캠퍼스 이전과 함께 대학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After intense competition with Busan's Seo-gu District Office, Dong-A University acquired the old courthouse building and grounds in March 2002. But the real challenge came next: '*Build new or preserve?*' This was not simply a matter of building use. It wa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what relationship a university chooses with history and what responsibility it bears toward a community's collective memory. The university chose preservation. That decision gave the red-brick building new life as Seokdang Museum. Beyond securing a facility, it marked a turning point where the university's campus relocation became a model for how institutions can coexist with their local communities.



068

21세기 초일류 대학 전기 마련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a Leading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2001년 6월 4일 | 제948호 동아대 학보
June 4, 2001 | No. 948 Dong-A University News

부산 서구청과의 인수 경쟁이 치열했던 2001년 6월, 대학 학보에는 '부민동 캠퍼스'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아대학교는 옛 법조청사 부지와 건물의 일괄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서구청은 고등법원 청사 건물만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구청은 "동아대가 일괄 매각을 고집한다면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은 본관 건물을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 등을 이전 배치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During the fierce bidding with Busan's Seo-gu District, Dong-A University announced plans to establish the 'Bumin Campus.' The university sought to acquire both the former law-court site and its buildings, while the district aimed to purchase only the High Court. Seo-gu warned that if Dong-A insisted on a full sale, the land would be designated for public use. Still, the university upheld its vision to create a new campus as a cornerstone for regional growth.


동아대학보
21세기 초일류 대학 전기 마련
부민동 캠퍼스 빠르면 올 하반기에 조성 가능할 듯

069

낙찰 이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After the Auction: Dong-A University Bumin Campus

2004년 4월 14일 April 14, 2004



Ⅴ 모두의 박물관으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02-현재)

국가등록유산 지정

National Register Heritage

2001년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붉은 벽돌 건물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02년 8월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0차 회의에서 이 건물은 신청한 '부산 구舊 경남도청'을 대신해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훼손이 심한 후면 영역을 제외한 채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입니다.[1]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도청'이라는 말이 지닌 식민의 그림자를 덜어내고, 한국전쟁기 임시수도의 중심이었던 이 건물을, 지역을 넘어 국가적 의미로 전면에 내세우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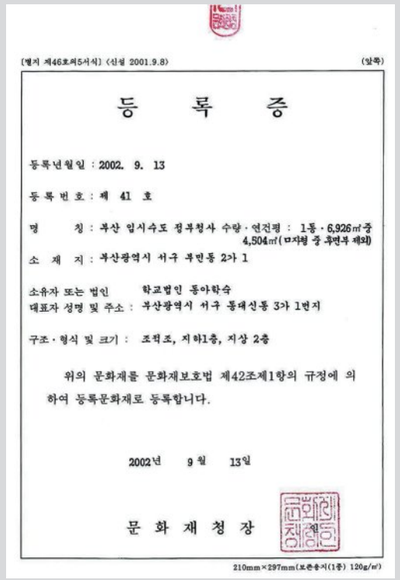
When Korea introduced its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ystem in 2001, this red-brick building was among the first candidates. At the meeting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August 2002, its proposed name, '*Former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Busan*', was replaced with a new one: *Government Building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Only the heavily damaged rear section was excluded from designation. The renaming was more than an administrative act; it was a conscious effort to lift the shadow of colonial authority and recast the site as a national symbol of the Korean War's provisional capital.

1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면서 '국가등록문화재'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070

국가등록유산 등록증
Official Document

2002년 9월 13일 September 13, 2002



〔별지 제46호의5서식〕〈신설 2001.9.8〉 (앞쪽)

등 록 증

등록년월일 : 2002. 9. 13

등 록 번 호 : 제 41 호

명 칭 :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수량·연건평 : 1동·6,926㎡중 4,504㎡(ㅁ자형 중 후면부 제외)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

소유자 또는 법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구조·형식 및 크기 : 조적조, 지하1층, 지상 2층

위의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합니다.

2002년 9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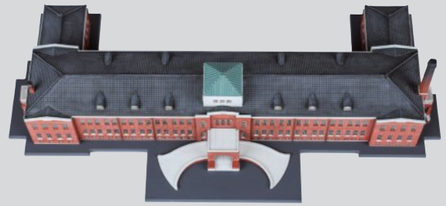
청사의 보존과 복원: 흔적의 재생과 기능의 전환

Regenerating Traces, Recasting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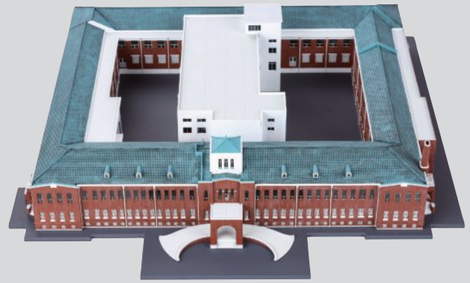
동아대학교는 2002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 붉은 벽돌 건물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와 해체·수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1] 그러나 그 복원은 단순히 옛 모습을 되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축물이 지나온 시간의 흔적을 읽고, 그 층위를 학문적으로 해석해 보존하려는 깊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복원의 핵심은 '흔적의 재생'과 '기능의 전환'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후면부는 철거하되, 외형은 1940년대 모습을 기준으로 복원했습니다. 내부는 박물관 기능에 맞게 다시 설계하였습니다. 건물의 역사성과 현대적 활용을 동시에 담아낸 이 작업은 보존과 활용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귀중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From April 2002 to October 2008, Dong-A University carried out precise surveys and a dismantling-and-repair program on the red-brick complex. The goal was not a nostalgic facsimile but a scholarly conservation of the building's layered time. Guided by two principles—*regenerating traces* and *recasting function*—the weakened rear was removed, the exterior reinstated to its 1940s profile, and the interior re-planned for museum use. The result is a clear model in which historical integrity and contemporary utility do not compete, but coexist.

1 실측조사: 2002년 4월 12일~2006년 8월 31일(총 7차 진행) I 해체수리 공사: 2004년 12월~2008년 10월



1920년대 건물 모형
Architectural Model (1920s)



1970년대 건물 모형
Architectural Model (1970s)

* 자세한 내용은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실측조사 및 해체수리 보고서』(2008, 동아대학교)와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2017,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를 참고해주세요.

* For detailed documentation, see *Measured Survey and Repair Report for the Government Building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2008), and *Government Building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exhibition catalog, 2017).



071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보수공사
Renovation Work

2004년 2004

072

보수공사 모습
Renovation Work

2005~2008년 2005~2008


정면 포치 해체 Dismantling of the Front Portico


내부 보존 벽체 설치 Installation of Interior Preservation Walls


굴뚝 보수 Chimney Repair


기초 공사 Foundation Work


외벽 세척 Exterior Wall Cleaning


옥탑 GRC* 패널 설치 Installation of Rooftop GRC Panels
*GRC: 시멘스타 콘크리트에 유리섬유를 혼합하여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

복원 과정 속에서 새로운 발견

Unexpected Discoveries in Restoration

건물은 복원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후면 지붕에서 발견된 상량문, 방공 장비를 표시한 나무 표찰, 목재 업체명이 새겨진 판재까지 이 부재들은 단순한 자재가 아닌 도청의 증축, 전쟁, 그리고 수리의 역사를 입증하는 자료였습니다. 복원팀은 해체·수리 공사를 또 다른 발굴 과정으로 접근하여 발견된 부재 하나하나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During restoration, the building slowly revealed its hidden stories. A ridge beam inscription, air-raid tags, and timber boards with supplier names together testified to its history of expansion, war, and repair. The team approached dismantling as a kind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recording and interpreting each fragment to restore the building's layered past.

073

상량문

Ridge Beam Inscription

1940년 11월 7일 11.5×57.0×1.7cm

November 7, 1940 11.5×57.0×1.7cm



전면



후면

· 전면: 上棟式: 慶尙南道道廳舍增築工事, 慶尙南道道知事 三澤和三郎, 昭和 15年 11月 7日, 請負人 立花 定, 工事監督 竹內伴治
상량식: 경상남도 도청사 증축 공사, 경상남도 지사 미사와 와사부로三澤和三郎 (1939. 9. 29.~1941. 2. 18. 재임), 쇼와 15년(1940년) 11월 7일, 시공자: 다치바나 사다무立花 定, 공사감독: 다케우치 반지竹內伴治(회계과 기수)

· 후면: 大國主大神 御守護, 手置帆負命, 彦挾知命
대국주대신 어수호, 타오키호이노미코토, 히코사시리노미코토

이 상량문은 건물 후면 지붕에서 발견된 것으로, 1940년 도청을 2층으로 증축할 당시 내력이 확인됩니다. 앞면에는 '상량식, 1940년(쇼와 15년) 11월 7일 경상남도 도청사 증축공사'라는 문구와 함께 당시 도지사와 시공자, 감독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일본 신화 속 대지의 신과 건축의 신이 건물을 지켜준다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This ridge beam inscription was discovered in the roof of the building's rear wing, a trace from its 1940 expansion. On the front it notes the date of the ceremony—November 7, 1940—along with the names of the governor, builder, and construction supervisor. On the reverse, an invocation calls on the gods of earth and architecture from Japanese mythology to safeguard the structure.

상량문 발견 지점





방공기구·클로스류

의자 덮개·모포

국소
(방공·소방 장비 표식 추정)

074

나무 표찰

Wooden Tag

1940년대 22.5×9.4×1.0cm (방공기구) 22.6×9.2×0.9cm (의자덮개) 1.2×5.5×1.0cm (국소)

1940s 22.5×9.4×1.0cm (Air-raid equipment) 22.6×9.2×0.9cm (Chair cover) 1.2×5.5×1.0cm (National Fire Defense)

상량문과 함께 발견된 나무 표찰들은 도청에 방공 장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작은 나무 조각이지만 그 안에는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시기 전시 체제가 행정 공간까지 스며들었던 시대의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Alongside the ridge beam inscription, wooden tags were uncovered, quiet reminders that air-raid equipment once stood inside the provincial office. They carry the atmosphere of the 1940s, when the Pacific War pressed even into the corners of an administrative building.

075

목재 판재
Wooden Board

1900년대
24.0×87.5cm (육이상회)
29.5×150.3cm (무한공사)

1900s
24.0×87.5cm (Yuk-I Company)
29.5×150.3cm (Muhan Company)

목재 판재에 적힌 '부산 육이상회'와 '안동 무한공사'는 도청 지붕 트러스에 목재를 납품했던 업체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안동 무한공사 위에 적인 차병次並, つぎなみ은 부재 조립 순서를 나타내는 용어로 보입니다.

The wooden boards are thought to have come from the companies that supplied timber for the provincial office's roof trusses.

부산 육이상회 안동 무한공사



076

붉은 벽돌
Red Bricks

1923년
23.0×11.0×6.0cm (벽돌 한 개 기준)

1923
23.0×11.0×6.0cm (per brick)

청사 건립 당시 벽돌은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 방식을 함께 사용해 올렸습니다. 벽돌 사이 줄눈은 약 7mm 두께의 라임 몰탈로 맞추었습니다. 중앙에 쓰인 벽돌 크기가 거의 같은 점으로 미루어, 부산의 한 요업회사에서 기계화된 공정으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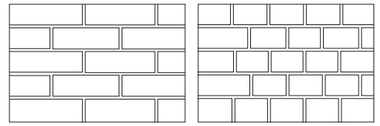
Bricks were laid in stretcher and header bonds, joined with lime mortar about 7mm thick. To supply the project's scale, they were likely made through mechanized processes at a ceramic factory in Busan.



길이쌓기



마구리쌓기



길이쌓기

마구리쌓기

077

용마루 기와
Roof Ridge Tile

1900년대
34.0×43.0×1.2cm

1900s
34.0×43.0×1.2cm

지붕의 가장 높은 마루선을 덮는 용마루 기와입니다. 이 기와는 녹색 페인트로 마감된 일식 시멘트 기와로 어느 시기의 수리 과정에서 교체된 흔적으로 파악됩니다.

This is a ridge tile, placed along the highest line of the roof. Finished with green paint and made of Japanese style cement, it is understood as evidence of a replacement carried out during a later repair.





흔적의 재생과 기능의 전환

From Function to Memory: Transformation and Restoration

김기수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 붉은 벽돌 건물은
한 시대의 기념비가 아니라,
여러 시대가 포개진 시간의 구조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원형을 찾아가기보다
남겨진 흔적을 재생하고,
오늘의 쓰임에 맞게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해체되고 박물관이 되기까지 해당 과정을 총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100년을 읽고, 복원의 방향을 설정한 김기수 교수입니다. 그에게 '복원'이란 특정 시기를 재현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의 층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래 인터뷰를 통해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시간이 축적된 공간임을,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들어봅니다.





다섯 번의 변화, 하나의 건물

이 건물은 100년 동안 다섯 번의 삶을 삶았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입니다.
이름 참 길죠?
그런데 그 이름이 지닌 시간은 겨우 3년입니다.
나머지 97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건축유산을 다룬다는 것은
특정 시기만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외관은 지키되, 기능은 바꾸다

판사와 검사들이 쓰던 집무실
그 공간을 박물관 전시실로 바꾸는 일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외형과 역사적 특징은 그대로 보존하되,
내부의 모든 기능을 문화 공간으로 전환해야 했죠.
성격 자체가 달라지니 일반 건물보다
최소 3배는 힘든 작업이었어요.



해체는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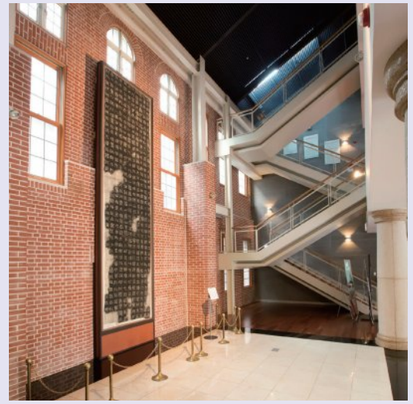
공사 중에 건물의 뼈대가 드러났습니다.
건물을 100년 가까이 쓰다 보면 고치고 증축하는데,
밖에서는 그게 다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해체 공사를 하면
내부 구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건물은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구나.'
그 시대의 기억과 기술, 문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사 과정 자체가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잃어버린 공간을 되찾다

박물관 건물을 볼 때, 추천하고 싶은 공간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물관 정면과 원형 조경,
그리고 중앙 입구 일대예요.
100년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외부 공간이죠.
이 일대가 건물이 가진 시간의 무게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또 하나는 3층 옥탑이에요.
여러 변화 속에서 잊혀졌던 곳이었는데,
복원하면서 내부 중앙을 지붕까지
수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공간을 다시 살려내면서
100년의 기억을 그 안에 담으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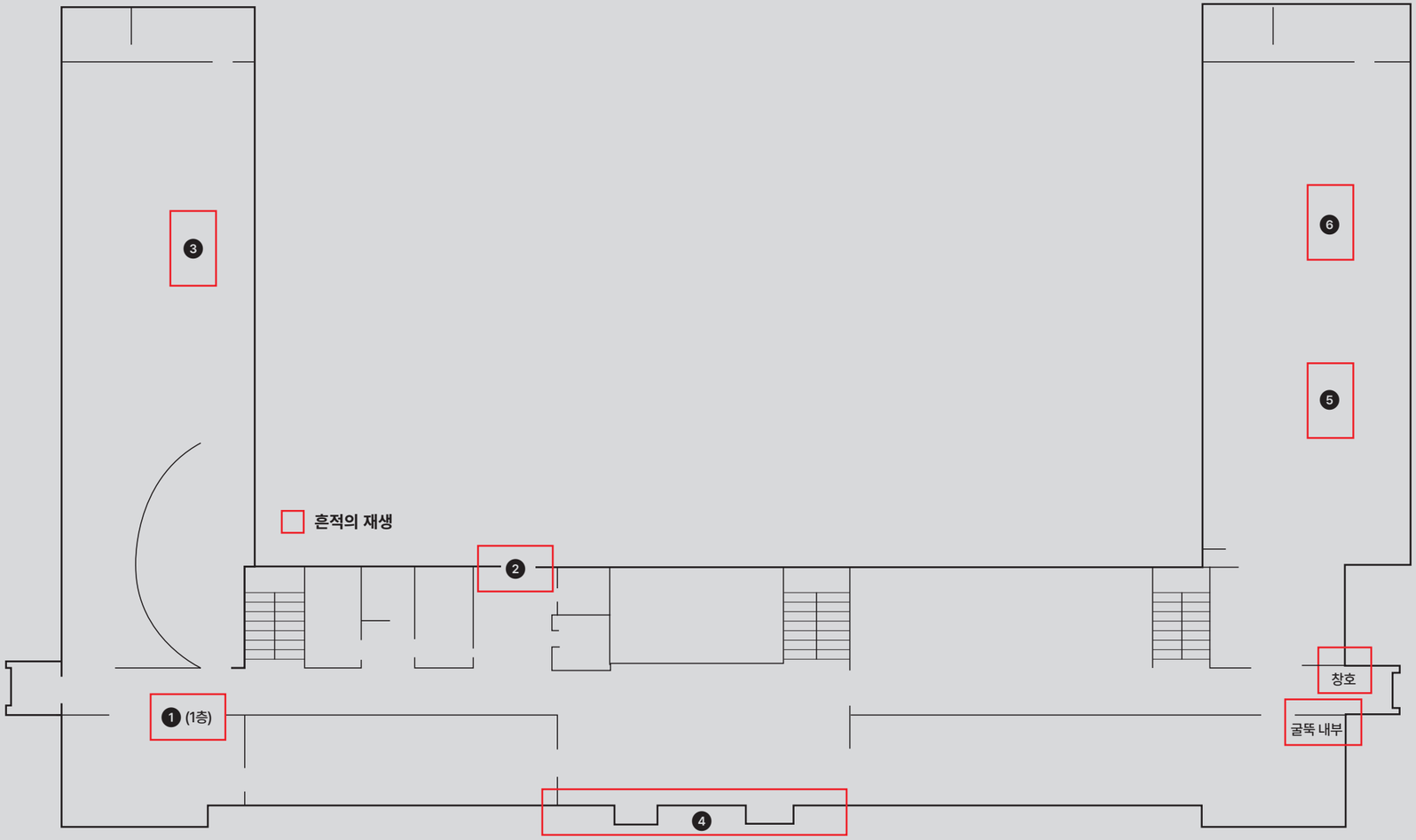
붉은 벽돌의 흔적을 찾아서

동아대학교는 붉은 벽돌 건물을 박물관으로 전환하면서 철거된 벽체의 일부를 본래 위치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벽체들은 건물이 겹겹이 쌓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Tracing the Red Brick

As the red-brick building was converted into a museum, select portions of demolished walls were deliberately left in situ. Encountered throughout the galleries, these exposed wall fragments mark former boundaries and make the building's layered time legible.

2층 전시실 Second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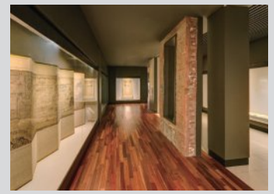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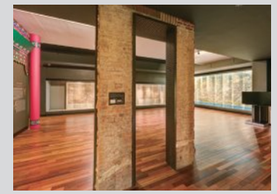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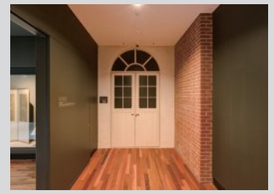








창호



굴뚝 내부



이전 개관: 박물관의 공간적 전환

Relocation and Reopening: A Spatial Transformation

2009년 5월 19일, 동아대학교 박물관은 구덕캠퍼스를 떠나 이곳 붉은 벽돌 건물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으로 새롭게 불리며,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동시에 건물 자체가 '전시 대상'이라는 독특한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람객은 유물을 감상하면서 건물이 품은 100년의 흔적을 따라가며, 한 자리에서 여러 시대의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On May 19, 2009, Dong-A University Museum moved from its Gudeok Campus into this red-brick building, now known as the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The structure assumed a dual role: it became both the setting for exhibitions and an artifact in its own right. Visitors encounter not only the displayed objects but also the century of time embedded in the walls, reading the building itself as part of Korea's modern history.



078

동아대학교 박물관 이전 개관식
Opening Ceremony for the Relocation of Dong-A University Museum

2009년 5월 19일 May 19, 2009

079

박물관 내벽 '1959 11 1'
Museum Interior Wall '1959 11 1'

2024년 2024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개관 날짜, 1959년 11월 1일이 회색의 내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The museum's founding date, November 1, 1959, is subtly embedded in the gray interior wall.



구술 3

역사를 옮기고, 오늘을 세우다

Transferring History, Establishing the Present

박창열·이수영
동아대학교 학예연구과

2002년 동아대학교가 부민동의 붉은 벽돌 건물을 매입했을 때부터 이곳이 언젠가 박물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19일 개관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진 이전의 과정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전 작업에 참여했던 박창열·이수영 연구원의 이야기에는 유물 하나하나를 옮기며 박물관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책임감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100년 된 건물이 어떻게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Q. 당시 박물관 이전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박창열 사실 현재 건물로 박물관이 이전된다는 건 모두가 훨씬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02년 건물 매입 당시부터 박물관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꽤 길었죠. 개인적으로는 당시 협소했던 기존 구덕캠퍼스 내 박물관에서 의미 있는 근대건축물로 이사 가니, 당시 기준 최첨단 전시나 수장 시설로 간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수영 처음엔 솔직히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사 간다는 즐거움보다는... 이전을 하게 되면 유물들을 다 옮겨야 하잖아요. 그걸 전부 포장해서 가져가야 하니까 "아, 일이 많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최첨단전시와수장시설로간다는기대
#아,일이많아지겠구나



Q. 본격적인 이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이수영 지금 국제관 자리에 있었던 입찰법정동 건물에 임시로 고고유물을 정리하는 사무실과 수장고가 있었어요. 2003년쯤은 아직 캠퍼스 조성이 다 안 된 상황이라 진짜 공사판 한가운데에서 일했어요. 금방 박물관이 완공될 줄 알았는데 공사가 생각보다 꽤 걸렸던 것 같아요.

박창열 본격적으로 소장 유물 이전 작업이 시작된 것은 2007년 10월 경이에요.

#공사판한가운데서유물정리
#이전작업은2007년10월부터

Q. 이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수영 고고유물이 한두 점이 아니라서 정말 많은 양을 다 포장해야 했어요. 인원도 많지 않아서 하루 종일 포장 작업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래도 유물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일이 포장하는 업무가 시간이 많이 걸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포장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무거운 박스를 계단으로 나르면서 또 박물관 지하 수장고로 옮기려고 지하 창문을 뜯어서 미끄럼틀처럼 판을 설치해 유물을 내려 보냈는데요. 그 작업이 정말 힘들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6개월동안유물포장
#미끄럼틀로유물내려보내기
#힘들어서기억에남아요



박창열 박물관 앞 원형 화단에 처음부터 소나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무엇을 놓을 것인지에 대한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앞에 석등이 있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탑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자리를 옮겨 다시 설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경비실이 현재 위치에 들어올 것을 생각 못하고 두었다가 이후에 경비실을 짓는 바람에 위치를 옮긴 적도 있어요. 2층 고고실에 있는 대형 옹관도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이 옹관은 산산조각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보존처리 이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답니다. 유물이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저것도 한 2~3주 걸려서 보존처리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원형화단에소나무 #석탑과경비실
#보존처리한대형옹관

Q. 박물관 이전이 완료된 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박창열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가까운 지하철 역이 있어 관람객이 방문하기 편해졌어요. 하지만 이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려워요. 2009년 개관 이후에도 유물 이관은 계속됐거든요. 2010년 10월에는 상천리 삼층석탑,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전차가 옮겨왔습니다. 지금도 이전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그때는 이사와 정리에 바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때 옮겨온 유물들을 다시 다루고 있어 새삼 감회가 새롭네요. 오랜만에 다시 박물관에 근무하러 돌아왔는데, 큰 변화 없이 예전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끝나지않은유물이전
#내가옮긴유물을다시보니감회가새로워



Q. 박물관 건물이 건립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박창열 건물이 단지 오래되었다는 것보다, 역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이 공간을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옆에 있었던 무덕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이 건물이 거쳐온 역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박물관 건물이 견뎌온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발자취를 생각하면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이 오래도록 보존되어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전하는 장소로 남기를 바랍니다.

#박물관건물의활용 #100년역사를넘어미래로

Ⅴ 모두의 박물관으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02-현재)

080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전경
Panoramic View

2015년
2015



081

박물관 전시실
Museum Galleries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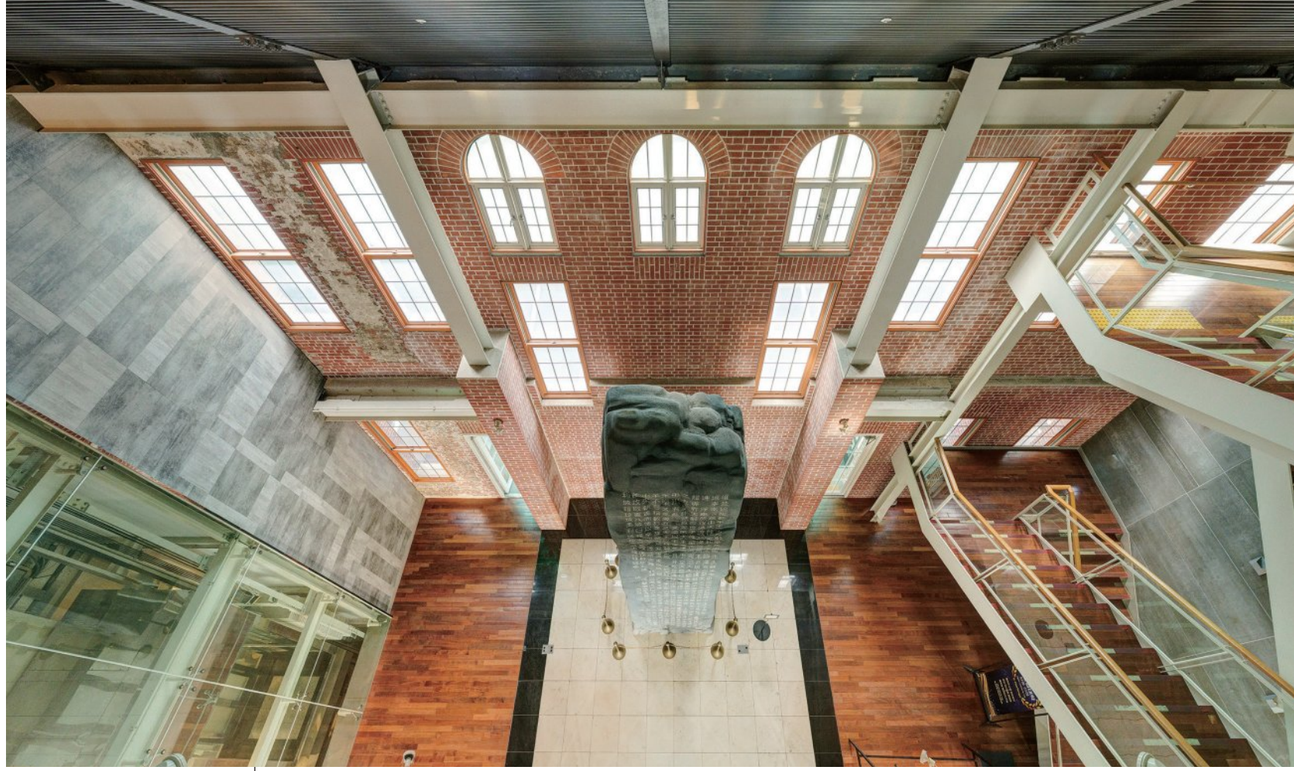
2025

고고실 Archaeology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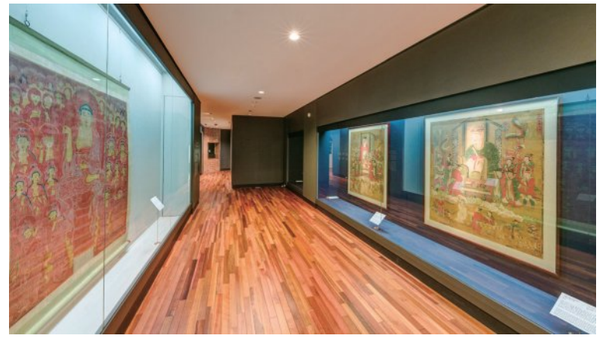


도자실 Ceramics Gallery





불교미술실 Buddhist Art Gallery





서화실
Paintings & Calligraphies Gallery



민속실
Folklore Gallery



임시수도 정부청사 기록실
Record Gallery of
the Government Building of
Provisional Capital, Busan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Seokdang Museum of Art, Dong-A University

2024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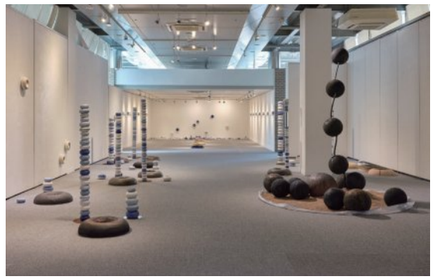
석당미술관은 박물관 뒤편에 자리한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붉은 벽돌과 투명한 유리가 나란히 서며, 근대와 현대가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의 공간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Seokdang Museum of Art rises behind the main museum in glass and steel, its modern transparency set against the red-brick historic façade. Together they form a single architectural dialogue, where past and present quietly align.





제1전시실



제2전시실

083

전시 포스터 모음
Exhibition Posters

2009~2025년 2009~2025

석당박물관은 2009년 이전 개관 이후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며 꾸준히 관람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2021년 석당미술관과 통합되어 과거와 현재의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전시 포스터는 기획 의도와 전체 컨셉을 한 장에 담아낸,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The Seokdang Museum has sustained a broad program of exhibitions. In 2021 it merged with the Seokdang Museum of Art, expanding into a unified cultural venue that bridg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realms. Each exhibition poster distills the curatorial intent and overall concept into a single frame, the first signal that catches the eye and sets expec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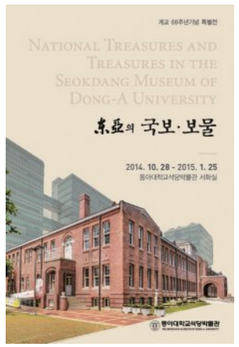
박물관 이전 개관_2009



민화와 만나다_2010



동궐_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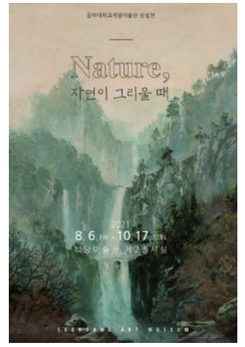
東亞의 국보·보물_2014



금조총_2017



민속·일상으로의 초대_2019



Nature, 자연이 그리울 때_2021



환대, 부산과 맺은 인연_2022



문화재와 영상의학의 만남_2023



부산 전차_2023



사색 저 너머_2023



종이 위에 피어난 웃음꽃_2024



도전! 석당골든벨_2018
Challenge! Seokdang Golden Bell, 2018



생생한 임시수도 정부청사 스쿨_2022
Living History: The Red-Brick School, 2022



동아뮤즈_2025
Dong-A MUSE, 2025

084 교육 활동 모음
Educational Activities

2009~2025년 2009~2025

석당박물관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교육의 장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 장애인까지 이곳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학생들은 소장품 앞에서 문화유산의 의미를 배웁니다. 성인들은 작품을 매개로 인문학적 대화를 이어갑니다.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접근 가능한 쉬운 해설을 제공하여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he Seokdang Museum is a platform for cultural education that transcends generations and boundaries. Educational programs are designed for diverse visitors including children, adul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tudents understand cultural heritage through collection exploration. Adults form humanistic discourse centered on exhibitions.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 accessible interpretation, supporting everyone in enjoying the exhibitions.

085 동아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Dong-A Goods Award Winners

2022~2025년 2022~2025

석당박물관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소장품에 새로운 시선을 더한 굿즈 아이디어를 찾아내며, 젊은 세대와 함께 동아 브랜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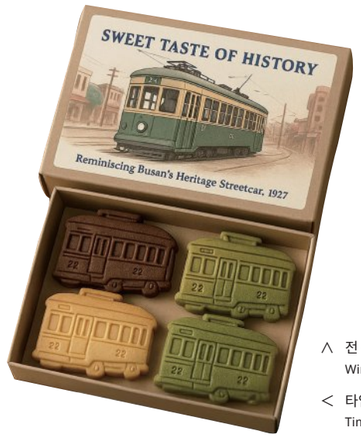
The Seokdang Museum hosts a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for university students, inviting them to reinterpret the museum's collection with creativity and fresh perspective. Through this collaboration, the museum works with younger generations to reimagine and renew the identity of the Dong-A University brand.



<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뱃지
Badge



< 날아라 기와 보드
Fly! Roof Tile Board





∧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무선 이어폰 케이스
Wireless Earphone Case

< 타임트레인 쿠키 세트
Time Train Cookie Set

∨ 석당박물관 리무버블 스티커
Removable Sticker



∨ 모두의 박물관으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02-현재)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

B-Heritage Cultural Content Branding

2024년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1]에 선정되어, 석당박물관은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브랜드화'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박물관은 소장품에 첨단 융합기술을 결합한 '메타뮤지엄', 생애주기별 헤리티지 교육과 학예 분야 필드 인턴십을 운영하는 '글로벌 아웃리치 플랫폼'을 통해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은 이제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디지털과 교육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경계 없는 대학박물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In 2024, as Dong-A University and Dongseo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Glocal University 30* initiative, the Seokdang Museum entered a new chapter with the '*B-Heritage Cultural Content Branding*' project. Through the *Meta Museum*, which merges the collection with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Global Outreach Platform* offering lifelong heritage education and curatorial internships, the museum is transcending physical boundaries. What was once a red-brick repository of artifacts is now evolving into a boundaryless university museum that connects heritage, education, and the world.

1 글로컬대학30: 교육부에서 지역 산업·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총 30건 선정하며,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헤리티지 교육: B-헤리티지 나눔 스쿨 I B-Heritage Sharing School



필드 인턴십 I Field Internship

086

글로벌 아웃리치 플랫폼

Global Outreach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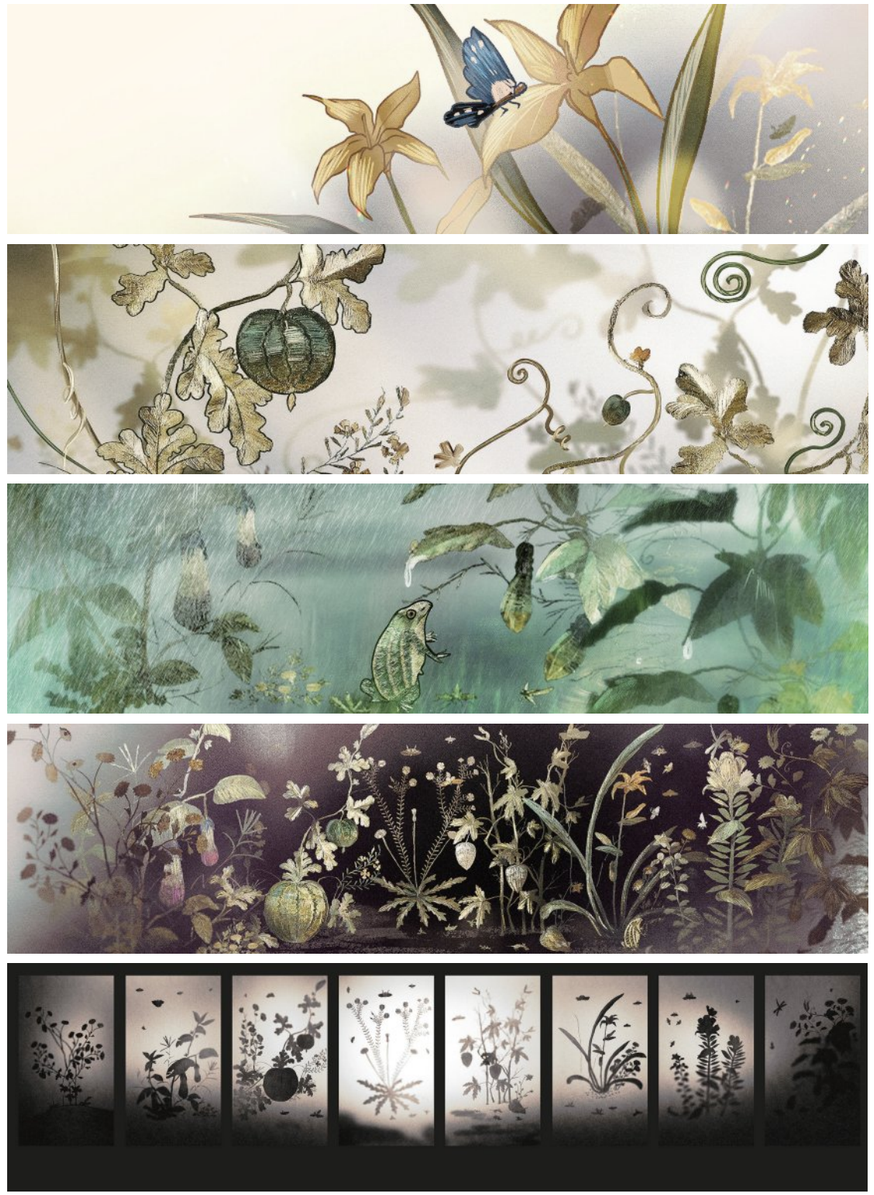
2024~2028년 2024~2028

087

메타뮤지엄

Meta-Museum

2024~2028년 2024~2028



사계: 자수 초충도 병풍 I Four Seasons: The Embroidered Grass and Insects

I

붉은 벽돌에 새겨진 첫 이름
(경상남도청, 1925–1950)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in the Modern Era (1925–1950)

001

부산자혜의원 부지 설계 평면도
Architectural Drawing of
the Busan Charity Hospital

1920년대
국가기록원

1920s
National Archives of Korea

002

준공을 서두르는 부립병원
Busan Charity Hospital,
Rushed to Completion

1923년 7월 26일 | 3면
조선시보

July 26 1923 | Page 3
Chosun Shibo

003

상량식
Topping-out Ceremony

1923년 8월 2일 | 2면
조선시보

August 2, 1923 | Page 2
Chosun Shibo

004

부산자혜의원
Busan Charity Hospital

1924년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24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005

광주자혜의원 신축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Gwangju Charity Hospital

1922년 4월
국가기록원

April 1922
National Archives of Korea

006

수원자혜의원 본관 신축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Suwon Charity Hospital

1923년 5월
국가기록원

May 1923
National Archives of Korea

007

해주자혜의원 본관 신축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Haeju Charity Hospital

1923년 10월
국가기록원

October 1923
National Archives of Korea

008

전주자혜의원 신축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Jeonju Charity Hospital

1922년 8월
국가기록원

August 1922
National Archives of Korea

009

이전 직후의 경남도청 사무실
Provincial Office of Gyeongsangnam-do,
Just After Relocation

1923년 3월 26일 | 7면
부산일보

March 26, 1925 | Page 7
Busan Ilbo

010

경남의 산업 일반
Industries of
Gyeongsangnam-do Province

1929년 9월 12일
12.5×18.6cm (표지), 35.0×26.7cm (지도)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September 12, 1929
12.5×18.6cm (cover), 35.0×26.7cm (map)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011

경남약사
Gyeongsangnam-do Chronicle
(Gyeongnam Yaksa)

1929년 9월 15일
12.6X18.5cm (표지), 33.5X26.4cm (지도)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September 15, 1929
12.6×18.5cm (cover), 33.5×26.4cm (map)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012

경남의 노래
The Song of
Gyeongsangnam-do Province

1920년대
16.9×9.1cm (표지), 608.5×91.5cm (내용)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1920s
16.9×9.1cm (cover)
608.5×91.5cm (content)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013

경상남도 청사 사진그림엽서
Picture Postcards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e

1920-1930년대
14.0×9.0cm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13-4, 13-5, 13-6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3-1, 13-2, 13-3, 13-7, 13-8

1920-1930s
14.0×9.0cm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13-4, 13-5, 13-6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13-1, 13-2, 13-3, 13-7, 13-8

014

부산부를 중심으로 그린 명소와 교통 그림지도
Scenic and Transportation Map of Busan

요시다 하츠사부로吉田初三郎
1929년 7월 5일 발행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Yoshida Hatsusaburō
July 5, 1929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015

부산안내도
Busan Guide Map

1938년 1월 발행
부경근대사료연구소

January 1938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016

전차노선도
Busan Tramway Route Map

1939년 8월 발행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August 1939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017

(부산)재판소 앞 역
Busan District Court Station

1930년대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30s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018

부산자혜의원 평면도
Floor Plan of Busan Charity Hospital

1920년대
국가기록원

1920s
National Archives of Korea

019

경상남도 청사 평면도
Floor Plan of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25년 1월 9일
국가기록원

January 9, 1925
National Archives of Korea

020

경상남도 청사 후면 전경
Rear view of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26년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26
Bugyeong Modern Archives Institute

021

경상남도 청사 회의실 설계도
Architectural Drawing of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25년 7월
국가기록원

July 1925
National Archives of Korea

022

경상남도 청사 증축 설계 평면도
Floor Plan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Extension

1938년
국가기록원

1938
National Archives of Korea

023

경상남도 청사 평면도
Floor Plan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40년
국가기록원

1940
National Archives of Korea

024

경남도청 무덕전
Mudeok Pavilion

1939년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1939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 of
Dong-A University

025

경남도청 무덕전
Mudeok Pavilion

1946년 8월 31일
국립민속박물관

August 31, 1946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026

경상남도 상무관
Sangmu Hall

1965년 12월 20일
창원향토자료전시관

December 20, 1965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27

부산지방법원 제1법정동
Courthouse

1989년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

October 24, 1989
Busan District Court

028

무덕전
Mudeok Pavilion

2004년

2004

029

경상남도 청사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46년 6월 2일
국립민속박물관

June 2, 1946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030

경남도청 앞에 게양된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현수막
Banner on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celebrating U.S. Independence Day

1946년 7월 4일
국립민속박물관

July 4, 1946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031

광복 1주년 기념 한국 경찰대의 행진
Korean Police Parade Celebrating the First Anniversary of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1946년 8월 15일
국립민속박물관

August 15, 1946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032

경상남도 방역위원회 교육생 기념촬영
Group Portrait of Trainees from the Provincial Epidemic Prevention Committee in Gyeongsangnam-do

1946년 8월 31일
국립민속박물관

August 31, 1946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I

전쟁 속 나라의 중심
(임시 중앙청, 1950–1953)

The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033

경상남도 청사 앞에서
유엔 한국위원회 대표단 영접
Rece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1950년 7월 1일
UN PHOTO

July 1, 1950
UN PHOTO

034

허정 국무총리 서리의 유엔 고위 간부와 담화
Acting Prime Minister Heo Jeong in talks with senior UN officials

1951년
국가기록원

1951
National Archives of Korea

035

코디어 유엔 사무총장 보좌관 중앙청 일대 방문
UN's official Cordier Visits the Central Government Complex

1952년 3월 14일
UN PHOTO

March 14, 1952
UN PHOTO

036

한미경제조정협정(마이어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Command

1952년 5월 24일
국가기록원

May 24, 1952
National Archives of Korea

037

검문에 불응하는 국회의원
Lawmakers refusing to comply with a military police checkpoint inspection

1952년 5월 25일
국가기록원

May 25, 1952
National Archives of Korea

038

지방도의원 철야 데모
Overnight sit-in protest by provincial council members

1952년 6월 24일
국가기록원

June 24, 1952
National Archives of Korea

039

국회 해산 요구 시위
Protest demanding the dis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1952년 6월
UN PHOTO

June 1952
UN PHOTO

040

발췌 개헌 투표 장면
Scene of the vote on the 1952 Constitutional Amendment

1952년 7월 4일
국가기록원

July 4, 1952
National Archives of Korea

041

발췌 개헌안 서명
Scene from the Plebiscite on the 1952 Constitutional Amendment

1952년 7월 6일
국가기록원

July 6, 1952
National Archives of Korea

042

김성수 부통령 취임 후 정부 인사 간 담화
Conversa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1951년 5월 18일
국가기록원

May 18, 1951
National Archives of Korea

043

허정 국무총리 서리 전사 편찬 표창
Acting Prime Minister Heo Jeong Commends the Compilation of War History

1951년 11월 29일
국가기록원

November 29, 1951
National Archives of Korea

044

이철원 공보처장, 각 도 공보실장 회의 주재
Director Yi Cheol-won Chairs Meeting of Provincial Public Information Officers

1951년 2월 23일
국가기록원

February 23, 1951
National Archives of Korea

045

경상남도 의회 개막
The First Gathering of the Gyeongsangnam-do Assembly

1952년 5월 20일
국가기록원

May 20, 1952
National Archives of Korea

III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경상남도청, 1953–1983)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1953–1983)

046

1982년 경상남도 청사 [제63회 전국체육대회]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82

1982년 10월
창원향토자료전시관

October 1982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47

1967년 경상남도 청사 [증산, 수출, 건설]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67

1967년 7월 25일
창원향토자료전시관

July 25, 1967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48

1975년 경상남도 청사 [꼭 잘 살아야겠다]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1975

1975년 5월
창원향토자료전시관

May 1975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49

도지사 업무 보고와 회의 장면
Governor's briefing and administrative meeting

1966년 3월
창원향토자료전시관

March 1966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50

터키 국회의장, 경상남도청 방문 기념 촬영
Turkish National Assembly visiting the Provincial Office

1959년 9월 19일
국가기록원

September 19, 1959
National Archives of Korea

051

나무 명패
Wooden nameplate

1968년
30.0X14.6X13.0cm
이종길 기증

1968
30.0X14.6X13.0cm
Donated by Lee Jong-gil

052

증산왕 대관식 현판
King of Production Ceremony Banner

1965년 12월 20일
창원향토자료전시관

December 20, 1965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53

증산왕 대관식 거리 행렬
Street parade for the 'King of Production' ceremony

1965년 12월 20일
창원향토자료전시관

December 20, 1965
Changwon Local History Museum

054

증산왕 대관식 (02:36–03:24)
Video Clip: 'King of Production' ceremony (02:36-03:24)

1964년 12월 5일
대한뉴스 제497호
국가기록원

December 5, 1964
The Korean News No. 497
National Archives of Korea

055

도청 이전 고별 기념 촬영
The Farewell of Busan's Provincial Office

1983년 6월 30일
김종부 기증

June 30, 1983
Donated by Kim Jongbu

056

도청 이전 모습
Moving Day of the Provincial Office

1983년 6월 30일
『경상남도백년』 발췌

June 30, 1983
Excerpt from *Gyeongsangnam-do Centennial*

IV

법과 정의의 무대
(부산지방법원·검찰청, 1984–2001)

Busan District Court and
Prosecution Service (1984–2001)

057

부산지방법원·검찰청 전경
Exterior View of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Prosecution Service

1990년대
부산지방법원

1990s
Busan District Court

058

부산항일학생운동 기념탑
Busan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

2004년 설치

Established in 2004

059

33번 수인복을 입은 노무현 변호사
Roh Moo-Hyun, Attorney, in Prison Uniform No. 33

1988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1988
Roh Moo-Hyun Foundation

060

동의대 재판 광경
The Courtroom Scene of the Dong-Eui University Trials

1989년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

October 24, 1989
Busan District Court

061

식목일 행사
Arbor Day Event

1985년 4월 5일
부산지방법원

April 5, 1985
Busan District Court

062

국정감사
National Assembly Audit

1991년 9월 25일
부산지방법원

September 25, 1991
Busan District Court

063

부산지방법원 본관 견학
Elementary School Field Trip to the Busan District Court

1995년
부산지방법원

1995
Busan District Court

064

검찰직원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Computer Skills Competition for Prosecution Service Staff

1994년 9월
부산지방검찰청

September 1994
Busan Prosecution Service

065

법관 의자
Judge's Chairs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추정
65.0×56.5×133.5cm
이종길 기증

Estimated 1970s-80s
65.0×56.5×133.5cm
Donated by Lee Jong-Gil

066

법관 의자
Judge's Chair

1998년 이후
67.0×58.0×138.0cm
부산고등법원 기증

After 1998
67.0×58.0×138.0cm
Donated by Busan High Court

067

부산지방법원 제1법정동 현판
Wooden Signboard of the First Court Building, Busan District Court

1980년대
32.0×171.0cm

1980s
32.0×171.0cm

V

모두의 박물관으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02–현재)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2002–Present)

068

21세기 초일류 대학 전기 마련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a Leading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2001년 6월 4일, 제948호
동아대 학보

June 4, 2001, No. 948
Dong-A University News

069

낙찰 이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After the Auction: Dong-A University Bumin Campus

2004년 4월 14일

April 14, 2004

070

국가등록유산 등록증
Official Document

2002년 9월 13일

September 13, 2002

071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보수공사
Renovation Work

2004년

2004

072

보수공사 작업 모습
Renovation Work

2005~2008년

2005~2008

073

상량문
Ridge Beam Inscription

1940년 11월 7일
60.0×14.5×1.7cm

November 7, 1940
60.0×14.5×1.7cm

074

나무 표찰
Wooden Tags

1940년대
22.5×9.4×1.0cm (방공기구)
22.6×9.2×0.9cm (의자덮개)
1.2×5.5×1.0cm (국소)

1940s
22.5×9.4×1.0cm (Air-raid equipment)
22.6×9.2×0.9cm (Chair cover)
1.2×5.5×1.0cm (National Fire Defense)

075

목재 판재
Wooden Board

1900년대
24.0X87.5cm (육이상회)
29.5X150.3cm (무한상사)

1900s
24.0X87.5cm (Yuk-I Company)
29.5X150.3cm (Muhan Company)

076

붉은 벽돌
Red Bricks

1923년
23.0X11.0X6.0cm (벽돌 한 개 기준)

1923
23.0X11.0X6.0cm (per brick)

077

용마루 기와
Roof Ridge Tile

1900년대
34.0X43.0X1.2cm

1900s
34.0X43.0X1.2cm

078

동아대학교 박물관 이전 개관식
Opening Ceremony for the Relocation of Dong-A University Museum 1900s

2009년 5월 19일

May 19, 2009

080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전경
Panoramic View

2015년

2015

081

박물관 전시실
Museum Galleries

2025년

2025

082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Seokdang Museum of Art, Dong-A University

2024년

2024

083

전시 포스터 모음
Exhibition Posters

2009~2025년

2009~2025

084

교육 활동 모음
Educational Activities

2009~2025년

2009~2025

085

동아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Dong-A Goods Award Winners

2022~2025년

2022~2025

086

글로벌 아웃리치 플랫폼
Global Outreach Platform

2024~2028년

2024~2028

087

메타뮤지엄
Meta-Museum

2024~2028년

2024~2028

참고문헌 References

기사

경성일보 1924년 6월 13일 〈부산병원 기부 문제 만장일치 가결〉
1924년 8월 23일 〈부산병원 설립 무산 위기?〉
1941년 1월 8일 〈경남도청 증축 준공〉

대구매일 1950년 8월 19일 〈이승만 대통령, 정부 기관 부산 이전에 따른 성명 발표〉

동아대학보 2001년 6월 4일 〈21세기 초인류 대학 전기 마련〉

동아일보 1921년 5월 24일 〈자혜의원 증설〉
1953년 7월 15일 〈피란살이 삼년의 발자취(2) 관청편〉

부산일보 1923년 3월 26일 〈이전 직후의 경남도청 사무실〉
1950년 7월 2일 〈경상남도 도청에 정부 각 부처 파견 관실을 설치〉
1952년 3월 23일 〈도난사태난 도청〉
1952년 7월 13일 〈누구가 사치스럽나? 중앙청 정문에 권고반〉
1953년 9월 18일 〈요지경〉

서울신문 1950년 10월 27일 〈오늘 국민대회, 정부환도·평양탈환 등을 경축〉
1953년 8월 14일 〈정부 정식 환도, 8·15 기념식전서 선포호〉

조선시보 1923년 7월 26일 〈준공을 서두르는 부립병원〉
1923년 8월 2일 〈상량식〉
1924년 1월 9일 〈자혜병원 이관 결정-준비는 착실히 진행 중〉
1924년 9월 16일 〈자혜병원 처리 문제〉
1924년 10월 19일 〈부산자혜의원 내년도 실현〉

조선일보 1924년 1월 13일 〈자혜의원 신설〉
1924년 8월 8일 〈전차공사 착수〉
1952년 7월 17일 〈장관실례하오〉

도록

국립민속박물관 2016『핸리 G. 웰본의 한국 방문』
동아대학교석당미술관 2017『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저서

경상남도 1983『내고향 경남』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1988『경상남도사』(상·중·하)
경상남도청 2020『경상남도사 4』경남의 근대
2020『경상남도사 5』경남의 현대
경남도정백년사편찬위원회 1996『경남도정백년사: 1896-1996』
국가기록원 2009『공개재분류 중요기록 해제집 I 』
김종부 2017『나의 삶, 나의 꿈 김종부의 인생 이야기』
문화재청 2002『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권]』(사적분과)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24『부산시사 3』근대
2024『부산시사 4』현대
부산일보사 1985『임시수도천일』
부산지방검찰청 1990『부산지방검찰사』
부산지방법원 1997『부산지방법원백년사』

학술지 논문

김기수 2009「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의 지속가능한 역사」『플랫폼』
엄용래·홍순연·김기수 2009「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고찰」『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주상훈·전봉희 2011「1910-20년대 관립 자혜의원 계획의 시기적 특징과 변화」『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7권 11호
정은아·김기수 2016「피란수도기 부산의 정치·행정기관에 대한 고찰」『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최종술 2013「부산 검찰의 역사와 주요활동에 관한 연구」『항도부산』29권 29호.
한동관·류창욱·고상균·정재국·문종윤·박윤형 2011「한국 근대 의료 건축물에 관한 연구」『의사학』제20권 제2호
홍순연·김기수 2007「경상남도 청사의 변화과정과 재료 및 구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3권 9호
2008「부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사례에 나타난 특성에 관한 고찰」『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10권 3호

학위논문

김다혜 2015「한국전쟁기 임시수도 부산의 사회변화와 공간 재구성」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순연 2008「근대 건축유산의 보전가치에 따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승지 2021「일제강점기 부산부립병원의 운영과 성격」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고서

동아대학교 2008「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실측조사 및 해체 수리 보고서」

기타

국가기록원「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국가법령정보센터「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법원기에 관한 내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발행일 2025년 11월 21일
발행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전화 051-200-8493
팩스 051-200-8498
전자우편 museum@dau.ac.kr
누리집 museum.donga.ac.kr

ISBN 978-89-449-8477-8 13600
가격 비매품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이 책의 저작권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동아대학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재, 복제, 변형, 송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외부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사용은 해당 기관에게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